

2019 ANNUALLY 제35호

속초문화

Sokcho Culture Journal



속초문화원

www.sokcho-culture.com



농업에서 꿈을 찾는 사람들
나도 청년CEO



365일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축산물
매일 밥상 미식회

이 시대의 트렌드 농업·농촌·농협에서 새롭게 즐기세요

농업으로 밝은 내일을 찾고
농촌에서 자연을 즐기고
농협의 새로운 서비스를 누리고

모든 국민들이 이 시대 트렌드를 만나
더 가치있는 삶을 마음껏 누리도록
농협이 트렌드의 중심이 되어
즐거움이 가득한 생활을 열어가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지 부 장 **마 상 일** 농정단장 **김 민 철**



첨단기술로 앞선 금융생활
금융 힙스터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 농촌 여행
뉴트로 감성여행

오늘의 생활미식
**까도까도
매력양파**



흙 속의 진주 양파로
평생 건강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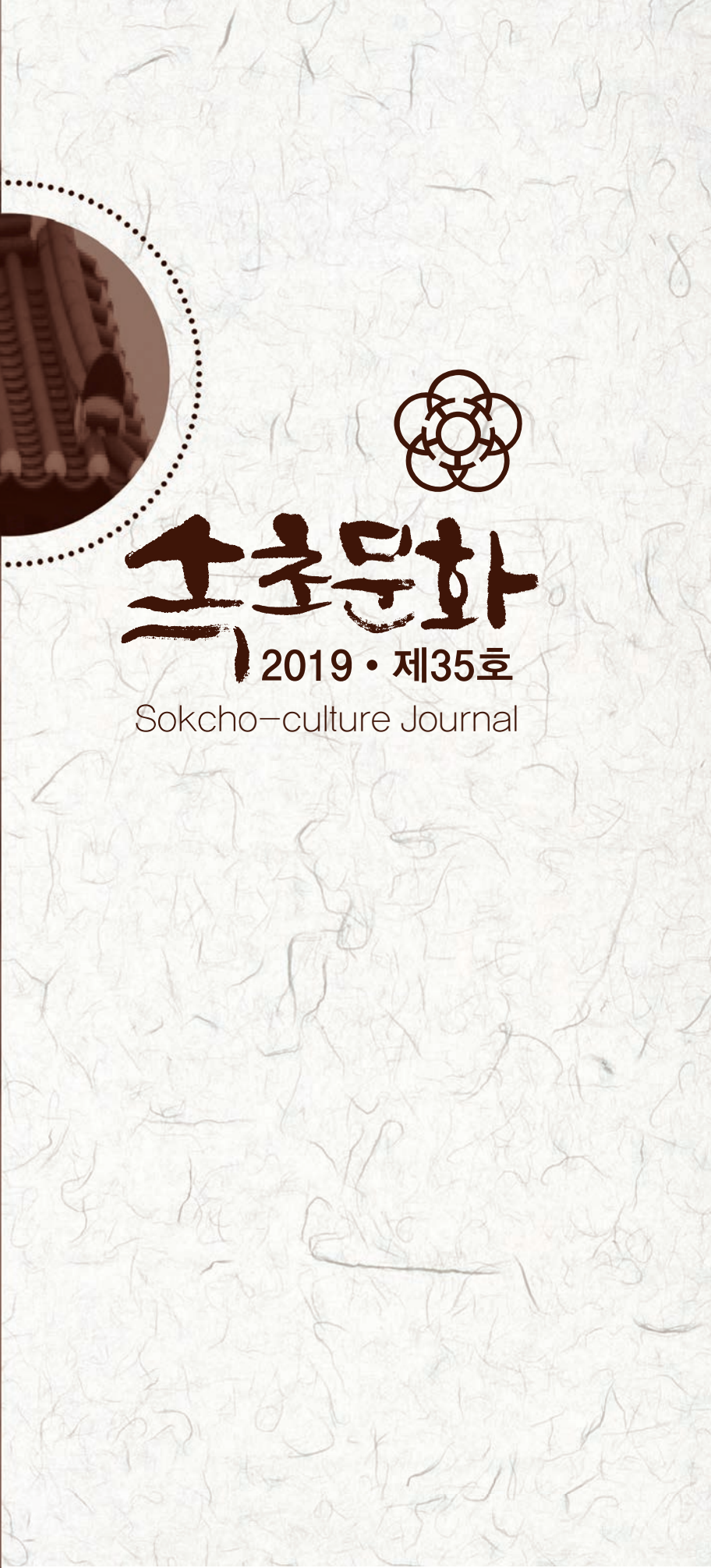


도시가족의 힐링 취미
주말 도시농부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소초문화

2019 · 제35호

Sokcho-culture Journal

CONTENTS

005 권두시 다시 찾아 든 청호동 - 조외순

006 발간사 - 김계남(속초문화원장)

008 지상갤러리

청류(淸流) - 유홍균

항상희락(恒常喜樂) - 윤중섭

설악항에서 - 이설운

설악이야기 - 조정승

013 특집1

014 35년 만에 부활한 <속초시민의 날> - 이광호

019 시민상 및 수상자 소개

021 특집2

022 마을, 자원, 주민이 함께 만드는 문화공동체 '상도문 문화마을' - 김인섭

027 마을 주민이 꿈꾸는 문화마을 상도문 - 이광호

032 유서 깊은 마을, 새로움을 더해가다 상도문 돌담마을 탐방 - 이광호

037 화보 속초항 전경 - 최희재

039 속초문화원 365

040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041 속초도시변천사 기록사업

042 속초문화원 제27기 향토문화학교

044 1시군 1문화행사

046 향토사안내서 발간 사업

047 강원민속예술축제(도리원농악)

048 2019 강원문화대축전

049 속초사자놀이 전수 및 공연

050 속초도문농요 전승 및 공연 (속초도문농요 전수관 위탁관리)



표지작품 정봉재

속초문화

題字 해풍 김광희



속초문화

ANNUALLY 2019 제35호
www.sokcho-culture.com

- 051 제54회 설악문화제 설악제례/설악산 소나무 당제
- 052 상도문 오감행복여행 문화마을
- 053 2019 문화유적답사
- 054 2019 학교문화예술교육 '국악이랑 놀자'
- 056 속초사자놀이 강원도무형문화재 지정 기념 학술세미나
- 057 강원도문화원연합회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사업
- 058 속초시민의 날 행사 지원
- 059 강원도사물놀이 경연대회
- 060 2019 속초문화원 공모사업
- 061 2019 속초문화원 발간책자
- 065 속초문화원 가족 동정
- 067 2019 문화학교 수료·전시·발표회 현장 아마추어를 넘어서는 실력을 뽐내다!
- 071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31호 속초사자놀이 - 양용석

- 075 **향토사연구위원 기고**
- 076 속초만세운동, 100년 전의 열기 - 김만중
- 087 신평마을 갯배선착장 일대 리모델링하자 - 이수영
- 090 문화예술진흥사업 전담할 '속초문화재단' 설립 - 장재환

- 094 속초 관광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안 - 이대영
- 100 "속초 연극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절실" 속초 연극인 대담 - 이광호

119 옛집 - 이은자

인물초대석

124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임효건 공연국장 - 이광호

2019년 속초문화원 임원명단

(우)24821 속초시 변영로 155
 TEL.(033) 632-1231, 639-2439
 FAX.(033) 632-1241
 E-mail. sc2439@kccf.or.kr
 펴낸곳 : 속초문화원
 발행인 : 김 계 남
 편집인 : 양 용 석
 진 행 : 정 호 준
 발행일 : 2019. 12. 31.

<속초문화>는 속초시 보조금으로 제작된 저작물로 일부 글과 사진은 속초문화원과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



NH 속초농협

진심을 팔다 안심을 살다 

속초농협은 우리지역 향토기업으로써,
농업인과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속초농협하나로마트 직원 일동 -



속초농협하나로마트 엑스포점 033)630-1500~1501
중앙시장점 033)633-1508

다시 찾아 든 청호동

밤새워 파도가
불 꺼진 처마 밑을 서성이며
거칠게 청호동을 깨운다

겨울을 수북이 담아
기다리던 명태와 오징어가
밤을 낮 삼아
슬레이트 지붕 아래 빨랫줄을 안고
꾸덕꾸덕 몸을 말리던
비린 향수여!

아마이들이 냇두리 풀던
동네 미장원이 드문드문 문을 열고
도시바람이 분 바다에도
삼치를 따라
은빛 지느러미 너울거리는
갈치가 이사를 온 저녁

고향 그리워
울산바위 옆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짓던 어머니가
속마음 깊이 풀어
푸른 심장으로 날이 밝도록
울고 계신다



조 외 순

순수문학회원
설악문우회회원
속초문인협회회원

속초의 문화 번영을 위해 노력한 한 해를 돌아보며

2019년 기해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문화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초문화원 연간지인 『속초문화』가 35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은 속초문화원이 우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며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를 위해 노력한 한 해로 기억합니다.

전년보다 부쩍 늘어난 문화학교 21개 강좌를 운영하는 동시에, 정부 및 기관·단체에서 공모한 다양한 사업에 선정되어 속초시민들과 지역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도문농요에 이어 속초사자놀이가 올해 초 강원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전승·계승·발전하기 위한 방안과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전문가들을 모시고 속초사자놀이 학술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도리원농악 역시 가까운 미래에 강원도무형문화재 등재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상도문 오감행복여행 문화마을’로 명명되어진 문화마을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전문적이며 구체적인 사업들을 진행하여 상도문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을 특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문화마을로 성장·견인하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번 『속초문화』 35호에는 다른 무엇보다 기획·특집 글들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실어봅니다.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들 각각의 전문성들을 살린 글들입니다.



100년 전의 속초만세운동 이야기, 속초사자놀이 발전방안, 속초시민의 날 부활, 속초문화 재단 등 모두가 우리 속초문화를 계승하고 보존·발전하는 데 있어 소중한 연구이자 자료들입니다.

35년 성상의 『속초문화』지가 속초문화의 대안을 제시하는 알차고 생산적인 연간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속초문화가족들의 든든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화가족 여러분 댁내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9년 12월

속초문화원 원장 김 계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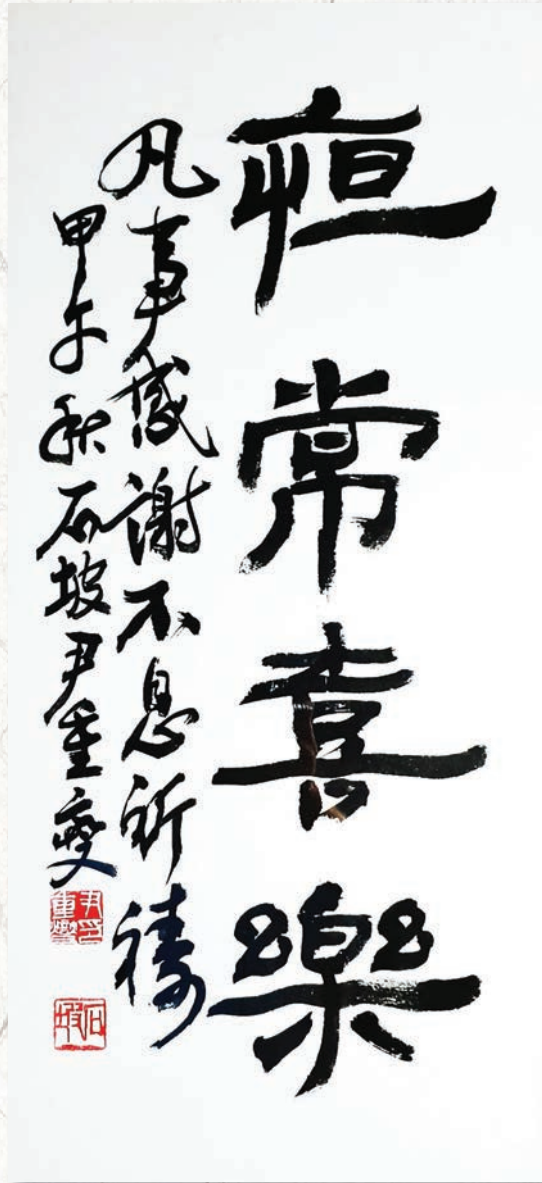


청류 (清流)



유홍균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촬영지도위원, (사)한국예술사진총연합회 이사
 - 초대전
 - 2019 서울아산병원갤러리 초대전
 - 2014 강원사진여행 초대전
 - 2009 속초농협중앙회 초대전
 - 2006 동강사진축제 강원지역사진작가 초대전
 - 속초시 번영로 72 (강원으로 2층) ㈜속초사람들
- M. 010-9440-4048 E-mail : hongkyun7278@hanmail.net



항상희락(恒常喜樂)

범사감사

불식기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석파 윤중섭

- 2016년 제44회 강원미술대전 서예부문 대상
- 2015년 제43회 강원미술대전 서예부문 우수상
- 2013년 제18회 동해무릉서예대전 대상
- 2014-2017 대한민국서예술대전 입상
- 2014-2019 묵담동행전(속초문화회관, 속초시립박물관, 강원진로교육원)





설악항에서 • 30호F • 수채화 2017



이설윤

- 강원미술대전, 신미술대전 초대작가
- 신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동아예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한국미술협회, 강릉수채화협회, 강원구상작가회, 국제작은미술제 운영위원
- 현 마츠미술관 관장
- 개인전 2회, 동북아시아교류전(한, 중, 일, 러; 일본도토리현) 2회
- Washinton, D.C. 2013, 아메리카 국제 살롱전(L.A)등 다수
-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하도문길 14-1 M.010-2879-5201



설악이야기 • 110×110cm • 수묵담채 2019

조정승

- 현)한국미술협회 이사, 다문화 예술위원장 •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호남대학교 미술대학 동문 호목회장 역임 • 홍익대학교 미술교육원 홍우회장 역임
- 제10회 현대미술대전 미술상 수상 •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2004)
- 전남미술대전 우수상(2004) • 개인전 4회(세종문화회관 등)
- 그룹전 200여 회(국립현대미술관 등) • 한국미협 · 현대한국화협회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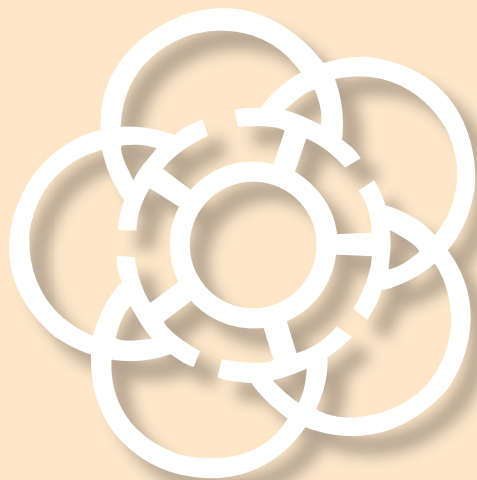




“특집”

속초시민의 날

- 35년 만에 부활한 <속초시민의 날>
- 시민상 및 수상자 소개





35년 만에 부활한

속초시민의 날

2019

속초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다진 화합 한마당

글 - 이광호 (설악신문 기자,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사진 - 속초시

올해 봄 속초시민의 날이 35년 만에 부활했다. 속초시민의 날 기념식은 1983년 11월 17일 수복기념탑 재건립 제막식과 병행해 열린 후 지정 의미가 상실된 채로 수십 년이 흘렀다. 그 다음 해인 1984년에 기념식이 설악제와 통합 개최되면서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하지만 올해 시민의 날이 부활하면서 속초에 새로운 분위기를 몰고 왔다.

그동안 ‘속초시민의 날’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지는 요구들이 있었다. 속초에 대한 긍지와 애郷심을 높이고 지역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계기

로 삼자는 주장들이었다. 하지만 시정에선 구체화되지 못하고 긴 시간 지났다. 이런 현실에 변화가 생긴 건 속초시민의 날 부활을 공약으로 내건 김철수 후보가 2018년 민선 7기 시장에 당선되면서이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과천, 김천, 양주, 강릉 등이 시 승격일을 시민의 날로 정했고 서울은 조선 태조의 한양천도일(10.28), 부산은 이순신 장군의 부산포해전 승전일(10.5), 수원은 수원화성이 준공된 날(10.10) 등 각 도시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

〈상단 사진〉시민의 날 기념식을 마친 후 속초문화예술회관 앞에 설치된 시민헌장탑에서 새롭게 개정된 시민헌장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혹은 상황에 맞는 날을 시민의 날로 지정해 시민들이 함께 의미를 되새기며 자축하고 있다.

속초는 시로 승격된 날이 1963년 1월 1일이다. 하지만 속초시민의 날을 다시 정하는 데 있어서는 '5월 21일'(1996년 속초시민현장 조례 제정일)과 '10월 1일'(속초읍 지정일 : 1942. 10. 1, 제1회 설악제 개최일 : 1966. 10. 1)이 경합을 벌였다. 김 시장은 취임 이후 먼저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속초시민의 날'의 시기와 근거 등을 담은 제안을 받은 바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부서가 '5월 21일' 안에 찬성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열린 속초시 '시민 중심 원탁회의'에서도 5월 21일을 '속초시민의 날'로 정하는 것에 의견이 모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5월 21일이 속초시민의 날로 결정됐고 관련 조치와 사업들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속초시민의 날 제정과 함께 시민현장도 시대 변화에 맞게 변경됐다. 새로 만든 시민현장은 '속초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과 자

연이 조화로운 행복도시를 추구'하며 '시민자치, 복지, 문화, 교육, 생태, 평화공동체'를 속초시와 시민이 지향해야 할 지표를 담았다.

시민들의 관심 속에 성대하게 열린 기념식

35년 만에 부활한 '속초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 5월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다. 이 시기에 펼쳐지는 다채로운 행사와 맞물리면서 시민의 날 행사주장은 5월의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북돋웠다.

시민의 날은 5월 21일이었지만 그 전 주부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들이 이어졌다. 금요일인 17일부터 3일 동안 로데오거리 황소광장, 엑스포공원 분수광장, 속초해수욕장, 대포항 등에서 시민의 날 홍보배너가 설치됐고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또한 속초중앙로 KT플라자 앞 버스킹 존에서는 시립박물관이 '사진으로 보는 속초' 전시회를, 속초보건소는 시민 건강 체험행사를 열었다.



21일 오후 엑스포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린 속초 시민의 날 기념 어울한마당



어울한마당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는 속초문화원 한명옥 부원장(전통타악연구원 '두두리' 대표)

21일 오후 2시에는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김철수 시장, 이양수 국회의원, 최종현 속초시의회의장, 도의원, 시의원,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기념식에서는 35년 만에 부활한 속초시민의 날을 축하하는 각계각층

의 축하 목소리를 담은 '시민축하 메시지' 영상 상영이 있었고 참석 내빈들의 희망찬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김철수 시장은 기념사에서 "35년 만에 부활된 시민의 날을 계기로 속초를 우리의 삶터·일터·꿈터로 만들어 가며, 속초의 황금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시민헌장에 담긴 내용대로 시민자치공동체, 복지공동체, 문화공동체, 평화공동체를 만들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자"고 말했다. 최종

현 시의장은 4월 산불을 돌아보며 "속초시민의 날을 계기로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 되는 속초, 새롭게 도약하는 속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속초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유종국(지역사회



21일 열린 어울한마당에서는 가수 공연, 마술쇼 외에 동 화합 장기 자랑, 주민자치 우수프로그램 공연, 평생교육문화센터 참여자 공연처럼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공연이 함께 펼쳐졌다.



발전), 한명옥(문화예술), 유인옥(사회복지·효행), 이광익(교육학술·체육), 황상기(인권·평화) 이렇게 5명이 속초의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이날 기념식을 마친 후에는 속초문화예술회관 앞에 설치된 시민현장탑에서 새롭게 개정한 시민현장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 이후 축하공연으로 속초시립합창단과 속초시립풍물단의 공연이 있었고 자매도시 축하사절단인 서울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경기 오산시 청소년 기타 오케스트라, 전북 정읍시국악단의 공연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이끌어냈다.

시민대화합의 한마당

속초시민의 날인 21일부터 26일까지는 시민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시민대화합 행사가 열렸다. 21일 저녁에는 엑스포공원 특설무대에서 동화합 장기 자랑, 주민자치 우수프로그램 공연, 평생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공연처럼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공연이 주를 이뤘고 이외 마술 퍼

포먼스, 가수 공연도 곁들여졌다.

22일에는 속초문화원 '청사초롱 불 밝혀라' 퓨전국악공연이, 23일에는 속초예총의 제30회 속초종합예술제 개막식이 엑스포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24일에는 엑스포 분수광장에서 속초예총이 학생·주부 백일장을 주관했고 그날 저녁에는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의 날 기념음악회로 스카이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가수 '바다'의 공연이 펼쳐졌다. 토요일인 25일에는 가수 박강수와 함께 하는 속초사잇길 걷기 축제, 나포시장, 관광지 릴레이 버스킹공연, 음악협회와 국악협회가 각각 주관하는 공연 등이 있었고,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엑스포공원 분수광장 등에서 속초민예총의 속초8경 페스티벌과 속초예총의 청소년 가요·댄스 경연대회 등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와 더불어 행사 주간 동안 엑스포상징탑 특설무대 일원에서는 시립박물관 주관 '사진으로 보는 속초의 발자취' 전시, 속초문화원 주관 '속초 문화 기록물 전시', 속초사진작가협회 사진



지역주민 등 500여 명과 김철수 시장, 이양수 국회의원, 최종현 속초시의회회장, 도의원, 시의원,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1일 오후 2시에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속초시민의 날 기념행사.

전, 속초보건소 주관 시민 건강 체험행사 등이 진행됐으며 마술 배우기, 페이퍼토이 만들기 같은 시민참여 체험부스가 나들이객을 맞았다.

속초시 시민헌장

설악산의 수려한 기상과 청초호·영랑호의 상서로운 기운이 저 푸른 동해로 뻗친 우리 속초는 이곳에 터 잡고 살아온 사람들이 분단의 비극을 최일선에서 극복하고 함께 번영을 이룬 국제적 관광해양도시이다.

이에 우리는 속초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행복도시를 추구하고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우리는 소통과 참여의 시민자치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 우리는 나눔과 채움의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자매도시 축하사절단인 서울 중구 구립여성합창단의 공연.

- 우리는 독창적이고 격조 높은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 우리는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 우리는 시민이 건강하고 자연이 아름다운 생태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다 같이 어울리는 평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속초문화

“속초의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들을 소개합니다”

속초의 발전과 위상 제고에 앞장선 자랑스러운 시민들

이광호 (설악신문 기자,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속초시는 35년 만에 부활하는 속초시민의 날을 앞두고 ‘속초시민의 날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신설했다. 시상 대상자는 속초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민 또는 속초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이며 시상 분야는 지역사회발전, 문화예술, 사회복지·효행, 교육학술·체육, 인권·평화 이렇게 총 5개 분야이다. 또한 이 상은 각 부문마다 1인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속초시는 시민상 시상을 위해 올해 4월 10일부터 후보자 접수를 받았다. 관내 기관과 사회단체 및 만 19세 이상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추천서에 30인 이상의 연명을 받아 후보를 추천할 수 있었다.

5월 3일까지 진행된 ‘속초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후보자 접수에는 지역사회발전 4명, 문화예

술 2명, 사회복지·효행 3명, 교육학술·체육 2명, 인권·평화 부문 1명 등 모두 12명이 추천됐다. 5월 9일 ‘속초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심사위원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2019년도 수상자가 선정됐다.

심사 결과 지역사회발전 부문 유종국, 문화예술 부문 한명옥, 사회복지·효행 부문 유인옥, 교육학술·체육 부문 이광익, 인권·평화 부문 황상기, 이렇게 전 부문에 걸쳐 1명씩 수상자가 나왔다.

지역사회발전 부문 수상자인 (주)솔로몬 유종국 대표는 타지에서 남다른 애향심으로 출향인 단합과 오랜 기간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후원 등 여러 방면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화예술 부문 수상자인 전통타악그룹 ‘두두리’



(좌로부터) 지역사회발전 부문 수상자인 ㈜솔로몬 유종국 대표, 문화예술 부문 수상자인 전통타악그룹 '두드리' 한명옥 대표, 김철수 속초시장, 사회복지·효행 부문 수상자인 속초연탄은행 유인옥 실장, 교육학술·체육 부문 수상자인 속초태권도협회 이광익 고문, 인권·평화 부문 수상자인 '반올림' 황상기 대표.

한명옥 대표는 노인복지관 실버예술단, 경동대학교 등 다수 기관을 통해 난타와 진도북춤 강사로 활동하면서 전통 타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왔다. 또한 속초문화원 부원장으로서 문화예술 관련 예산 확보에 기여했다.


사회복지·효행 부문 수상자인 속초연탄은행 유인옥 실장은 지역사회 장애인, 노인 등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 봉사에 헌신하며 나눔의 정신으로 맞춤형 복지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교육학술·체육 부문 속초태권도협회 고문 이광익 수상자(태권도 9단)는 지난 41년간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면서 약 3,000여 명의 후진을 양

성해 재역의 태권도와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했다.

인권·평화 부문 수상자인 '반올림' 황상기 대표는 노동자 안전과 인권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 노동자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딸의 진상규명을 위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을 조직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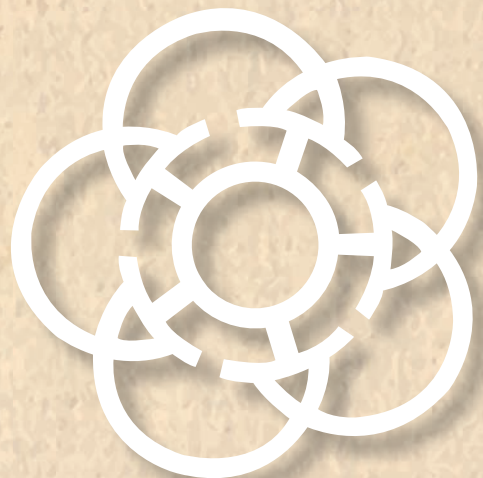
5월 21일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9년 속초시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식이 열려 수상자들이 우리 사회에 공헌한 바의 의미를 현양했다. **속초문화**



“특집2”

상도문 문화마을

- 마을, 자원, 주민이 함께 만드는 문화공동체
‘상도문 문화마을’
- 마을 주민이 꿈꾸는 문화마을 상도문
- 유서 깊은 마을, 새로움을 더해가다
상도문 돌담마을 탐방



마을, 자원, 주민이 함께 만드는 문화공동체 ‘상도문 문화마을’

김인섭 (속초문화원 문화마을사업 PM)

1.

상도문 문화마을 사업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중 문화마을형 사업이다. 마을의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마을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고, 지역 사회에서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를 통한 주민 정주가치의 향상 및 지역과 마을의 상생을 목표로 한다. 문화마을 사업은 마을의 문화특성 및 활동방식에 따라 ‘생활문화형’, ‘예술문화형’, ‘지역자산형’으로 구분된다. 생활문화형은 주민의 문화적 삶을 통한 마을 정주가치 향상을, 예술문화형은 예술가치의 공동체적 공유를 통한 마을문화의 새로운 가치발견을 사업의 목표로 삼는다. 지역자산형은 지역 고유자산의 문화적 활용을 통한 마을문화 및 환

경 특화를, 역사전통은 마을공동체 중심의 지역 문화 고유가치 구현 및 사회적 전승을 사업의 지향점으로 한다. 이 사업의 추진목표는 4가지이다. 첫째, 지역성을 바탕으로 하는 마을 고유의 생활문화적 가치 생성, 둘째, 문화를 통한 마을의 사회공동체적 의식 강화, 셋째, 문화와 생활의 복합작용에 의한 사회경제적 효과, 넷째,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마을의 정주가치 확보이다.

문화마을에서는 문화적 거버넌스 중심의 마을 문화 활성화 사업 및 그에 부합하는 다양한 문화 활동 사업이 이루어진다. 문화활동 사업은 주로 문화공동체의 형성,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기획, 마을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속초문화원이 주관하는 상도문 문화마을 사업은 2017년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매해 2억 원씩 총 6억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상도문 마을은 설악산국립공원 진입로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마을의 역사는 약 5백년으로 임진왜란 전후에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상도문 마을의 가옥은 모두 한옥으로 구성되어 있고, 돌담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대문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소나무 숲에 위치한 학무정은 속초8경의 하나로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옆으로 쌍천이 흘러 예부터 속초사람들의 휴식처로 사랑을 받아왔다.

상도문 마을의 구성은 40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 70%의 가구가 농가세대로 구성되었다. 지난 1978년 강원도 지정 한옥마을로 선정된 후 농촌 테마마을 사업, 도문떡 특산물 판매장 개설, 건강장수마을, 속초도문농요전수관 건립, 상도문 벚꽃 축제, 마을공동체 건물 및 주차장을 소유하는 등 마을공동체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마을이다.

특히, 강원도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된 속초도문농요를 중심으로 속초도문농요보존회가 구성되었고, 기존의 청년회와 부녀회 등 마을운영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추진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사업의 체계화나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지적되었다.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으로는 속초도문농요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속초8경의 하나인 학무정과 매곡 오윤환 생가가 있다. 충효의 상징 이재 박지의와 올곧은 선비정신의 상징 매



곡 오윤환이 마을의 정신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종이를 만드는 지소와 기와를 만들던 짚가마터 등 과거의 문화에 대한 마을주민의 애정이 남다른 곳이다.

속초시와 속초문화원은 상도문의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마을문화를 조성하면서 그 결과물을 통해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실험하기 좋은 곳이라 판단하였고, 속초 최초의 문화마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후 2018년부터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마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년차 핵심과제를 사업기반 구축에 두고, 마을 안에서 주민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사업 전개와 사업 적합성의 예측과 판단을 위한 파일

몇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사업추진의 주체는 문화기획자, 마을리더, 주민협의체로 구성된 마을단위 추진협의체로 하며 사업참여의 주체는 마을 주민으로 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상도문 문화마을 사업의 추진을 위해 마을리더와 문화기획자가 결합된 마을단위 추진협의체의 기반을 닦고, 마을 주민이 마을 문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 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거버넌스의 기초를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처럼 상도문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 마중물 사업의 개발, 마을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문화기획집단 <문화다움>과 함께 ‘문화반상회’를 개최하였다. 문화반상회는 마을주민과 지역의 문화활동가, 예술가들이 함께 상도문의 자원을 공유하고, 문화마을의 미래상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었다. <문화다움>은 상도문의 다양한 인문자원과 공동체 정신이 결합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 중심의 운영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마을주민의 문화적 인식의 변화와 마을주민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분한 소통과 공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상도문문화마을 운영협의회(위원장 김종극)가 2018년 9월에 결성되어 월 1회 정례회와 임시 회를 가졌다. 운영협의회는 상도문 문화마을 사업 진행을 지원하고 문화원과 주요사항을 협의하면서 문화마을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마을주체가 될 예정이다.



4.

문화마을로 가기 위한 특별사업도 펼쳐졌다.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드라 마틱강원 PM기획사업’으로 ‘상도문 문화마을 이야기투어’를 속초의 강원도협동조합 ‘감자’(이사장 정범용, 이하 감자여행)가 진행한 것이다. 감자여행은 상도문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여행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속초 주민과 공정여행사 대상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돌담’을 테마로 제작한 마을미술 작품도 70여 점 설치되어 ‘돌담 아트로드’를 만들게 되었다.

2018년 한 해 동안 주민을 모으고 비전을 공유하면서 주민주체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면 2019년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사업을 실행하는 해가 되었다.

상도문 문화마을 사업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마을의 고유자원을 가지고 마을 주민이 직접 활동하는 ‘마을학교’, 둘째는 마을의 고유 이야기를 문화콘텐츠로 만드는 ‘마을라키비움’, 셋째는 마을의 자원과 문화콘텐츠로 주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을경제’이다.



‘마을학교’의 대표 프로그램은 ‘상도문학당’이다. 마을에 있는 ‘염색체험’, 어르신이 손주 손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예쁜 손글씨로 쓰는 ‘어르신덕담손글씨’, 마을의 제철 식재료로 만드는 ‘도문밥상’, 마을 이야기를 맛깔나게 설명하는 ‘마을 이야기꾼’을 양성한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2019년 2월부터 시작하여 매주 1회 혹은 2회씩 마을주민과 전문가를 이어주고 있다.

또한, 강원도 무형문화재 20호인 속초도문농요를 우리 지역 아이들과 가족단위 관광객이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도문농요인형극’도 제작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기존의 속초도문농요 보유자 오순석, 오명현 용을 비롯해 전수조교 허영희를 비롯해 도문농요보존회 회원이 주축이 되고 있다.

상도문학당과 인형극은 수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지역의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다. 속초민예총의 예술축전과 갯배예술제, 민족예술제에 초청되고, 전국생활문화대축전 등의 전국단위 축제에도 초청되어 공연과 체험활동을 이어나갔다. 또한, 상도문마을이 체험마을이 될 수 있도록 생생문화재 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 참여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특히, 지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한 ‘속초 음식영화제’는 상도문학당의 도문밥상 프로그램에 의해 상도문마을에서 유치할 수 있었고, 상도문학당의 다양한 사업이 ‘돌담원데이클래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상도문 주민들은 2020년에는 속초시가 실시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학교 밖 교실이 상도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을 워크북 『상도문 보물찾기』도 제작한다. 마을의 유무형 문화유산과 생활문화의 가치를 담은 워크북을 제작하여 속초지역 학생들이 ‘마을 학교 상도문’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5.

라키비움은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합성어로, 세 가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이행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자원을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상도문 마을 라키비움'은 마을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방문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을을 재구성한다는 의미이다. '마을 매거진'과 '마을 도서'를 발간하고, 마을의 옛 사진과 오늘의 모습을 작가들이 '아카이빙'하며, 마을의 생활공간을 예술로 표현한다. '마을 매거진'은 지역의 청년 문화팀이 마을주민과 장소, 생활문화를 취재하여 상도문 고유의 라이프스타일을 찾고, 마케팅 매체로 활용할 예정이다. '마을 도서'는 지금까지 기록되지 않은 상도문 마을주민의 생애를 발굴하여 마을의 역사와 가치를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마을 매거진'이 젊은 감각의 홍보매체라고 한다면 '마을 도서'는 마을인문학의 관점에서 제작할 예정이다. '상도문 아카이브'는 지역의 사진작가와 영상작가들이 상도문 마을의 옛 사진과 생활기록을 수집하고 2019년 한 해 동안 일어나는 마을 문화를 기록으로 남긴다. 예술가와 마을주민이 함께 소통하며 공동체 예술로 마을을 만드는 '상도문 아트스테이(Arts & Stay)'도 마을의 문화적 환경을 바꾸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마을학교를 통한 주민강사 양성, 마을 라키비움을 통한 마을의 문화적 환경 조성과 함께 문화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구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올해는 마을축제를 1회 실시하고, 마을 통합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이다. 마을축제는 상도문 문화마을의 장소마케팅을 위한 효과적인 문화이벤트이자 마을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한다는 계

획이다. '파인마켓', '돌담음악회', '돌담갤러리' 등 마을 주민과 자원, 공간이 연결되는 마을축제이다. 마을통합브랜드의 개발도 중요하다. 상도문 문화마을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마을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브랜드 개발은 지역 청년 디자이너와 연대하여 BI, 네이밍, 슬로건, 캐릭터, 로고타입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6.

상도문 문화마을은 상도문의 다양한 자원을 다시 한 번 찾아보고, 마을주민이 중심되어 지속가능한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상도문의 대표문화자원으로 '돌담'을 선정하고 상도문 돌담마을로 마을의 이름을 확정했다. 이러한 네이밍 작업은 행정이나 일부 문화기획자가 한 것이 아니라 마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탄생했다. 그 결과 속초시가 2019년 새로 제작한 관광지도에도 상도문 돌담마을로 이름이 되어 들어갔고, 마을브랜드도 동일 이름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상도문 돌담마을은 2시간이면 충분히 마을을 탐방할 수 있다. 송림쉼터 앞 공터에서 마을로 들어서면 미로처럼 펼쳐진 옛 돌담길과 고즈넉한 한옥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자연스레 돌담길 따라 산책을 하다보면 돌로 만든 다양한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고양이와 새, 달팽이 등 아기자기한 작품은 그 자체로 힐링이 되면서 추억의 포토존 역할도 한다. 단체관광의 경우 염색과 스톤아트, 도토리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가능한 곳이다. 마을의 자원이 지역의 관광상품이 되고, 마을의 일자리가 사회적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과정이 상도문 문화마을 사업의 마지막 목표이다.

마을 주민이 꿈꾸는 문화마을 상도문

의견 청취 · 정리 - 이광호 (설악신문 기자,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문화마을사업의 현장인 상도문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문화마을사업과 마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문화마을사업은 주민들이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기에 주민들의 생각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사업의 진행과 마을의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경험과 입장을 그들의 육성을 통해 확인해보자. 문화마을사업의 현장인 상도문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문화마을사업과 마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문화마을사업은 주민들이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기에 주민들의 생각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사업의 진행과 마을의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경험과 입장을 그들의 육성을 통해 확인해보자.

“시 한 편씩 쓰고 갈 수 있는 마을이 되길!”

고선희 (58세)- 상도문 6반 반장. 조부 때부터 속초에 거주한 속초 토박이로 상도문에는 8년째 거주 중.



문화마을사업에 참여해 보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는 상도문학당의 염색 과정과 마을해설 과정, 그리고 손글씨 과정에 참여했는데 이 중 손글씨에 대해서는

지금도 관련 활동에 관심이 큼니다. 제가 손글씨 과정에 참여한 이유는 평소 존경해오던 매곡 선생과 연관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저는 문화마을사업에 참여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많아졌습니다. 손글씨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손글씨는 놀이이자 공부입니다. 돌에다 그림을 그리고 글씨도 쓰면서 마을을 가꿀 수도 있겠고 행주석범으로 가는 길은 경치가 멋진데 거기에 시화 깃발을 걸 수도 있겠죠.

저는 상도문이 시 한 편씩 쓰고 갈 수 있는, 시 한 편씩 읊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 분위기를 조성해 시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시 마을’을 만드는 거죠. 마을을 걷다가 시상이 줄줄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마을이죠. ‘시 마을’에선 담당자가 따로 있다기보다 시를 짓는다면 누구나 ‘시 마을’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도문만의 밥상을 만들겠습니다.”

김미자 (63세) - 상도문 부녀회장. 중도문 출생. 1978년 결혼을 하면서 상도문에서 40년 넘게 거주.

저는 상도문학당 손글씨·염색·도문밥상 과정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 도문밥상에 가장 중점을 뒀고 지금도 도문밥상과 관련된 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도문밥상은 텃밭에서 나는 재료로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를 먹어본 사람들이 좋아해주니 저희도 너무 기쁩니다. 주민들에겐 일상적인 차림인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상도문밥상 과정에서는 과정 후반부에는 저희가 모르는 음식들을 다뤘지만 과정 초기에는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본 것들이 저희가 다 할 줄 아는 것들이라 이걸 왜 다루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마을에서 주로 먹는 음식을 다룬 것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농사지은 것으로 손님을 맞으면 비용도 절감되고 밥상은 더 신선하지요.

도문밥상은 도토리묵이 주된 음식인데 도토리묵은 된장과 채소가 들어간 ‘뽕작장’을 뚝배기에 담아 함께 내놓습니다. 도토리묵은 저희가 직접 만듭니다. 도토리를 산에서 주워와 말린 후에 갈아서 가루를 만들고 이것으로 직접 묵을 쫓습니다. 도토리묵은 저희가 먹어도 맛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토리가루를 사가기도 하지요.

‘시 마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열심히 해 나가고 있으니 저는 좋은 밥상 차리는 것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겨울에 도문밥상 과정 회원 분들과 논의해 밥상이 더 짜임새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명태로 만드는 ‘무악찌개’를 도문밥상에 어울리게 잘 다듬어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무악찌개를



상도문 주민과 사업 실무자들

도문밥상의 메뉴로 내놨지만 더 잘 개발해 보고 싶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음력 2월 초하루와 보름 ‘영등날’에 한 해 농사가 잘 되길 비는 의미로 무악찌개를 냄비째로 장독대에 가져다두고 제를 올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음식을 사람들에게 더 잘 대접하고 싶습니다.

“상도문 주민 모두가 문화인이 되어야 합니다.”

문혁주 (70세) - 상도문 마을문화해설사. 상도문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마을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한학을 공부하며 주경야독의 삶을 실천.

문화마을사업은 500년간 잠재된 우리 마을의 의미들을 일깨웠습니다. 공적인 사업으로 우리 마을이 가진 장점을 펼칠 수 있게 해줬지요. 문화마을사업은 도문밥상, 인형극, 마을문화해설



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이 있는데 문화마을사업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사업들

을 시작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가령 인형극은 이전에 상상도 못했는데 인형극은 속초 역사에 있어 우리 마을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좋은 수단입니다. 그리고 마을해설은 상도문을 특색 있게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식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하고 한두 사람이 참여한다고 해서 문화마을이 잘 될 순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상도문 주민 모두가 문화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마을로 찾아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우리 마을을 더 잘 가꾸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합니다. 꽃이 예쁘면 벌과 나비가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도문에는 7절이 있습니다. 7절은 도문농요, 매곡 선생, 박지의 선생, 한옥, 돌담, 송림, 행주석범 이렇게 상도문에서 의미 깊은 일곱 가지입니다. 저는 앞으로 상도문이 이 7절을 외부에 잘 보여준다면 우리 마을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 7절을 외부로 표출된 매개물로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각인시킨다면 외부인들도 우리 마을을 더욱 주목할 겁니다.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체험은 감성을 자극합니다. 망곡제, 서당 글쓰기, 지게 지기, 옥수수 따기, 모심기 등 체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 마을에는 많습니다. 체험을 통해 감성을 자극하면 우리 마을을 방문했던 이들이 나중에 잊지 않고 다시 우리 마을을 찾을 겁니다.

우리 마을은 선비와 효자의 정신이 이어져 내려오는 마을입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마을길을 넓힌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상도문은 협동정신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문화마

을사업은 마을 주민들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마을사업은 주민들이 피부로 더 잘 느낄 수 있고 마을의 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고 싶습니다.

“자연과 전통이 유지되는 마을이길!”

임소연 (56세) - 상도문 주민. 속초 시내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하다가 작년(2018년) 10월, 상도문 주민이 됨.



저는 시골이 좋아서 상도문에 왔습니다. 전국 여러 곳에서 살아봤는데 속초에서는 처음에 설악동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속초에 살아보니 전국에 속초만큼 좋은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도문으로 이사를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도문학당 인형극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사업에는 참여하지 못해 뭐라고 얘기

하기 힘들지만 인형극은 아이들에게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공유할 매개가 돼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농사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깊고 도문농요 문화재 보유자와 함께 인형극을 하는 것도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인형극 연습을 할 때 농사를 지으시는 어르신들이 한 분도 늦지 않은 것에 놀랐습니다. 마을 분들에게서 마을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도문에는 오래 전부터 살아온 분들이 많아서 그 분들이 이어온 보수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문화마을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마을사업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저 우리 마을에 내려오는 전통이 보존, 계승되어 잘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독대,

농요, 농법, 한옥, 돌담 등 우리 어르신들의 생활 방식이 정겨움과 편안함을 주는데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마을이 가진 전통의 요소들이 사람들에게 정겨움과 편안함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상도문에도 콘크리트 시설이 곳곳에 들어서서 경관이 바뀐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더 이상 필요 이상으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초에 처음 왔을 때 대포가 아름답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대포가 개발되면서 자연 그대로의 보물을 잃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마을이 개발이 되기보다 불편하더라도 전통의 방식들이 잘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인공적인 것보다 자연적인 것을 더 원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속초문화**

유서 깊은 마을, 새로움을 더해가다

상도문 돌담마을 탐방

이광호 (설악신문 기자,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넓은 집, 좁은 길, 젊은이들을 볼 수 없는 곳, 문화예술과는 거리가 먼 장소. 많은 이들에게서 시골에 대한 이미지는 이와 같다. 하지만 이런 고정관념과는 배치되는 시골마을이 속초에 있다.

상도문은 200여 세대 400명 정도 거주하는 조그만 농촌 마을이다. 그런데 상도문을 걷다 보면 이내 뭔가 평범한 마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먼저 깔끔한 한옥이 눈에 많이 들어온다. 오래된 전통 한옥도 있지만 개량된 형태의 한옥도 보인다.

눈길을 끄는 한옥

한옥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매곡 오윤환 생가이다. 매곡 오윤환 생가는 지붕의 한쪽이 아래로 길게 내리 뻗어 있다. 함경도식 ㄱ자형 겹집 형식의 기와집이다. 매곡 생가를 정면에서 볼 경

우 특이한 것이 보이는데 문과 문 사이에 작은 문이 있다. 이는 난방의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설치됐다. 겨울에 이 건물을 드나들 때 큰 문을 사용하지 않고 작은 문을 이용했다.

매곡 생가에서 지붕이 길게 내려온 곳의 안쪽은 축사였다고 한다. 사람과 가축이 하나의 건물을 같이 쓴 것이다. 축사로 들어가는 문이 좁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들지만 설명에 따르면 소가 무리 없이 출입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공간은 외양간인 동시에 양계장이었다. 헛대도 설치돼 있었고 닭이 소와 함께 길러졌다. 이런 공간이 생긴 이유 역시 난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였다.

상도문에서는 돌담길이 길게 이어진 모습도 특별해 보인다. 요즘은 시골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돌담길이 길게 이어지는 모습은 왜 상도문이

돌담마을이라고 이름이 붙었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돌담길을 그쳐 바라보기만 해도 정감에 빠져들고 돌담을 따라 걸으면 도시의 삭막하고 어수선함과 다르게 운치를 느낄 수 있다.

돌담 위의 감각적인 미술품들

마을 곳곳에서는 미술작품들이 눈에 띈다. 상도문의 명물이 된 돌담갤러리이다. 담벼락 위에 놓인 돌에는 고양이, 참새가 그려져 있고 돌과 금속을 활용한 작품들도 사람들의 흥미를 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상도문 문화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전문 작가들이 만들어 놓은 마을 미술 작품들이다. 어떤 마을에서는 마을 미술품 중에 대충 그린 벽화처럼 조잡한 것들이 눈에 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도문에서는 적어도 조악한 느

김의 미술품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상도문에서는 타지에서 온 젊은 청년남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들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다니며 돌담길과 아기자기한 마을 미술품들에 한참동안 시선을 보낸다. 어느새 상도문이 특별한 데이트 코스가 된 것이다.

마을해설사의 마을 자랑

시골 마을에서는 차가 마을 깊숙이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도 많지만 이런 상황은 상도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구불구불한 상도문 마을길에는 커다란 차 두 대가 동시에 지나기 어려운 구간도 있지만 형성된 지 오래된 마을 치고는 길이 그리 좁은 편이 아니다. 그런데 이는 마을길 확장 공사를 하면서 마을 주민 각자가 자신의 마당



을 조금씩 내어 놓아서 자동차도 어렵지 않게 지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문혁주 상도문 마을해설사는 관광객들에게 이 사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설명한다. 상도문이 협동정신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마을 자라는 계속된다.

유서 깊은 충효와 유학(儒學)의 마을

“상도문은 500년 역사를 가진 곳으로 선비의 마을이자 충효의 마을이지요.”

상도문에는 지역 충효의 상징 이재(李齊) 박지의(朴志誼)와 유학자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의 흔적이 지금도 뚜렷하게 남아 있다. 이재 박지의는 조선 정조 23년(1799년)에 태어나 철종 11년(1859년)에 별세했으며 지역에서 임금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로 이름을 널리 알린 인물이다. 이재는 부친의 병환이 위독할 때 자신의 손에서 피를 내어 부친에게 흘려 드렸고 부친이 돌아가신 후 3년간 시묘살이를 했다. 또한 현종이 승하하자 재단을 마련해 하루 세 번 임금을 위한 절을 올려 사람의 칭송을 받았다. 그가 죽은 지 33년 후인 고종 30년(1893년)에 그를 기려 정려각(효자각)이 세워졌고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에 증직됐다.

매곡 오윤환은 조선 고종 9년(1872년)에 상도문에서 태어나 평생 동안 고향을 지키며 학문에 정진했다. 율곡을 존경한 그는 학문이 경지에 올랐으나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고 도문서당을 열고 학무정을 지어 교육의 장으로 활용했다. 또한 매곡은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으며 독립운동에도 참여해 3·1운동에 앞장서다 옥고를 치른 바 있다. 또한 일제의 단발령과 창씨개명에도 굴하지 않았다.

도문농요전수관 옆 낮은 언덕은 매곡과 이재



강원도문화재자료 제137호로 2006년 7월 28일 지정된 도문동의 매곡 오윤환 선생의 생가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장소이다. 그곳 소나무들 사이로 학무정(鶴舞亭)이 서 있다. 매곡은 1934년 친척과 제자의 협조로 이 정자를 지었다. 학무정은 모양이 육각이라 ‘육모정’이라 불리기도 하고 또한 4개의 현판이 걸려 있어 북쪽으로는 영모재(永慕齋), 북동쪽으로 인지당(仁知堂), 남서쪽으로 경의재(敬義齋)란 현판이 사람들을 맞는다. 다양한 이름을 가진 학무정은 소나무와 함께 한 폭의 그림 같아 한적한 그곳에서 주변 경치를 감상하노라면 편안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힐링’의 공간이다.

학무정 옆에는 박지의 충효비가 서 있다. 그의 후손들이 1955년에 효자각 옆에 건립했는데 지금은 학무정 옆으로 옮겨 왔다. 그리고 학무정이 있는 언덕 앞으로는 박지의가 현종을 위해 절을 올리던 망곡터 기념비가 보인다.

예전엔 학무정이 위치한 언덕 옆으로 두 갈래의 물길이 지나갔다고 한다. 지금도 정자와 비석, 그리고 이를 둘러싼 소나무들이 근사한 모습을 이루지만 예전에는 더욱 멋진 모습이었다고 상도문의 어르신들은 입을 모은다. 학무정 주위를 돌아 흐르던 물길이 사라진 것은 쌍천을 따라 제방이 만들어지면서이다.

학무정의 경관에 영향을 끼치긴 했어도 쌍천을



제방산책로



학무정



행주석범

따라 길게 펼쳐진 제방이 상도문에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 예전에 상도문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홍수를 겪고는 했는데 제방이 생기면서 상도문에 홍수 피해가 사라지게 됐다. 그리고 제방 위에 생긴 산책로는 상도문에서 색다른 공간이 됐다.

마을의 발전을 기원하는 돌돛, ‘행주석범’

학무정을 뒤로 하고 제방산책로에 오르면 설악산과 쌍천이 시야에 시원하게 들어온다. 쌍천이 속초 시민들의 식수원이 되면서 흐르는 물의 양이 준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그래도 제방에 올라 아래를 굽어보고 멀리 설악산을 바라보면 탁 트인 느낌이 절로 마음의 평안을 부른다.

고요한 제방산책로 양쪽으로는 나무와 풀들이 우거져 있고 길가에 피어 있는 꽃들은 발길을 멈추게 한다. 그렇게 천천히 바다 방향으로 걸어가다 10분 정도 지나면 멀리 커다란 돌탑이 보인다. 행주석범이다.

행주석범은 돌로 된 돛을 뜻한다. 상도문은 행주형, 즉 마을이 배처럼 생겼는데 마을 사람들은 배에는 돛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고 그런 이유에

서 상도문의 돛으로서 돌탑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나아가는 배의 돌돛’을 의미하는 ‘행주석범(行舟石帆)’이란 이름이 붙었다. 석탑이 처음 축적된 것은 400년 전쯤으로 추정되며 마을 주민의 쉼터 기능을 해오며 돌탑정이라 불렀다. 그런데 이 돌탑은 1954년 수해로 완전 유실되는 바람에 60년 가까이 상도문에는 돌돛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힘을 모아 2009년에 표지석을 세우고 2012년 돌탑을 완공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마을 주민들의 협동정신을 느낄 수 있다.

요즘 우리나라 어디를 가나 비슷비슷한 느낌을 주는 곳이 많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마을의 공동체적 분위기가 약화되면서 마을만의 개성이 뚜렷이 드러나는 곳은 쉽게 찾기가 어렵다. 반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도문은 시골마을이면서도 마을 특유의 개성을 가진 곳이다. 그런데 상도문의 이러한 개성은 유서 깊은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최근의 노력들이 더해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속초문화원의 문화마을사업이 있다. **속초문화**



속초항전경



최희재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지부장
- (현)포토라인 지도위원
- 1989~1991 설악사진동우회 회장 역임
- 2016 (사)한국사진작가협회속초지부 중급 사진반 강사
- 2017 속초시립도서관 사진강의 - 라이트룸과 포토샵의 이해
- 2017~2018 (사)한국사진작가협회속초지부 사무국장
- 2018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백두에서 설악까지 단체회원전
- 2017.9~2019.9 설악사진가협회 회장 역임



속초문화원 365



-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 속초도시변천사 기록사업
- 속초문화원 제27기 향토문화학교
- 1시군 1문화행사
- 향토사안내서 발간 사업
- 강원민속예술축제(도리원농악)
- 2019 강원문화대축전
- 속초사자놀이 전수 및 공연

- 속초도문농요 전승 및 공연 (속초도문농요 전수관 위탁관리)
- 제54회 설악문화제 설악제례/설악산 소나무 당제
- 상도문 오감행복여행 문화마을
- 2019 문화유적답사
- 2019 학교문화예술교육 '국악이랑 놀자'

- 속초사자놀이 강원도무형문화재 지정 기념 학술세미나
- 강원도문화원연합회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사업
- 속초시민의 날 행사 지원
- 강원도사물놀이 경연대회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올해 청소년문화예술교육사업은 향토사와 여름방학 문화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했다. 향토사 강좌는 우리 문화의 소중함과 지역문화 정체성 함양을 위해 위스타트 속초마을 및 속초시 다함께돌봄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여름방학문화프로그램으로는 속초문화원 대표 문화예술강좌로 자리잡은 ‘영화야 놀자’, 작년에 이어 ‘동화로 읽는 빨주노초파남보’를 기획하여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 향토사 강좌

향유기관	향유인원	진행강사	회차	비고
총계	701명	4명	40회	
위스타트 속초마을	203명	2명	9회	
속초시 다함께 돌봄센터	498명	2명	31회	

• 여름방학문화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향유인원	회차	진행강사	비고
총계			265명	16회	4명	
여름방학문화강좌 ‘영화야 놀자’	8월5일 ~ 8월13일 09:30 ~ 11:30	속초문화예술 회관 문화마루	151명	8회	2명	
동화로 읽는 빨주노초파남보	8월1일 ~ 8월10일 13:30 ~ 15:30	속초문화예술 회관 문화마루	105명	8회	2명	



속초의 역사적 변천과 시민의 삶, 그 공간이 담고 있는 문화적 의미를 가진 사진, 영상, 구술, 자료집, 전시 등으로 구현하여 속초의 역사와 문화를 온전히 기록하고자 속초도시변천사기록사업을 시작하였다. 올해는 속초의 근대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대포항 역사를 기리는 작업으로 대포항의 역사 문헌자료조사, 도시변천사 기록사업의 지속적인 활동의 틀을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속초의 시작, 대포항을 기억하다』라는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속초도시변천사 기록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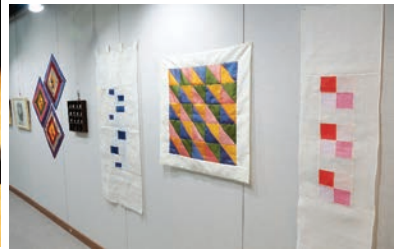
■ 속초도시변천사기록사업

- 기 간 : 2019년 1월~12월
- 참가자 :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 자료집 발간 : 『속초의 시작, 대포항을 기억하다』(400부)



제27기 향토문화학교

속초문화원 문화학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평생 교육강좌로 올해 27기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고전 무용, 노래교실, 한지공예, 서예' 등을 포함한 총 21개 강좌를 진행하였고, 11월13일 '문화강좌 수료·전시·발표회'를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강당과 전시실에서 성대히 개최하였다.



• 문화학교 일정

강좌명	요일	교육시간	교육장소	향유인원	강사
자연치유 원예교실	월	19:00~21:00	호미원에센터	20	김순영
신나는 건강체조	목	10:30~12:30	근로자복지회관	20	김명순
라인댄스	화	17:00~19:00	문화사랑방	20	이태림
	금	15:00~17:00			
웰빙라틴댄스	화	13:00~15:00	속초시 댄스스포츠연맹	20	최덕성
	목				
드로잉	월	10:00~12:00	문화사랑방	20	정봉재
실향민인형만들기	화	13:00~17:00	시립도서관	20	박진선
돈돌라리	일	10:00~12:00	속초예술종합교육원	20	김민희
	목	15:00~17:00			
장구	월	13:00~15:00	갯마당	20	박준영
	목				
사물	월	10:00~12:00	갯마당	20	임효건
	목				
서예	화	10:00~12:00	문화사랑방	20	이덕우
	금				
무용	수	13:00~15:00	문화사랑방	20	김민희
	목				
흥사랑 노래	화	13:00~15:00	문화사랑방	40	최봉하
한지	수	9:30~12:30	문화사랑방	20	이진향
민요	수	13:00~15:00	갯마당	15	김현섭
	금				
행복한 노래교실	화	13:00~15:00	남부새마을금고	40	홍철
	금				
전통매듭과 보자기	수	13:00~17:00	문우당서림	15	박진선
스케치로 만나는 속초	월	15:00~17:00	문화사랑방	15	정봉재
춤추는 시민 신나는 속초	목				
	춤추는 시민 신나는 속초	화	15:30~17:30	속초시댄스스포츠연맹	20
금		14:30~16:30			
고고장구&퓨전난타	월	13:00~15:00	두두리연구원	15	한명옥
	목	13:00~15:00			
자연치유요가교실	월	10:00~12:00	문화사랑방	15	신관숙
	수	15:00~17:00			
통소	화	15:00~17:00	문화사랑방	10	김태희

■ 문화학교 수료·전시·발표회

- 일 시 : 2019년 11월 13일~15일
 - 참가자 : 문화학교 수강생 및 내·외빈
 - 장 소 : 속초시문화회관 대강당, 제1전시실
- 내 용
 - 전시회(11월 13일~15일) : 한지공예, 서예, 드로잉, 스케치, 실향민 인형, 원예, 전통매듭 작품전시
 - 수료식 및 발표회(11월 13일) : 신나는 건강체조, 웰빙라틴댄스, 통소, 고고장구&퓨전난타, 무용, 민요, 사물, 춤추는 시민 신나는 속초, 라인댄스, 흥사랑 노래, 행복한 노래교실

1시군 1문화행사

2018평창동계올림픽 1주년을 기념하여 속초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작품을 제작·공연하는 1시군 1 문화행사 사업은 세대를 뛰어넘어 공감하고 참여하며,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장을 마련하였다. 2019년에는 속초사자놀이를 모티브로 한 창작공연 <청사초롱 불 밝혀라>를 속초사자놀이보존회에서 속초 시민의날 행사를 시작으로 실향민역사문화축제, 속초 시립박물관 고향의 밤 콘서트까지 3차례 공연을 선보 였고 관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문화행사 작품 내용

- 작 품 명 : 청사초롱 불 밝혀라
- 참 가 자 : 공연단 28명
- 작품소개 : 속초사자와 북청사자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청사초롱 불 밝혀라>는 속초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원형인 북청사자놀이와 풍물놀이가 작품의 중심이 되고 다양한 가·무·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통 희극 형태의 작품이다.

실내 공연장뿐만 아니라 야외 공연장에서도 효율적인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연극적인 대사를 최소화하고 전통연희적 요소(사자춤, 풍물놀이, 전통민요 등)를 주요 표현 양식으로 하여 세대를 뛰어넘어 공감하고,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작품으로 창작



■ 공연활동

공연명	일시	장소	관람객
시민의 날 특별공연	5.22(수) 19:00	엑스포광장 특설무대	300명
실향민역사문화축제 특별공연	6.01(토) 19:00	실향민 역사문화축제 특설무대	500명
시립박물관 고향의 봄 콘서트	8.17(토) 19:00	시립박물관 특설무대	200명



향토사안내서 발간 사업

속초의 대표적인 민속·예술의 주제와 내용을 전문가의 논지와 식견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리하고자 하였다. 본 사업은 향토사연구위원들과 함께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리 등 콘텐츠를 선정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향토사안내서를 속초문화원 홈페이지에 E-BOOK으로 제작하여 지역향토문화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향토사 안내서

- 기 간 : 2019년 10월 1일~12월 31일
- 저 자 : 장정룡(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내 용 : 속초의 민속·예술이야기
 - 속초농요 : 도문농요의 절차, 무형문화재 지정,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의 방향성
 - 속초농악 : 도리원농악 악기구성의 특징, 판굿내용, 보완점 및 향후 발전방향
- 사자놀이 : 사자탈의 특징 및 중요성,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속초사자놀이 향후 보존 및 발전방안
- E-BOOK 제작 : 속초문화원 홈페이지에 발간 책자 게재



향토문화의 맥을 잇는 가교역할과 공연을 통해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전승 및 보전하기 위해 2019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였다.

강원민속예술축제는 사라져가는 전통민속문화를 발굴, 연구하여 재현하고 시민들에게 지역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강원민속예술축제에서 연기상(개인상) 수상을 통해 속초문화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강원민속예술축제 (도리원농악)

공연	내용	공연단원	강사	연습횟수	연습장소
도리원농악	도리원농악연습	54명	박치영	12회	도문농요전수관

■ 2019 강원민속예술축제

- 기 간 : 2019년 9월 19일~20일
- 장 소 : 양양군 종합운동장

■ 속초도리원농악

- 기 간 : 5월 ~ 9월
- 공연단 : 54명 (속초시립박물관, 갯마당 등 전통공연인력 및 전통문화콘텐츠 동아리 및 지역주민)



2019 강원문화대축전

강원문화의 전통과 미래를 이끌어 가는 문화원 회원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강원문화대축전이 11월 20일 정선 아리랑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강원도의 문화 - '여(興), 기(技), 예(藝)'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도내 18개 시·군 문화원·문화학교가 올 한해 생활문화, 문화예술 활동을 정리하고 마감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향토문화 특별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본원은 문화유공자로 한명옥 부원장이 도지사 표창, 김주철 이사가 도의회 의장 표창, 김태형 이사가 한국문화원연합회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 2019 강원문화대축전
 - 일 시 : 2019. 11. 20
 - 장 소 : 정선 아리랑센터



지역의 대표 실향민 문화콘텐츠인 속초사자놀이의 전승과 보전을 위해 지역예술인,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2019년에 속초사자놀이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31호로 지정되어 발족식을 가졌으며 정월대보름맞이 걸립굿을 시작으로 평창농악축제, 함남도민회 초청공연 등 총 10회 공연을 실시하여 속초사자놀이의 재미와 우수성을 알렸다. 또한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연희팀은 연25회 공연연습을 실시했다.

속초사자놀이 전수 및 공연

■ 속초사자놀이 공연연습

- 일 시 : 1월 ~ 12월 / 총 25회
- 장 소 : 속초문화원 / 속초종합예술원
- 참가자 : 속초사자놀이보존회 30명



• 속초사자놀이 공연(10회)

일시	행 사 명	행사장소	주 관 처	관람객
02.18	정월대보름맞이 걸립굿	청호동 마을일대	속초문화원	400명
02.27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연	양양문화복지회관	충용부대 8군단	300명
07.13	보존회 발족식 및 마을잔치	갯배나루(청호동)	보존회	400명
07.19	야간개장 및 고향의 밤 콘서트	속초시립박물관	속초시	150명
08.17	야간개장 및 고향의 밤 콘서트	속초시립박물관	속초시	150명
09.05	제1회 평창농악축제	평창농악축제장	평창농악축제위원회	1,500명
09.21	드라마틱 강원만들기	갯배나루 ~ 주차장	속초축제위원회	400명
09.28	찾아가는 지역예술공연	속초시립박물관	속초문화원	150명
09.29	2019 함경남도 한마당 큰잔치	청호초등학교	함남도민회	200명
10.05	드라마틱 강원만들기	갯배나루 ~ 주차장	속초축제위원회	400명



속초도문농요 전승 및 공연

속초도문농요 전수관 위탁관리

속초문화원은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속초도문농요의 지속적인 재현과 보존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속초시민들로 구성된 보존회는 연간 5회 공연연습과 다양한 전승교육을 통해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을 논에서 모심기 소리 공연을 하여 관광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속초도문농요전수관은 도문농요 연습 및 공연 등 체계적인 전승활동 뿐만 아니라 2019 생생문화재 및 각종 공연연습 장소대관 등 지역의 문화활동의 장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 2019 속초도문농요 공연활동

공연 일시	내용	장소	관람객
1회 5월 16일	무형문화재 공개공연(1차)	상도문 마을 논	60명
2회 10월 26일	무형문화재 공개공연(2차)	청초호 유원지 다목적 잔디광장	200명

■ 2019 속초도문농요 연습 활동

- 일 시 : 1월 ~ 12월
- 연 습 : 소리연습 10회, 총연습 5회, 사물놀이 연습 7회
- 장 소 : 속초도문농요전수회관
- 참가자 : 속초도문농요보존회원 52명



속초시의 번영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인 설악 제례를 올해도 속초문화원 주관으로 진행하였다. 9월 28일 9시에 설악산신제(설악산 소공원 특설제단)를 시작으로 10월 7일 7시(설악동 소나무 앞-천연기념물 351호)에 당제를 진행하였다.

올해 제례는 입지조건이 좋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설악제례의 의미를 더욱 크게 하였다. 또한, 작년에 이어 설악산 소나무 당제를 재현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당선된 이 행사는 설악산 주민들과 함께 속초제례위원이 협력하여 설악동과 속초시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제54회 설악문화제 설악제례 / 설악산 소나무 당제

제례명	일시	시간	장소
설악산신제	9월 28일	9:00~10:00	설악산 소공원 특설제단
설악동 소나무 당제	10월 7일	7:00~8:00	설악동 소나무 앞 특설제단



상도문 오감행복여행 문화마을

■ 상도문 학당 및 찾아가는 도문농요 인형극 프로그램 일정

- 일 시 : 5월 ~ 12월
- 장 소 : 속초도문농요전수회관
- 참가자 : 상도문 마을주민

속초문화원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문화마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상도문 문화마을’사업은 2019년에 프로그램과 활동이 두드러진 한해였다. 상도문학당 프로그램은 ‘도문밥상’, ‘어르신덕담손글씨’, ‘천연염색’, ‘이야기꾼 양성’등 4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참여 주민들은 지역축제와 전국생활문화축제 등의 행사에 초청되어 문화마을 사업의 효과를 선보였다. 또한, 상도문의 도문농요를 활용한 인형극 <상도문 사람들>을 제작하여 관내 유치원 및 생생문화제 행사 등에서 공연을 하여 참가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순번	구분	횟수	향유인원	비고
1	상도문 학당(도문밥상 교육)	10	73	
2	상도문학당(손글씨 교육)	63	413	
3	상도문학당(염색 교육)	19	225	
4	상도문학당(해설사 양성)	6	24	
5	도문농요 인형극 연습	45	305	



속초문화원 문화가족들의 문화정체성을 일깨우고 문화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관외지역 문화유적답사를 올해 2회 진행하였다. 1차 답사는 문화학교 수강생들과 6월 14일 광명동굴, 차이나타운 등 인천 일대를 탐방했다. 2차 답사는 속초문화원 회원들과 11월 20일 화암동굴을 비롯한 정선일대를 탐방하였다.

2019 문화유적답사

회차	일시	장소	참가인원	비고
1차	6월 14일	인천 일대	80명	
2차	11월 20일	정선 일대	40명	



2019 학교문화예술교육 ‘국악이랑 놀자’

속초문화원은 초등학교 대상 전통문화교육사업인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을 2005년부터 주관하였다. 본 사업은 속초의 문화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청호초-속초사자놀이’, ‘온정초-속초도리원농악’, ‘설악초-속초도문농요’, ‘대포초-국악관현악단’, ‘청봉초-창극’, ‘속초초-취타대’ 등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국악교육을 통해 문화정체성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과 다채로운 공연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감수성 향상과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 국악심화교육

- 교육기간 : 2019년 3월~12월

학교명	담당교사	강좌명	지도강사	인원	교육내용	비고
청호초등학교	신정인	속초사자놀이	김청익	25명	사물	
			김현섭		민요	
			임희영		통소	
			임희영		속초사자	
속초초등학교	원예랑	취타대	김청익	45명	대취타편성과 용고	
			임희영		나각, 나발교육	
청봉초등학교	장혜정	창극	김현섭	22명	태평소	
온정초등학교	홍명관	도리원 농악	김현섭	30명	민요	
			임효건		도리원농악 전반,	
			손미애		소고 및 상모	
설악초등학교	정광빈	속초도문농요	유지현	19명	민요	
			김부영		도문농요 및	
대포초등학교	곽미서	국악관현악	유인혜	35명	농사풀이	
			박치영		국악관현악 편성 및 악기교육	





속초사자놀이 강원 도무형문화재 지정 기념 학술세미나

2019년 속초사자놀이 강원도무형문화재 지정을 기념하며 각 분야 학자 및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향후 속초사자놀이의 전승·보존·계승을 위한 발전방안 등을 협의·제시하는 장을 마련했다. 본 세미나는 문화재 관련 전공 교수 8명이 주제발표를 하였고 지역 문화단체 관계자 8명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 속초사자놀이 학술세미나

- 장 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소강당
- 기 간 : 2019년 6월 (1회)
- 참석자 : 17명(발표자 8명, 토론자 8명, 사회자 1명)
- 관람자 : 기관단체장, 문화예술인, 속초사자놀이보존회 등 150여 명

• 내 용

- 제1 주제 : 속초사자놀이 정착 발전에 대한 논의
- 제2 주제 : 속초사자놀이 현황과 발전방향
- 제3 주제 :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과 과제
- 제4 주제 : 미래지향적 강원도 무형문화재 전승
- 제5 주제 : 속초사자놀이의 활성화에 대한 제안
- 제6 주제 : 속초사자놀이 발전 방향 제시
- 제7 주제 : 연희적 관점에서 본 속초사자놀이
- 제8 주제 : 속초사자놀이 무형문화재 지정과 속초시립박물관 역할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은 어르신들이 야외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하는 것으로 어르신의 사회적 역할 증대 및 사회공헌을 확대시켰다. 올해 속초문화원에서는 문화원에서 추천한 5개의 동아리(사물, 고고장구&퓨전난타, 행복한 노래교실, 라인댄스, 손김그리고)가 참가하였다.

강원도문화원연합회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사업

■ 세대공감-감자꽃이 피었습니다

- 기간 : 9월 9일
- 장소 : 엑스포 분수광장
- 참가자 : 사물팀, 고고장구&퓨전난타팀, 라인댄스팀, 손김그리고팀, 행복한 노래교실팀



속초시민의 날 행사 지원

속초시민들에게 속초시와 속초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속초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높이기 위해 속초시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였다. 시민의 날 행사는 반세기 역사와 문화를 담은 다양한 기록물을 통해 속초 문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시민의 날

- 장 소 : 속초시 엑스포 광장 특설무대 주변
- 기 간 : 2019년 5월 21일~26일(6일간)

• 내 용

- 속초문화원이 발간한 기록물 전시 : 도서, 자료집, 장롱사진전 입장작 등 100여 점
- 기록물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및 설명
- 속초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지방문화원의 향토문화 육성과 건전한 경쟁을 통한 전통의 계승 발전과 화합의 장으로 제24회 강원도 사물놀이경연대회가 9월 10일 춘천교육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 경연은 강원도 내 사물놀이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날 속초문화원 사물동아리 여울당은 삼도사물놀이로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강원도사물놀이 경연대회

■ 제24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 장 소 : 춘천교육대학교 석우관 석우홀
- 기 간 : 2019년 9월 21일~26일(6일간)
- 참가자 : 8명(지도강사 1명, 공연자 7명)

• 내 용

- 삼도사물놀이 : 옷다리 사물놀이, 영남 사물놀이, 호남 우도 사물놀이의 가락을 모아서 하나의 악곡으로 편성한 사물놀이



2019 속초문화원 공모사업

속초문화원은 2019년 정부·기관 등에서 공모한 다양한 사업에 응모·선정되어 속초시의 예산 절감, 일자리 창출, 속초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사업 주최 기관	내용	사업기간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어르신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 '음악치료와 함께 하는 노래교실' 운영	2019.5.~11
강원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인생나눔교실 3355인생나눔활동사업 거점기관 -속초시 관내 6개 운영 단체 지원	2019.8.~1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강릉문화원·속초시 강릉시	드라마틱 강원만들기사업 -『속초, 그 곳의 기억들』 책자 발간 및 북 콘서트 개최	2019.9.~11
강원도교육청	속초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선양사업 -초·중등용 속초만세운동 책자 발간 및 속초 관내 학교 등 배포, 속초만세운동 선양 뮤지컬 공연	2019.8.~11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 사무소	책자 집필 사업 『이야기로 만나는 설악산국립공원 문화자원』	2019.6.~11

2019 속초문화원 발간책자



- 『속초, 그곳의 기억들』
- 발행일 : 2019년 10월 • 발행처 : 속초문화원
- 발행인 : 김계남 • 편집인 : 양용석
- 글/취재 : 이수영
- 사진 : 최운봉, 김태성, 조성혁, 박동화
- 삽화 : 김상률
- 출판 : 씨앤씨디자인 • ISBN: 979-11-965930-2-5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드라마틱 강원만들기 공모사업 일환으로 발간된 이 책은 60,70년대 속초의 풍경과 특징적인 장소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속초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저자 이수영의 시각으로 구성하였다.



- 『맨 몸으로 일제에 맞서다! 속초 만세운동』 (초등용)
- 발행일 : 2019년 10월 • 발행처 : 속초문화원
- 발행인 : 김계남 • 편집인 : 양용석
- 저자 : 고광민
- 감수 : 김명숙, 김효주, 김민지, 조민희
- 출판 : 속초고성양양 교차로신문사
- ISBN : 979-11-968290-1-8

강원도교육청 보조를 받아 속초만세운동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이 책은 초등학생용으로 제작되어 100년 전 대포를 중심으로 속초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을 재조명하였다.

2019 속초문화원 발간책자



- 『만 몸으로 일제에 맞서다! 속초 만세운동』
- 발행일 : 2019년 10월 • 발행처 : 속초문화원
- 발행인 : 김계남 • 편집인 : 양용석
- 저자 : 장재환, 김만중, 김정환
- 출판 : 속초고성양양 교차로신문사
- ISBN : 979-11-968290-0-1

강원도교육청 보조를 받아 속초만세운동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이 책은 중·고등학생용으로 제작되어 100년 전 대포를 중심으로 속초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을 재조명하였다.



- 『속초의 시작, 대포항을 기억하다』
- 발행일 : 2019년 11월 • 발행처 : 속초문화원
- 발행인 : 김계남
- 기획 진행 :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속초문화원 사무국
- 집필·구술·정리 : 엄경선, 이광호, 장재환
- 출판 : 하늘공방 • ISBN : 979-11-965930-3-2

속초시 보조금으로 제작된 속초도시변천사 기록사업 자료집인 이 책은 「개항 110년, 대포항 역사기록과 구술자료」 등을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발간하였다.

2019 속초문화원 발간책자



■ 『이야기로 만나는 설악산국립공원 문화자원』

- 발행일 : 2019년 11월
- 발행처 :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 연구기관 : 속초문화원
- 집필 : 권오길, 김만중, 김창환, 장정룡, 장재환, 정종천, 홍문표 • 사진 : 최운봉, 조성혁, 박동화
- 출판 : 전우용사촌(주) • ISBN : 979-11-965930-4-9

속초문화원이 연구기관으로 진행한 이 책은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들이 다수 집필에 참여하였으며 설악산의 자연환경, 유산, 역사, 문화, 이야기, 기록물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발행하였다.



■ 『2019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집』

- 발행일 : 2019년 12월 • 발행처 : 속초문화원
- 발행인 : 김계남 • 편집인 : 김은중
- 사진 : 김태성, 최운봉, 박동화, 조성혁
- 출판 : 하늘공방

2019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강좌 활동내용 모음집으로 한 해 동안 수강생들의 결과물들인 전시회 작품들과 강좌별 발표회 모습들을 간략한 설명과 함께 사진으로 담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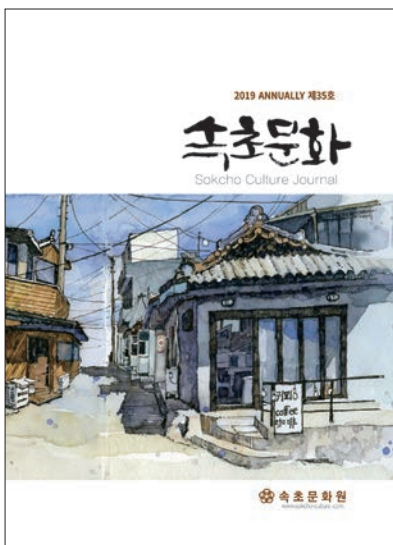
2019 속초문화원 발간책자



■ 『속초민속예술 이야기 마당』

- 발행일 : 2019년 12월 • 발행처 : 속초문화원
- 발행인 : 김계남 • 편집인 : 양용석
- 저자 : 장정룡
- 출판 : 하늘공방
- ISBN : 979-11-965930-5-6

속초향토문화예술을 대표하는 속초사자놀이, 속초도리원농악 등과 민요인 돈돌라리, 속초아리랑, 민속놀이인 논뉘호 불꽃놀이, 만천동 나룻배싸움 등을 전문가인 강릉원주대학교 장정룡 교수가 체계적으로 정리한 속초 향토사안내서이다.



■ 『속초문화 제35호』

- 발행일 : 2019년 12월 • 발행처 : 속초문화원
- 발행인 : 김계남
- 편집인 : 양용석
- 출판 : 하늘공방

속초문화원 가족 동경



■ 김계남 (속초문화원 원장)

속초문화원 김계남 원장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유공자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 한명옥 (속초문화원 부원장)

- 속초문화원 한명옥 부원장은 속초시민의 날 기념 '속초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문화예술부문'에 선정되어 속초시장상을 수상하였다.
- 2019 강원문화대축전에서도 문화발전유공자로 선정되어 강원도지사상을 수상하였다.



■ 이영순 (전, 속초문화원 부원장)

이영순 부원장은 지난 7월 3일 속초시 제8대 속초시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 김주철 (속초문화원 이사)

속초문화원 김주철 이사는 2019 강원문화대축전에서 문화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어 강원도의회 의장상을 수상하였다.



■ 김태형 (속초문화원 이사)

속초문화원 김태형 이사는 2019 강원문화대축전에서 문화발전유 공자로 선정되어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상을 수상하였다.

속초문화원 가족 동정



■ 탁명원 (속초문화원 이사)

-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속초시지회장인 탁명원 속초문화원이사는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창립 32주년 기념식에서 우수지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 2년 임기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탁명원 이사는 제15회 속초시사회복지가족 한마음 축제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상을 수상했다.



■ 문은희 (속초문화원 이사)

- 2019년 새롭게 발족한 속초·고성·양양 여성경제인연합회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 양용석 (속초문화원 사무국장)

- 속초문화원 양용석 사무국장은 2019년 속초시민의 날 성공적 개최 속초시장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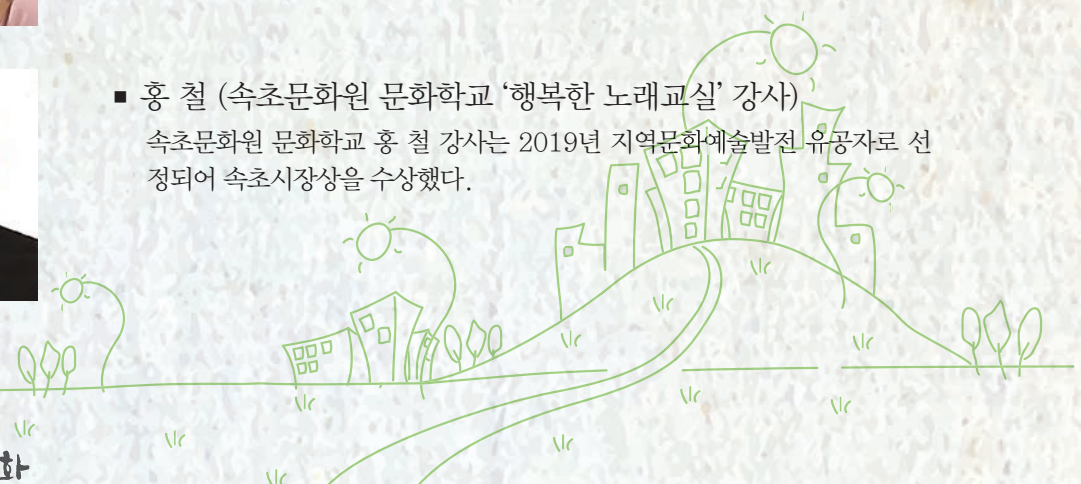
■ 김영옥 (속초문화원 회원)

- '우렁골추어탕' 대표인 김영옥 회원은 속초시자원봉사대학 10기 회장과 봉사단체 '예손회' 회장으로 '홀로 어르신 친한 친구 만들기' 등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아가고 있다.



■ 홍철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행복한 노래교실' 강사)

-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홍철 강사는 2019년 지역문화예술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어 속초시장상을 수상했다.



2019 문화학교 수료·전시·발표회 현장을 아름답게 넘어서는 실력을 뽐내다!

이광호 (설악신문 기자,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11월 13일 발표회 시작이 아직 한 시간이나 남았는데 속초문화예술회관 입구와 로비에 사람들이 북적였다. 여성들과 아이들이 다수를 이루고 그 사이사이 노신사들의 모습도 보였다. 스텝들은 문서 등을 들고 다니며 미비한 점은 없는지 점검하느라 바빴다. 공연 참가자들은 구석구석에서 대화를 나누며 공연을 준비했고 어떤 강사들은 마지막까지 수강생 지도에 여념이 없었다. 속초문화예술회관 입구에서 공연팀별로 사진을 찍는데 사람이 많아 어수선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는 막바지 연습이 한창이었다.

사람들이 객석을 채우고 잠시 후 사회자로 속초문화원 양용석 사무국장이 단상에 서면서 어수선했던 장내 분위기는 금세 전환됐다. 식전 공연으로 속초초등학교 취타대 학생들이 객석 사이로 줄을 지어 등장하며 나발, 나각, 태평소, 용고를 울렸다. 이 소리에 본인의 공연 차례를

앞두고 긴장한 모습으로 객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순간 환해졌다. 귀여우면서도 늙은한 취타대에게 박수와 호응이 이어졌다. 힘찬 취타대의 연주를 뒤로 하고 이어지는 청봉초등학교 학생들의 창극 무대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순풍에 돛을 달고...어기여차...” 노래 가락은 흥겹고 아이들의 미소는 너무나 밝고 사랑스러웠다.

속초문화원 문화학교는 1993년 1월에 시작해 올해 27기까지 3만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8만 명 속초 인구를 고려하면 실로 놀라운 수치다. 올해에는 서예, 노래, 장구 등 총 21개 과목에 450여 명이 수강했다. 웬만한 중등학교 한 해 졸업생 수와 맞먹는다.

이날 행사에는 문화학교 수강생 외에 많은 내빈들이 함께했다. 김철수 속초시장, 최종현 속초시의회 의장, 이영순 속초시의회 부의장, 강정호·김명길·방원욱·신선익·유혜정 시의

원, 이동기 더불어민주당 속초고성양양지역위원장, 박상진 전 국회 전문위원 등이 참석해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김계남 속초문화원장은 대회를 통해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문화도시 속초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환기하며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거리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면 시민들의 문화생활이 더욱 풍성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철수 시장은 환영사에서 김계남 원장의 제안에 바로 호응했다. 김 시장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문화학교의 위상을 짚으며 향후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거리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현 속초시의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문화학교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속초문화원 문화학교가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학교가 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밝혀 객석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우수 수강생 표창에서는 참석자들의 커다란 환호성이 그치지 않았다. 한 해 동안 함께한 이들이 한 명, 한 명 수상할 때마다 각 프로그램별 참가자들이 마치 경쟁을 하듯 큰 합성을 보내는 즐거운 장면이 연출됐다.

유쾌한 무대, 숨씨 좋은 미술품 전시

한빛세상 한지혜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2부 공연에서는 몇몇 팀이 전문공연단 못지않은 실력을 뽐냈다. 사물놀이 공연은 연주자들의 호흡이 돋보였다. 무대에 오른 이들은 서로 눈을 맞추며 신명나게 타악을 연주하면서 2부를 여는 무대로 손색없는 공연을 펼쳤다. 통소반은 ‘칠갑산’, ‘번지 없는 주막’ 등을 들려주며 관객의 호응을 이





끌어냈다. 통소와 대중가요는 예상 외로 어울리는 조합이었다. 민요반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서 흥겨우나 절제된 어깨춤과 발놀림을 곁들이면서 아미추어 실력을 넘어서는 공연을 선사했다. 무용반 역시 화려한 한복을 입고 한 손에는 부채를 들고서 우리의 전통무용을 멋스럽게 드러냈다. 민요와 무용이 절제된 모습이었다면 ‘고고장구 퓨전난타’는 신나게 열기를 발산하는 무대였다. 번쩍이는 조명 사이로 북춤을 추는 모습은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공들인 무대였다. ‘춤추는 시민 신나는 속초(댄스)’팀은 짝을 이뤄 상송에 맞춰 품위 있는 춤을 선보였다. 이 팀이 보여준 댄스는 스텝이 날렵하고 부드럽게 이어지며 경쾌한 느낌을 전했다. ‘홍사랑노래교실’은 노란 상의와 검정색 바지를 맞춰 입고 나와 천천히 어깨를 들썩이며 합창으로 노래 솟씨

를 뽐냈다. ‘신나는 건강체조’는 체조라기보다 무용처럼 잘 짜인 안무가 깔끔했다. ‘웰빙 라틴댄스’와 ‘라인댄스’는 다들 날씬한 모습으로 가볍게 춤추며 건강한 이미지를 전했다. ‘행복한 노래교실’은 무대에 80명이 올라 쾌활한 공연을 펼쳤다. 머리에 가발을 쓰고 꽃을 단 이들이 춤을 추며 등장해 장내에 더욱 유쾌한 분위기를 선사하면서 발표의 대미를 장식했다.

한편, 속초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에서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예, 한지공예, 규방공예, 스케치, 드로잉, 원예, 실향민 인형 만들기 전시가 진행됐다. 한 해의 노고가 담긴, 엄선된 작품들은 속초문화원 문화학교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속초문화

속초문화원 회원 모집

속초문화원은 지역사회의 발전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 기관으로서 지역문화를 향유, 발전시키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속초문화원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뜻을 함께하는다는 의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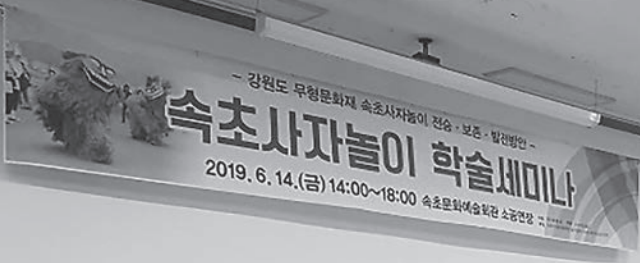
회원혜택

1. 향토사안내서, 속초문화지 등 속초문화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책자들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 관내 문화예술체험 행사를 발 빠르게 알려드리며 우선적으로 초대합니다.
3.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DVD, 도서, 음반, 악기)의 대여가 가능합니다.
4. 문화유적답사에 참여, 타 지역의 문화탐방 기회를 제공합니다.
5. 회원 자격으로 문화원 운영 방향과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회원회비 : 연 5만원

문의 : TEL 632-1231 / FAX 632-1241 / www.sokcho-culture.com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31호 속초사자놀이

학술세미나 발제와 토론에서 나타난 진단·보완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양용석 (속초문화원 사무국장 / 사회·문화 박사)

지난 3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31호로 지정된 '속초사자놀이 학술세미나'가 6월 14일 속초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위원들과 속초사자놀이보존회 회원들,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들, 속초시 함경남도 도민회 등이 참여한 이번 학술세미나에서 '속초사자놀이 보존, 계승, 발전방안'과 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과 평가, 향후 속초사자놀이가 가져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속초사자놀이가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 수년 동안의 노력들, 그리고 현지실사를 포함한 심층평가 끝에 속초사자놀이가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속초사자놀이보존회 뿐만 아니라 속초시와 속초문화원을 포함한 관련 단체, 많은 속초 시민들이 함께 기뻐할 만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번 세미나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언급하였듯이 속초사자놀이는 향후 보존과 계승에 있어 현재 지닌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속초사자놀이만이 가지는 정체성을 뚜렷이 해야만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앞으로의 방향성 설정 또한 그러하다.

이 글에서는 속초사자놀이 학술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제기한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과 방향성에 대하여 논(論)해 보고자 한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속초사자놀이의 '강원도다움'과 '속초다움'에 대한 논의

총 16명의 발표자와 지정토론자로 구성된 학술세미나에서 신대철 강원도 무형문화재 위원은 '미래지향적 강원도 무형문화재 전승 ; 강원도다움의 지속'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강원도 밖에서 행해졌던 특정 종목의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은 '속초사자놀이'가 최초라는 점을 들며, 속초사자놀이가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명문화되었기에 마땅히 '강원도다움, 속초다움'이 묻어나야만 하는데 이에 대한 부재(不在)와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주된 논지였다.

장정룡 강원도문화재위원장(강릉원주대학교 교수)의 논고와 발표에 따르면 6.25 전쟁 이후 '북청사자놀이'가 처음 시연된 곳이 속초이며,

1958년 북청도청을 속초에 세우고 북청동향친목계를 조성하여 '김수석, 김하륜' 어른들이 중심이 되어 북청사자놀음을 지도하고 연회를 재현한 곳 역시 속초이다. 속초의 '북청사자놀이'가 '서울'로 주 무대를 옮기게 된 배경에는 '환경적 요인'이 주요 변인(變人)으로 작용하였다. 속초에 거주하던 함경남도 출신들이 서울로 대거 이주하였으며, 이북 5도청이 서울에 세워졌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1960년도 서울에서 '북청사자놀이 보존회'가 발족되어 1964년부터 전수에 들어갔으며 1967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 15호로 지정되었다. 속초사자놀이의 명분과 당위성에 주된 논점을 세웠다.

최재도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은 '주술기능, 걸립기능, 유희기능' 면에서 속초사자놀이가 북청사자놀음의 성격과 기능을 원형가깝게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 서울의 북청사자놀음이 '객석과 무대가 구분되는 공연예술'인

반면 속초사자놀이는 ‘객석과 무대가 구분이 없고 함께 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들며 함경남도 북청에서 이루어지던 사자놀이의 성격과 특징을 그대로 전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의 속초사자놀이

장정룡 교수는 속초사자놀이가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대표성’에 있어 문화재적 가치의 일정한 수준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이로 인해 강원도 무형문화재로서의 자격 역시 그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문화인류학적 입장에서 ‘속초다움’의 의미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속초사자놀이에 부여된 속초라는 지역명칭으로 인해 ‘속초다움’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이렇다. “현대 문화 분석의 주류는 문화와 사회에 존재하는 총체적 관련성의 성격을 밝히는 데 있어 ‘민족지적 접근방법(ethnography)’을 주요 방법론으로 삼고 있다. 민족지적 방법은 문화가 실천되는 그 공동체 밖에서도 그 문화가 동일하게 실천되는가는 문제 삼지 않는다.” 문화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는 “문화적 분석은 두꺼운 묘사를 포함한다. 대중적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중요시해야 한다. 행동이란 텍스트(text)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속초사자놀이는 속초의 색채가 묻어있어야 한다는 ‘~다움’이 아닌 그 역사성과 형식, 구성, 내용 속에 담긴 은유(metaphor) 등을 두루 살펴보아야 한다.

함경남도 중심의 실향민들이 속초로 이주, 이들을 중심으로 속초에서 ‘북청사자놀음’이 시작



되었고, 실향민 2,3세대가 주축이 되어 전수·보존·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성과 상징성에서 ‘속초다움’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무형문화재 속초사자놀이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이다.

‘춤’을 중심으로 한 공연 완성도에 대한 문제 제기

유옥재 강원도 무형문화재 위원은 ‘속초사자놀이 발전 방향 제시 ; 춤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문화유산은 원형 그대로 역사를 만드는 연희적 구성과 지정에 따른 꾸준한 훈련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변형된 프로그램이나 무대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원형 그대로를 보존·보전하는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발표자로 나선 대부분의 문화재 위원들이 지적하였듯이 무형문화재가 지녀야 할 주요 특성들 중 하나는 ‘원형 그대로를 재현’하는 것이다. 춤의 예술성이나 완성도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춤으로서의 예술성은 높아질지는 모르나 무형문화재로서의 성격과 가치는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속초사자놀이의 원형인 북청사자놀음이 지니는 특징은 ‘걸립과 안택’을 강조하는 길놀이 형식이며, 이로 미루어 볼 때 과거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진 북청사자놀이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공연이나 춤을 전업으로 하는 전문적인 공연패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그들이 추었던 춤은 춤의 예술적 동작보다는 몸동작이 다소 서툴더라도 춤 속에 담긴 내용과 의미를 공연자들과 마을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겼다는 점, 전통적 ‘놀이’의 기능을 가졌다는 점에서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두는 것이 옳다.

속초사자놀이 다양한 발전방안 제시

인프라 구축에 있어 청호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속초사자놀이 전승 교육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제시되었다. 청호동은 실향민들이 정착한 마을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향후 속초사자놀이 전수관이 위치할 최적지라는 점과 마을에 벽화나 상징물들을 설치하자는 제안들 역시 눈길을 끄는 대목이었다. 정종천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속초시립박물관 학예담당연구사)은 속초시립박물관에 전통문화예술 야외상설공연장조성과 활성화를 통해

속초사자놀이의 정기공연과 발표를 제안하였으며, 주요 상징물인 사자탈 등을 캐릭터화하여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자는 제안은 긍정적인 동의를 이끌었다.

속초사자놀이가 강원도 무형문화재로서, 계승·발전을 통해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속초사자놀이보존회와 관련 단체들의 꾸준한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속초시와 강원도,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포함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은 많은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맺는말

속초사자놀이의 정체성과 향후 전승·계승·발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장과 견해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론화되었던 속초사자놀이 세미나는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아쉬움으로 남았다. 하지만 강원도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속초사자놀이에 대한 방향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담론(談論)들이 만들어지는 자리였기에 값진 시간들로 기억한다.

속초사자놀이에 ‘속초다움’이 더 심어질 수 있는, 동시에 원형 그대로의 모습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전승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 역시 그러하다. 이는 속초사자놀이 보존회만이 아닌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 그리고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해 보인다.

속초문화



향토사연구위원 기고

김만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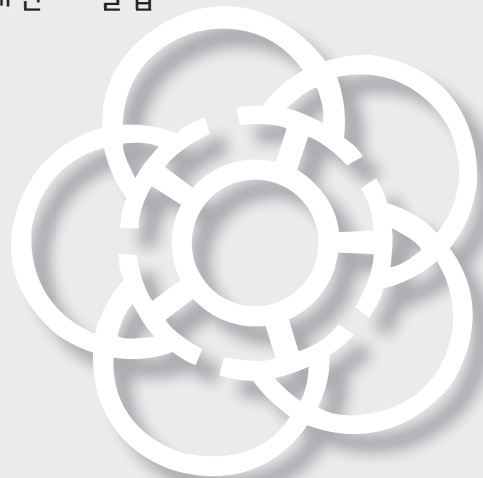
- 속초만세운동, 100년 전의 열기

이수영

- 신포마을 갯배선착장 일대 리모델링하자

장재환

- 문화예술진흥사업 전담할
'속초문화재단' 설립



속초만세운동, 100년 전의 열기

김만중 (속초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I. 머리말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건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속초는 여기에 더해 근대문물의 유입처였던 대포가 개항을 한 지 1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속초시립박물관은 4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옛 신문기사와 사진 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대포, 기록으로 다시 보다” 특별전을 진행하였다. 3가지 주제로 이루어진 특별전은 ‘1. 대포, 기항지가 되다!’에서 대포의 지리적 위치와 근대문물이 들어오던 경로를 살펴봤으며, ‘2. 대포, 근대교육을 시작하다!’에서 속초 지역 근대교육의 효시인 대포초등학교의 변천을 돌아봤고, ‘3. 대포, 자주독립을 위해 내딛다!’에서는 속초 지역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던 인물과 독립선언서를 들여온 대포의 위상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속초시는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 아래 2019년 한 해 동안 속초 사잇길 걷기 행사

를 진행하였다. 2019년 6월 22일에는 속초 사잇길 걷기 행사의 일환으로 제10길인 대포만세길 걷기 행사를 가졌다. 속초만세운동이 태동하였던 중도문리에서 만세운동을 실행하였던 대포동까지 약 3km를 걸으면서 1919년 당시 독립을 결의하며 길을 걸었을 분들의 뜻을 되새겼다. 이와 함께 2019년 4월 4일에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적절한 시기를 놓쳤지만 대포항 입구와 옛 대포순사주재소 자리인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속초만세운동의 뜻을 기리는 공연과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속초문화원은 강원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속초만세운동 선양사업을 진행하였다. 속초관내 일선 학교 교사와 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속초만세운동 자료집인 『맨 몸으로 일제에 맞서다! 속초만세운동』을 초등용과 중등용 2가지로 발간하여 관내 20여 학교에 배포하였다. 속초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속초만세운동 특강을 진행하였다. 속초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창작

뮤지컬 <속초만세운동>을 제작하여 공연하였다.

그동안 지역에서 1919년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뜻은 있어 왔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였다. 아직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만세운동에 반신반의하는 분도 있다. 양양에서 만세운동이 크게 일어났으니 우리 지역에서도 누군가 참여했던 것을 스토리텔링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포를 중심으로 한 속초에서도 만세운동을 벌였던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비록 다른 지역에 비해 늦었지만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치르고, 2020년부터는 만세운동을 벌였던 대포에서 4월 5일마다 기념행사를 치르기로 계획되어 있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은 100년 전 좁게는 대포동에서 벌였던 독립운동, 하지만 중도문리, 대포리, 부월리, 온정리 등 속초지역의 대부분 주민들이 참여하였던 속초만세운동에 정신을 되새기고자 하는 것이다.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만세운동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자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고자 한다.

II. 속초만세운동

1. 3·1운동의 확산

20세기 초는 격동의 시기였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잉여생산물이 넘쳐났다. 제국주의가 팽배하면서 열강들은 식민지를 늘리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우리나라도 서양 제국주의를 받아들여 팽창정책을 펼치던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제국주의 국가간 팽창정책은 충돌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으며, 이런 결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18년에 전쟁이 끝났다. 전후 처리를 위하여 열강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은 패전국의

식민지 처리를 위한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한다. 이 주장은 전쟁에서 패한 국가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승전국 측에 참여한 일본에게는 해당이 안 되었다. 독립에 대한 열망이 높았던 우리 민족은 이를 모든 피압박민족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 독립운동에 적극 나서기 시작하였다.

1910년 한국을 강점한 일본은 한국인의 독립 열망을 강력히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무단통치를 자행한다. 이에 한국인은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지하투쟁운동을 벌이거나 해외로 망명하여 독립정당성을 널리 알리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재외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하여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벌인다. 일본에서 애국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인유학생들이 여러 단체를 결성하는데, 그 중 하나가 조선청년독립단이었다. 이들은 독립선언을 하기로 결정하고,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작성하였다. 강점세력의 중심인 일본 도쿄에서 1919년 2월 8일 독립선언을 하기로 하고 준비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된다. 결국 이들은 귀국을 결의하고 3·1운동에 합류한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독립운동에 대한 여건이 성숙해지는 중에 고종황제가 1919년 1월 21일에 사망한다. 고종황제의 사망원인으로 일제의 독살설이 퍼지면서, 고종황제의 인산일을 맞이하여 만세운동을 거사하기로 하였다.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될 독립선언서는 교육계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사전에 인쇄되어 전국으로 전달되었다.

고종황제 인산일인 3월 3일에 만세운동을 벌일 것이라는 것이 사전에 알려지자, 3월 1일에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민족대표 33인은 3월 1일 태화관에 모여 선언서를 낭독한다. 탑골공원에 모여 있던 일반 군중들은 학생들이 선언서를 낭독하고 시위를 독려하자 함께 종로 쪽으로

시위행진을 벌이게 된다.

3월 1일 서울,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를 시작으로, 2일에는 경기도, 충청남도, 4일에는 전라북도, 8일에는 경상북도, 10일에는 강원도 철원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금세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일본 측 기록에도 당시 220여 개 군 중 212개 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으며, 전국에서 110만 명이 2달 동안 1,214회의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박은식이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집회 1,542회, 참여인 2,023,098명, 사망자 7,509명, 부상자 15,961명, 피검자 45,948명으로 기록할 정도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벌어진 대규모의 독립운동이었다. 일본은 헌병과 경찰, 군대를 최대한 동원하여 적극적인 만세운동 탄압에 나서 학살 및 피검자 고문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다.

국권회복과 민족자주를 목적으로 일어난 만세운동은 세계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만세운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운동 이후 자주독립사상이 확대되었으며, 자유평등사상, 민주주의, 애국애족, 인도주의 등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2. 양양지역의 만세운동

양양지역은 강원도에서 만세운동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진 곳이다. 양양지역의 만세운동은 이석범으로 대표되던 유림 세력, 감리교파가 주도하던 기독교 세력, 양양보통학교 출신 등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만세운동은 독립선언서의 유입으로 확산된다. 양양의 대표적인 유림이었던 이석범은 서울에서 열린 고종황제 인산식에 참석하면서, 독립선언서를 버선에 숨겨 왔다. 이석범은 자신이 세운 개량서당인 쌍천서숙 출신과 유림, 동생 이국범, 아들 이능렬 등

과 함께 만세운동을 계획한다. 개성 호수돈학교의 학생이었던 조화벽은 학교에서 벌어진 만세운동에 참여한 후, 본인의 가방 속에 독립선언서를 숨겨 원산을 거쳐 대포항으로 들어와서 양양읍의 감리교인들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하였다.

도천면에서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이석범은 동생 이국범과 아들 이능렬에게 도천면과 강현면의 만세운동을 진행하도록 한 후에 양양 임천리로 들어가 양양 만세운동에 가담한다. 임천리를 중심으로 계획하던 만세운동은 사전에 노출되어 거사 전날인 4월 3일에 수십 명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만세운동을 계획하던 일부가 체포되었지만, 이미 만세운동의 불꽃은 타오르고 있었다. 양양장날인 4월 4일을 맞이하여 양양군민들은 양양시내로 몰려와 시위를 진행하였다. 각 마을의 주동자를 중심으로 한 시위대들은 군청과 경찰서로 몰려가 조선의 자주독립과 전날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을 외치며 일본 군경과 대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함흥기가 경찰서장의 칼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다. 어둠이 깔리고 강점세력은 시위진압을 위해 총기를 사용하였고, 독립운동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총에 맞은 권병연과 김학구는 사망하게 된다.

4월 5일 물치장날을 맞이하여 도천면(현 속초시)과 강현면에서는 각 마을의 대표를 앞세워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중도문리, 부월리, 대포리 주민을 중심으로 한 도천면민은 대포항구로 몰려 들었고, 강현면민은 물치장터에 모였다. 오후에는 대포리에 있던 일본 순사주재소로 몰려가 주재소 수석의 굴복을 받아냈다.

이후 4월 6일에는 도천면과 강현면 주민들이 이미 양양읍에 있던 양양군민들과 합세하면서 만세운동은 절정을 이루었다. 이에 놀란 일본은 1개

소대 규모의 군대를 양양으로 파병하였다. 양양지역의 만세운동은 6일 손양면, 서면, 7일 서면, 현북면, 8일에 도천면 논산리로 계속 이어졌다.

양양지역에서 벌어진 만세운동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시위는 4월 9일에 벌어진 현북면 시위였다. 9일 양양장날을 맞이하여 다시 대규모 만세운동을 계획 중이었는데, 현북면 주민들은 하광정리에 있던 면사무소에 모였다가 순사주재소가 있던 기사문리로 몰려갔다. 기사문리 방향에서 출동한 일본 군경과 대치 중에 주민들이 만세를 외치자 일본 군경은 무자비하게 대응한다. 사망자 9명, 부상자 20여 명 등 양양만세운동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3. 속초의 만세운동

속초 지역의 만세운동은 중도문리에 거주하던 이석범이 고종 인산식에 참여하였다가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오면서 본격화된다. 도천면(현 속초시)과 강현면 주민들이 합동으로 주도하여 5일과 6일 이틀 동안 큰 시위를 하였다.

도천면과 강현면 지역의 만세운동은 이석범의 동생 이국범과 아들 이능렬이 앞장서서 추진하였다. 도천면은 김영경, 강현면은 장세환을 내세워 조직망을 꾸렸다. 이렇게 속초지역의 만세운동을 계획한 이석범은 양양읍에서 할 만세운동에 참석하려고 양양 임천리로 갔다가 4월 4일 체포된다. 도천면과 강현면은 4월 5일 물치장날에 맞춰 만세운동을 펴기로 하고, 마을마다 책임자를 두고 태극기를 만들었다. 도천면은 중도문리 이종국의 집(현 강원도유형문화재 제85호 '김중우 가옥')에서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도천면의 만세운동은 중도문리 일대는 이국범, 이능렬, 김영경, 대포리는 박사집, 부월리는 이종순이 책임을 맡아 추진하였다. 강현면은 대부

분 각 마을의 구장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만들고 만세운동을 준비하였다.

4월 5일 도천면 사람들은 경찰주재소가 있는 대포리로 모이고, 강현면 사람들은 물치장터에 모였다. 당시 대포리 순사주재소는 도천면(현 속초시)과 강현면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도천면민이 대포리로 모이자 강현면 방면은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몰려든 사람들이 일본인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에 경찰을 제외한 일본인은 새벽부터 배를 타고 바다에 머물렀다. 도천면 사람들은 오전부터 대포순사주재소에 모여 시위를 벌였으며, 오후가 되어 물치장터에 모였던 강현면 사람들이 대포로 몰려와 합세하였다. 당시 보고에 물치장터에 모인 군중이 5백여 명에서 점점 증가하는 형세이고, 오후 대포리에 모였을 때는 8백여 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천 명을 훨씬 넘었을 것이다.

도천면(현 속초시)과 강현면 주민들이 순사주재소 주변에 모여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벌이자 순사주재소 수석인 이시다 키사부로(石田喜三郎)는 조선 민중에게 허리를 굽히며 빌었다. 사람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라고 외칠 때마다 연거푸 사죄를 하며 돌아가겠다고 굴복을 하였다고 한다. 도천면과 강현면 사람들은 힘을 합쳐 주재소를 공격하려다가 경찰이 완전히 굴복하고 사죄하므로 다음날인 6일에 양양읍으로 가서 만세운동을 펴기로 하고 해산하였다.

4월 6일 도천면과 강현면 사람들은 삼베에 도시락을 싸서 망태에 넣어 걸머메고 마을 곳곳에서 모여 나와 양양읍으로 향하였다. 6일에는 양양군 곳곳에서 읍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에 따른 일본의 대응도 군대 파견을 통한 진압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일본 군대와 경찰이 만세운동을 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양군민은 독립

의 열망으로 강렬하게 저항하였다. 4월 5일과 6일에 도천면과 강현면 전체가 움직였던 만세운동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이후 마을 단위로 만세운동은 계속되었다. 속초지역에서는 4월 8일 도천면 논산리(현재 속초시 조양동)에서 시위가 있었다. 당시 논산리 구장이던 김주철과 고광화, 황명찬, 박명원, 고을주 등이 주동을 하였다. 이들은 마을 앞에서 술장사를 하던 손계원과 힘을 모아 집집마다 사람을 동원하였다. 모여든 논산리 사람들은 대포순사주재소로 향하였다. 이 때 부월리 앞(현재 속초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당시 도천면사무소의 회계서기 김우규(이후 도천면장이 됨)가 만세운동을 하러 가던 군중을 만류하였다. 김우규에게 설득된 사람들은 부월리에서 만세를 부르고 논산리로 되돌아간다. 도천면 전체가 움직일 때 참가하지 못하여 대의명분을 내세우며 만세운동을 벌였지만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이 시위를 벌인 것으로 말미암아 주동 인물이었던 고광화, 황명찬, 박명원, 고을주는 태형을 받는 고초를 겪는 것으로 보아 일제의 입장에서는 논산리 사람들의 움직임은 결코 좌시하지 못할 일이었다.

일제 군정은 만세운동의 확산을 우려하였다. 독립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중요 지점에 검문소를 설치한다. 당시에는 도천면 북쪽의 작은 마을에 불과하던 속초리에도 이러한 검문소를 설치하여 독립운동을 감시하였다.

Ⅲ. 속초만세운동에 참여한 인물

속초 만세운동에는 수백 명이 참여하였다. 현재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을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중 이름을 남긴 이도 있지만 이

름을 남기지 못한 이가 더 많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해 준 이를 찾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이다.

1. 독립유공자

속초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여러 사람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고초를 치렀다.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해방 이후 국가로부터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유공자가 되신 속초 출신은 5분이다.

가. 이국범

이국범(李國範, 1869. 2. 23. ~ 1931. 10. 08.)은 이석범의 동생이다. 1919년 4월 4일부터 9일까지 양양군 도천면과 강현면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석범에 의하여 불이 지펴진 만세운동은 아우 이국범과 아들 이능렬이 앞장서서 쌍천학교(雙川學校) 졸업생을 동원하여 계획되고 진행되었다. 이국범은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한 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김영경·장세환 등과 도천면과 강현면 주민들을 동원하였다. 4월 4일부터 9일까지 연 6일 동안 읍내·대포·물치·왕도·기사문 등지에서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19년 7월 2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나. 이재훈

이재훈(李載勳, 이명 이능렬 李能烈, 1888. 08. 20. ~ 1951. 04. 24.)은 이석범의 큰아들이다. 1919년 4월 4일 양양군 도천면 중도문리 이종국의 집에서 태극기를 제작하고, 4월 5일 강현면 물치시장에서 벌인 독립만세운동에 마을

주민들을 이끌고 참여하였다. 수많은 군중이 몰려든 물치시장에서 이재훈은 스스로 제작한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사람들을 이끌고 물치시장에서 대포순사주재소까지 가 만세시위를 벌였다. 4월 6일에는 군중과 함께 양양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벌이다 김원식·이형우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 1919년 6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능렬은 징역 1년 8월, 김원식과 이형우는 각 징역 1년 4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다. 이재형

이재형(李載炯, 이명 이동렬 李東烈, 1896. 02. 13. ~ 1961. 05. 28.)은 이석범의 아들이자 이재훈의 동생이다. 이재형은 이석범의 지시를 받아 1919년 4월 5일 물치 장터와 대포순사주재소 등지에서 군중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4월 6일에는 군중과 함께 양양 장터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였다. 시위 후 체포된 이재형은 1919년 4월 23일 강릉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은 후 원산형무소에서 1919년 10월 23일까지 옥고를 치렀다.

라. 이종국

이종국(李鍾國, 1876. 06. 23. ~ 1940. 03. 29.)은 중도문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1919년 4월 5일 이국범·이종항·이종인·이

능렬·김영경·장세환 등과 함께 물치 장날에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하였다. 그의 집에서 만세시위에 사용할 태극기를 제작하였으며, 그중 2폭이 일본 경찰에 입수되어 재판 결과물로 사용되었다. 물치장날을 맞이하여 주민 수백 명을 규합, 대포순사주재소 앞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강현면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대포순사주재소 방향으로 시위행진하며 오는 500여 명의 시위대열과 합세한 후 주재소를 공격하여, 기물과 공문서를 파기하며 활동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마. 이춘재

이춘재(李春在, 1878. 08. 25. ~ 1929. 02. 26.)는 1919년 4월 5일 도천면에서 이국범·이종항·이종인·이능렬·김영경·장세환 등과 같이 물치장날에 모인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대포순사주재소 앞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강현면에서 시위행진하며 온 군중과 합세하여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격렬히 시위를 벌이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독립유공자가 당시 살던 곳을 1916년에 제작된 지적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이름	옛 주소(본적, 거주)	현 주소	비고
이석범	강원도 양양군 도천면 중도문리 603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849-1	
이국범	강원도 양양군 도천면 중도문리 604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848	이석범 弟
이능열	강원도 양양군 도천면 중도문리 602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850	이석범 子
이종국	강원도 양양군 도천면 중도문리 266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1186	현 김종우가옥
이춘재	강원도 양양군 도천면 중도문리 600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852	



1916년도 지적도 도문동 600 일원



2019년 현재 중도문2리_2

2. 각 마을의 만세운동 참가자

비록 독립유공자료를 지정받지 못했지만, 1919년 4월 속초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많았다. 이름이 알려진 분도 있지만,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분이 더 많다.

4월 5일 대포순사주재소에서 벌인 만세시위는 중도문리, 대포리, 부월리 등 속초 주요 지역에서 참가하였다. 중도문리는 이석범 일가가 살고 있기에 많은 사람이 참가하였다. 특히 김영경(金英經)은 도천면(현재 속초시) 전체의 연락을 책임지기도 하였다. 태극기를 만들었던 집의 주인이었던 이종국을 비롯한 전주이씨, 이종황, 이종인 등이다. 부월리(현재 조양동)에서는 이종순(李種純), 대포리에서는 박사집(朴士集)이 주도적으로 움직여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4월 8일 만세시위를 벌인 논산리는 당시 구장이었던 김주철이 중심이 되었다. 김주철(金周哲)은 고광화(高光華), 황명찬(黃明燦), 박명원(朴明元), 고을주(高乙柱), 손계원 등과 함께 논산리 시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집집마다 한 사

람씩 동원할 수 있게 사람들을 이끌었다.

3. 일제 관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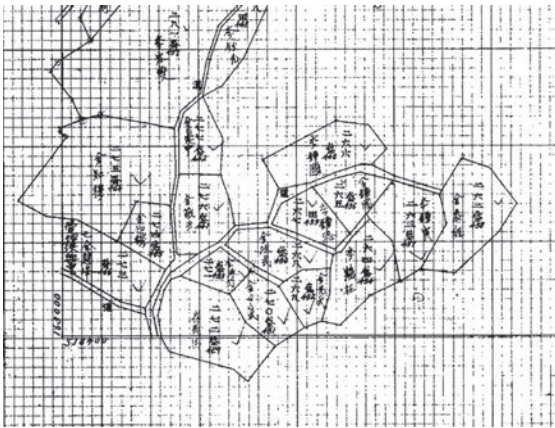
4월 5일 도천면 군중의 만세시위에 굴복하였던 당시 대포순사주재소 수석이었던 이시다 키사부로(石田喜三郎)는 순사생활을 계속하였으며, 1929년 3월에는 대포학교조합 평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당선될 정도로 지역 유지로 활동하였다.

도천면 출신으로 도천면사무소 서기로 근무하던 김우규(金雨圭, 1877 ~ 1947)는 1919년에 이석범의 뒤를 이어 도천면장이 된다. 행정가로서 수완을 발휘하였고, 면장 퇴임 후에도 지역개발을 위해 속초축항공사 추진에 노력을 하였다고 한다.

IV. 속초만세운동의 주요 장소

1. 옛 이종국 가옥

김종우가옥은 강원도유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되어 있다. 중도문1리에 해당하는 속초시 도



1916년도 지적도 도문동 266 일원



2019년 현재 도문동 1186 일원



문동 118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산지의 기슭에 전면 4칸, 측면 2칸의 一자형에 오른쪽 부엌 앞에 마굿간 1칸을 덧붙여 ㄱ자 모양의 배치 형태

를 취하고 있다. 5량가 구조로서 1750년경 전주 이씨가 이 집을 건립하여 6대에 걸쳐 살다가 김종우의 부친이 구입한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대포만세운동의 주동자인 이능열(이재훈)은 1919년 4월 4일 중도문리 이종국의 집에서 태극기를 제작하고 만세운동을 준비한다. 마을주민들에게는 만세운동에 참여하라고 독려했고, 물치장터와 대포순사주재소에서 시위를 주동하였다. 만세운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한 태극기 2폭은 일본 군경이 만세운동의 증거물로 압수하였다고 한다. 당시 이종국은 양양군 도천면 중도문리 266번지에 살고 있었다. 이곳이 현재 ‘속초 김종우가옥’이 위치하고 있는 속초시 도문동 1186번지이다. 즉 김종우가옥은 전통가옥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1985년에 강원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1919년 대포만세운동을 준비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현충시설이기도 하다. 중도문1리 마을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을 조망하기 좋은 곳에 있어, 당시에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을 한 눈에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옛 대포순사주재소 터

가. 경찰 주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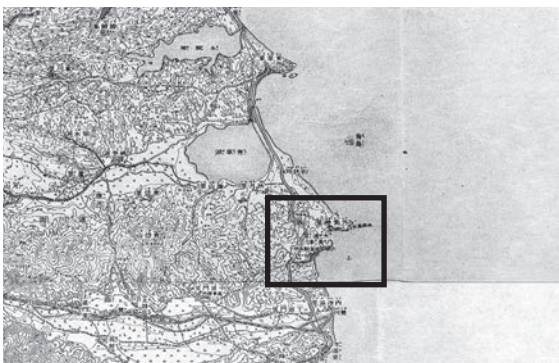
조선시대에 경찰권은 사법권과 함께 행정관청인 관찰사와 군수의 업무에 속하였다. 1896년에 일본식 제도를 모방한 경찰제도가 도입된 후, 춘천에 경무서를 신설하여 강원도의 경찰사무를 담당하였다. 거의 경찰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1906년 1월에 춘천에 경무서, 금성과 강릉에 경무분서를 설치하였고, 경찰인력을 배치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찰업무가 분화하였다. 1906년 12월에 원주, 울진에 경무분서를 두었다. 1907년

10월 춘천경무서를 춘천경찰서로 개칭하면서, 금성, 원주, 강릉, 울진에 분서를 두었다. 이후 분서를 경찰서로 고치고, 1908년 통천, 철원, 평창에 경찰서를 증설하였다. 1910년 일제 강점 이후에는 강원도 경무부장을 헌병대장이 겸하도록 하고, 춘천, 평강, 금성, 강릉, 통천, 평창, 임원진 7곳에 경찰서를 설치하였다. 춘천, 철원, 김화, 회양, 원주, 영월, 삼척, 양양, 울진, 고성 10곳에 헌병분대를 설치하고, 홍천, 양구, 횡성, 이천, 간성, 화천 6곳에 분견소를 설치하여 경찰사무를 보게 하였다. 1912년 9월에 양양 분대를 인제로, 임원진서를 양양으로 옮기면서 양양지역은 헌병대가 아닌 경찰이 관할하는 지역이 되었다.

현재의 속초시 장사동 지역은 헌병대 고성분대 아야진파견소에서 관할하였다. 쌍천 이북과 영랑호 이남의 속초시내, 노학동, 도문동, 대포동 지역은 새롭게 생긴 양양경찰서 용진순사주재소에서 관할하였다. 당시 용진순사주재소는 양양군 도문면 대포리에 있었으며, 관할 구역은 1913년 당시 강선면, 도문면, 소천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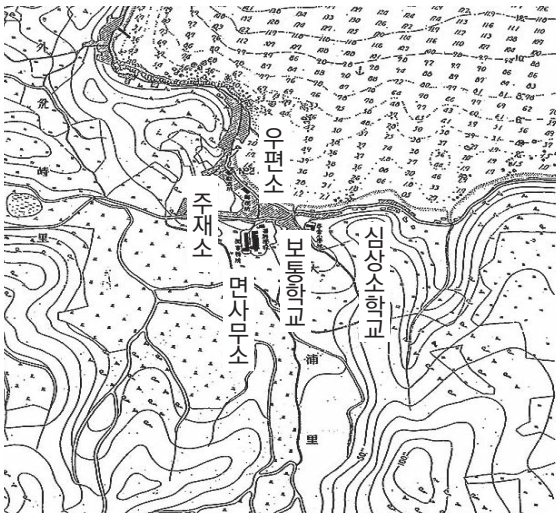
대포에 있던 순사주재소의 위치는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2개의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918년 지도를 보면 대포리 해안으로 우편소와 함께 순사주재소가 위치하고 있었다.

1930년 속초항 축항을 위하여 제작된 ‘속초



항 및 대포항 실측평면도’에 당시 대포리에 위치한 기관들이 표시되어 있다. 1937년 도천면사무소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기기 전이므로, 대포리에는 면사무소, 공립보통학교, 심상소학교, 순사주재소, 우편소가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포공립보통학교는 현 대포초등학교로서 현재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도천면사무소는 대포공립보통학교 뒤편에 위치하고 있었다. 대포심상소학교는 현 7번국도변의 모텔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우편소는 대포항1길의 있는 식당 인근에 있었다고 한다. 순사주재소는 옛 대포항개발사업소 자리에 있었다.





나. 대포동사무소

속초시는 1963년에 양양군 속초읍에서 속초시로 승격하였다. 1966년에 동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각 동에 동사무소를 짓게 된다.

대포동의 관할 지역은 옛 대포리, 외용치리, 내물치리 등의 자연마을이다. 동사무소는 1966년에 일제강점기 당시 경찰주재소 자리에 새롭게 문을 열게 된다. 아래 사진은 당시 신축 낙성을 축하하는 사진이다.



다. 대포항개발사업소

1998년에 속초시는 행정구역 통폐합을 진행

하였다. 이 때 옛 도문면 지역이었던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은 대포동으로 통합이 된다. 통합동의 동사무소가 도문동사무소로 정해지면서 옛 대포동사무소는 용도가 사라진다.

2003년부터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 및 해양관광·레저·휴양 등 복합어항 기능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포항 개발사업이 시작되었다.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대포항개발사업소가 만들어지면서 옛 대포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하였다.

2013년에 대포항개발사업이 준공되면서 현재 건물은 비어있는 상태이다.



V. 앞으로 해야 할 일

대포는 우리 지역 근대화의 시발점이다. 기항지인 대포항을 통하여 근대문물이 들어왔고, 속초 최초의 근대적 초등교육이 시작되었다. 옛 대포항개발사업소는 1919년 4월 천 여 명의 군중이 모여 만세운동을 벌였던 역사적 현장으로 지역 독립운동의 상징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100년 전 이곳에서 우리보다 앞서 사셨던 분들은 자기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여기고 민족의 자주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한 몸 희생하셨다.

그 덕에 우리는 지금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편안히 살고 있다. 앞선 간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속초만세운동 선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 지역 만세운동의 시발점이 된 대포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를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기념사업회는 독립운동의 의의를 살리고 선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 국내 독립운동 관련 기관과 교류를 통하여 독립운동 활동과 결과물을 공유하고 연구함과 동시에 다양한 문화활동(전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연계, 융합, 재생산의 틀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할 것이다.

둘째, 사실에 기반을 둔 속초만세운동의 재현이다. 1919년 3월 1일 서울을 시작으로 하여 일어났던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확대되어 속초지역에서는 1919년 4월 5일에 일어났다. 속초시는 2019년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비록 늦었지만 6월 22일에 속초사잇길 걷기 행사와 연계하여 당시 만세운동이 벌어졌던 옛 순사주재소 자리인 옛 대포항개발사업소 앞에서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2020년부터는 4월 5일에 속초만세운동 행사를 가질 계획으로 있다. 공연과 기념행사만이 아니라 1919년 만세시위를 재현하여 만세운동의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만세운동 기념행사가 해마다 진행될수록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포의 명성과 어우러져 독립운동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일조를 하게 될 것이다.

셋째, 속초만세운동에 관여했던 분들의 독립유공자 추가 발굴과 이들의 후손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 자료와 증언들을 찾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 독립운동 자료가 모인다면 재현

행사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민족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00년 전 울려 퍼졌던 대포만세운동에 대한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 옛 대포항 개발사업 자리가 독립운동의 역사적 상징공간이자 기억의 장소로서 의미를 축적하게 되면 지역의 역사 인문 콘텐츠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역의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하는 것은 지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길이다. 대포는 20세기 초 영북지역의 관문이자 독립운동의 산실로서 상징적인 공간이다.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는 공간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다.

※ 참고자료

- 춘천헌병대본부 편, 『강원도상황경개』, 1913.
- 조선헌병사령부·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 『조선소요사건 일람표』-강원도-, 1919.
- 『每日新報』1919. 5. 3.
- 『判決文(高等法院)』, 1919.10.11.
- 『倭政時代人物史料』
- 『雪樵公碑文』, 1979.
- 『李錫範公 抗日獨立運動紀實碑』
- 경찰청, 『身分帳指紋源紙』
-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제2권 -삼일운동사(상), 1971.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3권, 1987.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10권, 1993.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16권, 2006.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17권, 2009.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제5집.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제14집.
- 국사편찬위원회,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 양양군, 『양주지』, 1990.
- 속초시, 『속초시지』, 1991.
- 속초문화원, 『속초의 근·현대사』, 2004.
- 조동걸, 『3·1운동의 역사』, 역사공간, 2016.
- 양양문화원, 『양양 3·1만세운동사』, 2019.
- 속초문화원, 『맨 몸으로 일제에 맞서다! 속초만세운동<초등·중등용>』, 2019.
- 속초문화원, 『속초의 시작, 대포항을 기억하다』, 2019.

신포마을 갯배선착장 일대 리모델링하자

이수영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속초관광의 심장, 신포마을 갯배 선착장 일대 리셋해야 관광객 대상으로 현장에서 하루 2회 속초사자놀이 공연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황소광장을 거쳐 닿는 곳이 중앙동 갯배선착장이다. 이곳에서 갯배를 타고 건너면 신포마을 갯배선착장이다. 청호동 아바이마을과 동명항을 잇는 설악·금강대교가 지붕 역할을 하고 있는 신포마을 갯배선착장 일대는 누가 봐도 가지런히 디자인되지 않고 어수선하다. 우선 가장 눈에 거슬리는 장면은 플렉스 간판으로 만든 사진 전시판이다. 사진 내용이 이곳 마을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진을 담은 틀이 너무 조악하다. 그 장소에 맞는 사진들을 공모하거나 기존 속초사진 공모전에서 수상한 사진들, 청호동의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는 옛 사진 등을 아기자기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 측면에서도 아쉽다. 설 치만 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흉물이 된다. 요즘 첨단 전시기법들이 다양하다. 관광객들의 시선을 오래 끌 수 있는 전시물들이 필요하다.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이곳 신포마을에 지역의 문인들이 쓴 관련 시들을 신포해변을 포함해 관광객들의 동선을 따라 땅에다, 벽에다 조형물에다 넣으면 자연스레 이곳의 이야



속초사잇길 안내자가 해설하는 뒷면에 플렉스 간판의 사진이 보인다.

기가 이해될 것으로 본다. 시, 그림, 사진, 음악 등 지역의 종합예술이 망라된 곳이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신포마을 다리 밑 종합예술 시설물 설치 시급

요즘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대구 근대로 산책길의 경우 각 코스마다 대구 근대사를 집약한 사진과 벽화, 전시관 등이 변화가 골목에 배치돼있다. 사진과 벽화도 그 골목의 주제에 맞게 스토리텔링해 관광객들의 동선을 이끌고 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건 깔끔한 디자인이다. 과학계 붙이지도 않으면서 시선을 잡는 구도 배치가 특징이다. 경상감영, 청라언덕, 약령시장, 김광석 거리, 남산동 등 골목골목마다 오랜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고택, 근대 건축물 등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여행자들이 찾고 있다.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것도 대구 근대로 여행의 매력이다. 이렇듯 신포마을 다리 밑도 그 동네와 어울리는 주제와 디자인을 설계해 좀 더 체계적인 구도 배치가 절실하다고 본다.

관광객 대상 우리 고유 콘텐츠로 현장 공연도 모색해야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김동순)가 9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속초사잇길 아바이마을길과 청초호길에서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드라마틱 강원만들기 '속초사잇길 1일 투어'를 총 9회 실시했다. 현장에서 관광객을 모집해 속초사잇길 안내자와 동행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서울 단체관광객 80여 명이 9월 21일 '속초사잇길 1일 투어'에 관광버스 2대로 속초관광수산시장에

집결, 중앙동 갯배선착장에서 갯배를 타고 줄을 당겨 넘는 체험을 했다. 이들이 신포마을 갯배 선착장에 당도하자 속초사잇길 안내자가 마을 소개를 했다. 이어 속초축제위원회에서 준비한 속초사자놀이

길놀이가 이들을 맞았다. 길놀이로 도착한 신포마을해변 공터에서 신명나는 사자놀이가 한마당이 펼쳐졌다. 동네 사람들은 물론 인근 백사장에 있던 관광객들도 모여들어 순식간에 300여 명의 관객이 속초사자놀이 연희에 흠뻑 빠졌다. 서울에서 온 단체관광객들은 이구동성으로 환호작약했고 관광지에 와서 이런 대동놀이를 처음 경험해보았다고





속초사자놀이 연희



속초사자놀이 길놀이로 두 마리 사자가 관광객을 공연장으로 안내하는 모습

감격해했다. 감동을 줘 다시 찾게 만드는 관광, 구전으로 자신의 경험담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관광홍보, 바로 이런 것이 환류 가능한 관광이다. 억만금을 주고도 달성하지 못할 효과가 아니겠는가. 북청사자놀이의 내부 분란으로 서울에선 거의 공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 속초사자놀이란 이름으로 재탄생한 이 연희가 실제 시연되었던 곳에서 연중 공연이 이뤄진다면 관광효과가 클 것이다. 시립풍물단이 이원화하거나 갯마당을 통해 상설공연하게 하면 좋을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고유 콘텐츠를 현장에서 관광에 접목한다는 것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향후 옛 속초수협과 갯배, 신포마을, 아바이마을로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묶는 핵심적 사업으로 종합예술이 전면에 드러나야 할 것이다. 연극도시답게 속초의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구성한 연극도 현장에서 상시 유료 공연하는 시스템 말이다. 그래야 속초문화도 살고 예술인들도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계의 전문가들이 작가와 작품, 게시장소 등을 선정하도록 해 적재적소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 게시, 안내자가 시한수를 읊으며 이곳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센스까지 갖추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시간이 걸리지 않는 ‘내기 경기’ 시설(사행성 게임은 배제) 설치도 고려해볼직하다. 다리 밑 공간에 ‘내기 경기’ 시설이 설치되면 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내기 경기’ 종목으론 스포츠 스테킹, 킨볼, 핸들러, 투투볼, 츠크볼, 네트볼 같은 뉴스포츠와 비석치기, 여우놀이, 문 놀이, 얼음땡, 달팽이, 닭과 너구리, 반지놀이, 투호, 딱지치기 같은 전래놀이들이 있다.

최근 관광 트렌드에 비춰볼 때, 갯배를 타고 신포마을이란 곳에 와서 해변 백사장 투어와 먹거리에만 매몰되기보단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공연이 어우러진 속초만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관광지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그 핵심 공간이 바로 다리 밑 공간이라고 본다.

속초문화

문화예술진흥사업 전담할 '속초문화재단' 설립

장재환 (설악신문 편집국장 /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속초시의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전담할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이 2020년 2월 출범한다. 현재 비상임 이사와 감사 선임을 마쳤고, 직원은 공채과정 중이다. 오는 1월 10일경 창립 발기인 총회를 거쳐 도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으면 설립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고, 2월 안으로 창립식을 열 계획이다. 창립 발기인 총회에서는 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재단 정관과 제 규정 심의 의결, 설립취지문 채택, 2020년 사업계획 승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속초시는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문화예술진흥정책의 추진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이 향상되고, 정부 등이 진행하는 각종 문화예술 공모사업에도 현재보다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4년에 제정됐다.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

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으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해 놓았다.

속초문화재단 조직과 사업

속초시는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앞서 타당성 용역과 문화예술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 제정을 마쳤다.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1월 5일 속초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에 따르면 재단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속초시 축제기획 및 평가 △문화예술행사 기획·운영·지원 △지역문화 유산 보존·육성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 및 문화복지 증진 위한 위탁 또는 대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속초문화재단 조직은 이사회를 두고 재단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과 경영지원팀(2명), 문예진흥팀(3명), 공연사업팀(2명) 등 3개 팀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임원은 이사 7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됐다. 이사장인 시장과 행정복지국장이 당연직 이사, 기획예산담당관이 당연직 감사를 맡는다. 나머지 이사 5명과 감사 1명은 공모로 신청을 받아 임원추천위원회가 심사 및 추천한 인사를 시장이 임명했다. 초대 비상임 민간 이사는 김종현 전 속초양양교육장(시인), 최재도 강원도립극단 이사(극작가), 정봉재 속초예총 회장, 송은희 평창문화예술재단 합창단 음악감독, 배민철 속초축제위원회 이사가, 감사는 최진철 세무사가 선임됐다.

직원은 내년 2월초까지 채용을 마칠 계획이다. 경영지원팀 2명은 공무원이 파견되고, 사무국장(4급)과 문예진흥팀 3명, 공연사업팀 2명은 공채로 뽑는다. 모집 공고를 내 지난 12월 24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았으며, 2020년 2월초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속초시가 구상하고 있는 팀별 주요업무를 보면, 문예진흥팀은 문화정책연구개발과 문화사업 개발 및 시행, 공모사업 기획 및 지원, 문화예술창작사업,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사업 등을 담당한다. 공연사업팀은 지역콘텐츠 기반 문화사업 발굴 및 개발, 거리예술제 및 버스킹, 브런치 콘서트, 공연·행사·전시 등을 맡는다.

재단은 설립 후 고유사업 외에 문화도시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도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고유



지난 12월 3일 공연한 속초시립풍물단의 열두 번째 정기연주회 '명태'의 한 장면.



극단 파람불이 지난 13~14일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연극 <그날, 그날에>를 공연했다.

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도시 조성으로 문화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문광부는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문화도시의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부합하는 4대 정책목표는 △지역 사회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이다.

대규모 시설 조성계획이 아닌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을 지원하고, 중앙 주도, 관 주도의 상의하달식이 아닌, 지역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출발하는 문화정책을 지원한다.

속초시는 2018년 문화도시사업에 선정됐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매년 7억 5,000만원씩 총 37억 5,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다. 시의 주요 사업내용은 도시문화 아카이빙 브랜드 사업, 시민 제안 및 공모형 문화활동사업, 지역문화 창의 인재 육성사업, 도시문화 네트워크 구축사업, 문화 도시 허브 활성화 사업, 문화 기획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속초문화재단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시는 2020년 본 예산에 문화재단 설립기본재산 3억원과 사업비와 인건비 등 운영재산 3억 2,600만원 등 총 6억 2,6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했다.

재단 사무실은 속초문화예술회관 별관에 문화도시사업 거점공간과 함께 마련해 놓았다.

속초문화재단에 대한 기대와 전망

속초문화재단이 이제 곧 첫 발을 내딛는다.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 어떤 기대와 전망을 하고 있을까.

한 문화예술전문가는 “속초는 도시생성의 역사가 짧지만 예술활동이 활발한 도시이다. 관광도시인만큼 문화콘텐츠에 대한 고민도 많은 편이다. 하지만 여전히 문화환경은 열악하다고 말한다. 연극이나 국악은 전국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평가도 좋지만 전문예술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구조이다. 시민의 생활문화거점 공간도 없고 중간지원 조직도 약하다. 이 같은 환경은 문화예술에 대한 중장기 전망 없이 단기지원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문화재단은 조직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만들 수 있는 조직이라고 의미를 뒀다. 내외부 전문가와 시민을 문화와 예술로 이을 수 있고, 정책의 개발과 실천을 통해 문화예술 전반의 활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일자리에 있어 사회적 경제가 중요하고, 도시의 관광이 주민의 일상적 문화의 힘에서 나오며, 지역 콘텐츠가 지역 경쟁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했다.

문화재단이 기존 문화원이나 예총, 민예총 등과 어떤 협력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이 상승되거나 반감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아울러 “문화재단 내부의 역량강화도 중요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옥상옥이라는 관료화의 유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직관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단위 비전보다 속초 전체의 통합적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축제를 하고, 시의 위탁사업을 진행하는

인근 인제군과 강릉시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지원서 문화시설 대관까지

도내 18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성과 양양군, 삼척·동해·태백시는 설립을 추진 중이다. 도내 시·군 문화재단의 경우 조직규모가 크고 사업내용도 문화예술기획 및 지원뿐 아니라 문화시설 대관까지 다양하다.

인근 인제군은 지난 2009년 8월에 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인제군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공연 기획 및 영화상영, 문화예술교육, 전시·축제 기획·운영 외 복합문화공간인 인제 하늘내린센터를 비롯해 한국시집박물관, 여초서예관, 인제산촌민속박물관, 박인환문학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부서는 경영지원팀, 시설관리팀, 문화사업팀, 축제사업팀, 공연사업팀 등 5개 팀을 두고 있다. 직원은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을 비롯해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강릉문화재단은 1998년 11월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이란 이름으로 처음 설립됐다. 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상임 이사가 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상임이사과 인턴을 포함해 모두 34명이 일하고 있다. 올해 1국, 2부(기획경영부, 문예진흥부), 5팀(기획홍보·경영지원·문화사업·문화교육·문화도시팀), 4개 시설로 조직을 개편했다. 시설은 명주예술마당, 임당생활문화센터, 작은공연장 단, 강릉문화도시사무국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강릉커피축제, 문화도시 지정사업,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강릉국제영화제, 지역문화예술포럼과 함께 문화시설 대관도 하고 있다.

속초문화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이 지난 여름 엑스포장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및 전시·발표회에서 노래교실 수강생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것에 머무른다면 기존 조직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화재단 사업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과정을 아카이빙하여 차년도 사업에 다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속초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가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는데 든든한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



속초 관광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안

-리모델링 개관 1년을 맞은 속초문화예술회관,
현재 그리고 향후 방향성을 중심으로-

이대영 (속초시 속초문화예술회관 담당)

가. 속초문화예술회관의 연혁

속초문화예술회관은 재일동포 황칠복씨가 1977년 4월 3일 7천만 원을 희사하여, 현재의 문화예술회관(회관동) 위치에 342석 규모의 회관을 건축하여 ‘일북문화관’으로 칭하면서 속초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일북문화관 옆 부지에 연 200평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려 하였으나, 건립비 1억 9천만 원 중 국가지원비 9천만 원이 내시되지 않아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미완공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자 건립대책을 논의 끝에 현대식 시설을 갖춘 신(新) 문

화회관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속초시가 문화원 소유의 일북문화관과 건립 중 방치된 도서관을 기부·체납 받아 특별교부세 2억 원과 시비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총 사업비 24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1986년 12월 22일 공사를 착공, 4년여간의 공사 끝에 1990년 10월 10일 속초문화회관 개관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과 행사를 개최하면서 영동북부지역의 문화예술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준공 이후 25년 이상 경과되어 건물 및 각종 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열악한 관람환경과 공연유치가 어려운 점 등 시설개선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2017년 국비 20억, 특별교부세 7억 원과 시비 48억 4천만 원의 총사업비 74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2018년 10월까지 공연장 내·외부 시설 등 속초문화회관 재설비(리모델링)를 실시하여 2018년 11월 6일 ‘속초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변경, 재개관식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사기간 동안 별관에 위치한 전시실과 소강당은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지만, 대공연장은 사용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 리모델링 기간에 한해 음향과 조명시설을 확충한 강원진로교육원 대강당을 사용하여 공연과 행사를 치렀다.

나. 시설규모

속초시 번영로 155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속초문화예술회관은 총 부지면적 7,364㎡에 회관동 2,988㎡, 별관동 1,456㎡ 등 연건축 면적은 4,444㎡이다.

이 중 회관동은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당초 750석의 대공연장과 부대시설이 있었고, 2007년 7월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4억 5천만 원으로 공연장 객석 의자 교체 및 화장실 등을 보수하였으며 당시 편안하고 안락한 관람 공간을 제공하고자 관람석을 588석으로 축소하였다가 2018년 리모델링

사업 시 출입문에 맞춘 이동통로 및 편리한 객석 배열 등을 고려한 설계로 장애인석 12석(휠체어 6석, 일반 6석)을 포함한 579석으로 축소되었다.

별관동은 관리사무실 및 문화예술단체사무실, 소공연장, 1전시실, 회의실(문화마루), 문화사랑방 등이 있으며 소공연장은 그동안 좌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적어 2007년 7월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실내인테리어 및 고정식의자 128석을 설치하여 세미나 및 작은음악회 등 소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문화사랑방은 92년 11월에 공사비 8천 3백만 원으로 별관동 3층에 증축하여 속초문화원에서 향토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교육의 장소로 향토문화학교,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어르신문화학교 등 다양한 문화 예술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시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했던 제2전시실을 문화예술회관 재설비(리모델링) 시 연계 정비하여 30인석 규모의 회의실(문화마루)로 전환함으로써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세미나 및 회의 등 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는 2020년 2월에 새로 건립될 속초문화재단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

[입주단체현황]

단체명	대표자	비고
속 초 문 화 원	김계남	무상 사용
속초축제위원회	이경우	유상 사용
한국예총속초지회	정봉재	유상 사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속초지부	박민효	유상 사용

[시설별 현황]

구 분	주 요 시 설(㎡)					비 고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문화원	
면적(㎡)	2,987.85	366.37	220.97	145.64	185.08	
규모(석)	1층429석, 2층 150석	128석	-	30석	-	



대공연장 실내

[2019년 시설별 운영현황 : 기획·초청공연, 공모사업, 대관 등]

구 분	계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비 고
건 수	115	53	48	14	2019. 11월 현재
일 수	174	64	48	62	
회 수	144	82	48	14	
관람인원	22,046	15,036	4,810	2,200	
수입액	30,306천원	25,147천원	2,911천원	2,248천원	

[2019년 시설별 운영현황 : 기획·초청공연, 공모사업, 대관 등]

○ 장르별 공연개최 현황

계	콘서트	연극	뮤지컬	국악	무용	오페라	다원예술	청소년	아동
17	4	3	1	1	1	1	2	2	1

○ 기획공연 추진상황 : 6개사업

(단위 : 천원/명)

구분	공연명	개최일시	주관	관람객수	사업비	비고
	합 계			3,489	212,545	
3월	팝페라 두번째이야기 "속초의 봄 콘서트"	03.22.(금)	송토피아	570	19,319	콘서트
4월	힐링연극"여보나도 할말있어"	04.19.(금) 04.20.(토)	극단 나는세상	450 400	32,300	연극
5월	속초시민의날기념,가수바다와 함께하는 "속초희망콘서트"	05.24.(금)	스카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600	44,000	콘서트
10월	속초시민과 함께하는 "찬란한 콘서트"	10.08.(화)	크로스오버심포니 오케스트라	579	56,556	콘서트
11월	페인터즈 히어즈	11.28.(목) 11.29.(금)	(주)펜타토닉	350 540	30,370	청소년
12월	뮤지컬 엄마까투리 "먹구렁이와 생일파티"	12.20.(금) 12.21.(토) (2회)	ES생활문화	-	30,000	아동

○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 5개사업

(단위 : 천원/명)

구분	공연명	개최일시	주관	관람객	사업비			비고
					합계	기금	시비	
				2,676	118,160	77,562	40,598	
6월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06.21.(금) 06.22.(토)	극단 오늘	480 410	24,700	14,820	9,880	뮤지컬
7월	판소리 오셀로	07.26.(금)	국립아시아 문화원	420	17,800	10,680	7,120	국악
8월	여름방학 청소년음악회 '2019 패밀리 클래식 디토 카니발'	08.23.(금)	(주)크레디아 프로젝트	550	30,200	21,140	9,060	청소년
9월	강석우와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	09.20.(금)	(사)서울콘서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526	36,460	25,522	10,938	오페라
9월	김계희 생황콘서트 '생(笙)의 노래'	09.28.(토)	김계희 밴드	290	9,000	5,400	3,600	다원 예술

○ 초청공연 : 6회

구 분	공 연 명	개최일시	주 관	비고
공연장 상주단체	연극 “고래”	05.01.(수) 05.02.(목)	극단 파람볼	연극
경동대학교	러시아 예술단 초청공연	06.28.(금)	노보시비르스크 국립대학	다원예술
정기공연	연극 “월화”	07.17.(수)	강원도립극단	연극
공연장 상주단체	“혼자가 아니다 시즌2”	09.18.(수)	극단 파람볼	연극
앵كل 초청공연	“아바이”	11.01.(금)	강원도립무용단	무용
공연장 상주단체	“그날, 그날에”	12.14.(토) 12.15.(금)	극단 파람볼	연극

* 취소 : 강원도립극단 연극 (4월) (산불) / KBS국악관현악단 (4월) (산불)
8군단 초청콘서트 (7월) (북한어선 남하)

다. 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

지난 2017~2018년 2년여에 걸쳐 최고 수준의 음향과 무대시스템 설치, 편안하고 안락한 관람석 배치, 연주자와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 마련 등 관객을 배려하는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연중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수준 높은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선보이고 있다.

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

지금까지 속초문화예술회관은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선보임으로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 목말랐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사각지대 및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였다. 또한, 맞춤형 기획공연을 제공하여 문화 향유 기회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속초시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정서와 기대에 부합하는 공연

기획부터 효과적인 홍보, 편안한 관람까지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여 앞으로도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첫째,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2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뮤지컬, 국악 (판소리, 전통악기), 패밀리클래식, 오페라, 갈라콘서트, 연극 등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발굴하



액션페인팅 공연모습



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화 향유와 수혜 방식의 다양화이다. 청소년, 중장년층, 부부, 모녀, 부자, 어린이 등 연령·세대를 대상으로 상황에 맞는 테마별 기획 및 초청공연, 예컨대 5월은 가족의 달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콘서트를, 6월은 호국보훈의 달에 맞는 엄숙한 연극을, 12월 연말은 미취학 아동과 부모가 함께 볼 수 있는 어린이 연극 등 특정내용 혹은 타깃을 대상으로 준비한다면 보다 더 폭 넓은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소외·특수계층 초대이다. 지역문화생

활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계층에게 관람 기회를 부여함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여야 한다.

넷째, 문화예술회관 내 상주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공연단의 활용이다. 상기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시로 소통하여 예술단체와 공연단이 가진 역량을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선보임으로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불어, 단순히 공연장에서 관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 작품과 관객이 서로 만나 함께 호흡하며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다.

문화예술회관 재개관 이후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여 공연관람이 여가생활로 이어져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도 조직과 인력을 계속 확충하여 타 시군과 차별화된 격조 높은 공연 발굴과 연령별 맞춤형 기획공연 등을 더욱 확대하여 시민의 문화 욕구를 책임지는 전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다. **속초문화**

“속초 연극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절실” 속초 연극인 대담

- 속초 연극의 과거, 현재, 미래 -



일시 _ 2019년 10월 30일 오후 1시

장소 _ 속초문화예술회관 극단 파람불 사무실

대담 정리 - 이광호 (설악신문 기자,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대담자

최재도 작가

남상진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장

김일태 극단 청봉 사무국장
(연극협회 속초지부 수석부지부장)

김강석 극단 파람불 공연팀장
(연극협회 속초지부 부지부장)

남호섭 소울씨어터 대표

이다은 속초시 문화체육과 주무관(참관)

이광호 (사회)

※ 사진 촬영 : 박동하(청봉사진회)

지난 10월 30일,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훌륭한 성과를 내온 속초 연극에 대해 얘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는 현재 속초 연극의 중추 역할을 하는 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속초 연극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해 짚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지면을 통해 속초 연극인들의 대담을 중계한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속초 연극인의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속초 연극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보는 자리입니다. 오늘 속초의 연극인은 다섯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남상진 - 네 연극협회에서 최재도 작가님을 비롯, 각 극단을 대표해, 극단 청봉 김일태 사무국장, 극단 파람불 김강석 공연팀장, 소울씨어터 남호섭 대표가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김일태 국장과 김강석 팀장은 연극협회 속초지부에서 각각 수석부지부장과 부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회자 -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극단도 있지요?

남상진 - 속초 연극인들의 인준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극단 하나'와 '하늘천망지'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극단 하나는 올해 곧 인준을 받을 예정이고 하늘천망지는 내년쯤 인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들 극단을 제외하고는 오늘 다 참석했습니다.

최재도 - 오늘 속초 연극의 현역들은 왔는데 원로들은 오지 못해 아쉽습니다.

사회자 - 원로들이 오셔서 과거 속초 연극의 흐름에 대해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속초 연극의 현재 상황과 미래 나아갈 바를 얘기해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쟁 이후 공연이 활발했던 속초

최재도 - 속초 연극의 과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악신문에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문서를 가리키며) 바로 이 글입니다. 속초 연극사라고 할 수 있죠. 속초 연극은 193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전쟁 기에는 연극인들에 대한 처우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연극만 할 줄 알면 학교 교사가 될 수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6·25동란 때 부산까지 간 피난민들이 이전에 연극을 했었다

고 하면 학교 교사로 임용되기도 했습니다.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보용 연극을 장려하던 때이기 때문이죠.

그 당시는 연극이 민심을 안정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관청에 문화공보실이 있었는데 시청의 문화 관련 업무는 곧 공보를 의미했습니다. 영사기 들고 다니면서 주민들 계도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여겼지요. 전시의 문화공보실 업무는 확성기 들고 다니면서 주민들을 안정시키는 선무공작이 주 임죠. 이런 배경에 따라 연극인의 위상이 지금과는 달랐던 겁니다.

전쟁 이후 실향민들이 속초에 대거 정착했는데 당시 북에서 활동하던 연극인들이 속초에서 천막극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초에서 연극 공연이 아주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제가 1977년부터 라디오 드라마를 썼는데 그때 서울에 가니까 피난 때 속초에 살았다는 원로작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름깨나 들었던 가수들이 여기 속초의 악극단에 상주하면서 활동했습니다.

이후 공백기를 가진 후 약장수들이 나타나 공연을 하고 다녔어요. 약장수들이 커다란 씨커스단 천막을 쳐놓고 연극을 하면 밤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마치 TV연속극을 하듯이 아슬아슬한 장면에서 극을 끝내고 그 다음날 다시 연속극처럼 이어서 공연을 하는데 그게 보름 정도 계속됐어요.

남상진 - 그게 몇 년도예요?

최재도 - 내가 초등학교 때니까, 1960년대 중반쯤 돼요. 그렇게 공연을 하면서 막간에 약을 판 거죠. 아슬아슬한 순간에 무대 전환을 위해 막을 내려요. 그리고는 바람잡이가 막 앞으



최재도 작가

로 나와서는 약 선전이 시작돼요. “가래침 나오는 사람, 허리 아픈 사람…….” 만병통치약이죠. 관객들은 극을 보며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공연을 보여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낀 상태에서 약장수가 약을 들고 오면 신뢰가 가요. 약장수가 외치는 병명은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해당돼. 허리 아픈 사람, 다리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약을 먹고 효과를 봤다는 감상문을 써서 제출하면 그 약을 한 병 더 줍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땐데, 아줌마들이 글을 모르니까, 제가 감상문을 괴발개발 써주면, 아주머니들이 그걸 가지고 가요. 그러면 약장수가 “중앙동 사는 000 씨 어딴습니까? 네, 저기 계신 000 씨가 효험을 봤답니다.” 그런 식으로 외치면서 약을 보름 정도 팔아요.

그렇게 ‘약장수연극’에 고무돼서 학생연극이 나와요. 이반 선생이 이런 식으로 연극을 접하게 되고 학교에서 커튼 뜯어가지고 막을 만들고 무대를 연출하면서 어설피지만 학교연극이 시작돼요. 그래서 학예회 때 공연을 하는 거죠. 일

제강점기나 전쟁 때에는 여자들이 무대에 서질 못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장을 하고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김강석 - 여배우가 귀해서 남자들이 여장을 한 거겠죠? 여배우를 못 쓰게 한 건 아니었겠죠?

최재도 - 여성 전문인 여성국극단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마 여배우를 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장규호 선배 등이 주력이 되어 여러 편의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서라벌 예대 출신의 신원하 선생이 국어 교사로 부임해 오면서 학교 연극을 적극 장려하여 속초 연극이 크게 성장하죠.

김일태 - 속초가 수복지구이지 않습니까? 자료를 검토해 보면 속초 1구 영랑동 쪽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가 들어온 거 같습니다. 그 당시 1950년대 초에 속초에 재즈다방을 비롯해 다방이 많이 있었습니다. 속초문화원 엄경선 향토사연구위원이 수집한 자료를 보면 당시 간판에 '흑인들 재즈음악을 한번 느껴보세요.'라는 광고 문구가 보이더군요. 고복수의 다방도 속초에 있었습니다.

남상진 - 고복수 씨의 다방은 영랑동에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70,80년대 속초 연극사의 인물들

김일태 - 속초에서 연극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런 상황에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 약장수들이 와서 공연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장규호 선생에 대해서

는 그분이 연극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원하 선생이 1970년대 초에 속초에 부임하셔서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연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처음 시작하신 거 같아요.

최재도 - '떼아프르'라는 소극장을 운영하기도 했죠. 갯배 건너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김일태 - 거기서부터는 제가 잘 알죠. 80년대부터는 제가 잘 압니다. 속초연극협회가 생기면서부터는. 그 전 70년대 말까지는 신오일 선배의 말에 의하면 신원하 선생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동보극장(현대극장)에서 공연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남상진 - 신원하 선생, 이성선 선생 등이 자활 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신원하 선생이 연극부를 맡으셨고 공연도 했답니다.

김일태 - 1978년 속초에 청년문화연구회가 생겨요. 그게 지금의 예총과 비슷한 거예요. 당시 속초의 20대들이 모인 것이죠. 음악, 무용, 미술, 연극 등 7~8개의 장르가 모여서 각 분야별 회원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KBS에 근무하는 황찬건 씨가 주축이 돼 장규호 선배님 등이 그 단체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분들은 지금도 가끔 만나죠. 그런데 청년문화연구회가 무너지게 된 건 장규호 선배가 1983년 연극협회를 인준받기 위한 작업을 하면서예요. 청년문화연구회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전 미술 분야였죠. 공연이 있다고 하면 다양한 분야의 친구들이 같이 참여했어요. 어떤 이는 포스터를 그리고 누군가



남상진 한국연극협회 속초시지부장



김일태 극단 청봉 사무국장

는 인쇄물을 만들고 여러 분야가 협업했죠. 그러던 것이 연극협회가 인준을 받으려고 하면서 회원이 있어야 하니 청년문화연구회의 사람들이 관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연극을 하던 사람들은 연극협회 구성에 참여했지만 무용 등 다른 분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활동하지 않게 됐죠. 그러니까 연극협회가 생기면서 청년문화연구회가 없어진 거죠. 연극협회

가 생긴 초반에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연극협회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점차 그 사람들은 연극협회 활동이 뜸하게 됐죠.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속초 연극에 씨앗이 뿌려진 단계였고 속초 연극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80년대 초에 연극협회가 생긴 이후부터입니다.

최재도 - 초창기 연극협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조명은 전기기술자가 맡았고 분장은 미용사, 화장품 판매원이,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연극이란 이름 아래에 모였어요. 예술은 고도의 전문 분야잖아요. 초기에 문인협회, 음악협회, 미술협회는 학교 교사가 많아요. 당시에 속초에는 대학 졸업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피아노를 만져본 사람은 음악 교사밖에 없고, 물감을 칠해본 사람은 미술교사밖에 없었어요. 문인들도 마찬가지로였어요. 초창기 예술단체 회원들은 대부분 교사들이었죠.

김일태 - 음악, 미술, 문학 분야는 분명히 그랬죠.

최재도 - 그런데 연극은 각 계에 있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문성은 약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수용이 가능했어요. 청년문화연구회는 다양한 장르의 지망생들이 모였는데 연극이 견인차 노릇을 했죠. 연극 공연이 있으면 미술팀이 들어와서 세트를 만들어야 하고 문학 쪽은 포스터를 만들어 붙이라고 역할을 줄 수 있었죠. 청년문화연구회는 연극팀을 중심으로 유지됐죠.

신원하 선생, 장규호 선생, 김귀선 선생 등 인물들에 대해서만 정리해도 충분히 속초 연극사

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이반 선생은 거의 한평생 서울에 있긴 했지만 속초 연극에는 큰 기여를 했죠. 속초 연극의 중요한 레퍼토리들이 이반 선생의 작품이었습니다. 이반 선생이 희곡을 30여 편 썼는데 절반은 실향민 이야기이고 절반은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이반 선생은 실향민극이나 종교극의 대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반 선생은 속초 연극을 적극 지원했고 연극인들이 가끔씩 서울에 가면 밥을 사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반 선생은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씩은 어머님을 만나기 위해 속초에 내려왔습니다. 친구인 이성선 선생과 술도 마시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속초 연극을 들여다봤죠. 속초 연극인 박영미 선생이 결혼할 때에는 바쁜 와중에도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셨다가 식사도 못 하시고 바로 서울로 돌아가실 정도로 속초 연극과 속초 연극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속초 내부에서도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연극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김일태 - 속초에 연극협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저희가 가장 먼저 했던 작품이 이반 선생님의 <그날, 그날>이라는 작품이었어요. 1984년에 강원연극제에서 그 작품을 하고 1등을 못 하고 눈물을 머금고 한계령을 넘어오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사고가 나 차에서 하룻밤을 보냈죠.

최재도 작가 - 초창기 연극인들이 고생한 얘기를 하면 무궁무진해요.

김일태 - 이반 선생님이라는 좋은 작가님이 계셔서 <그날, 그날>이라는 작품으로 결국 강원도 대표로 전국연극제에 나가게 됐죠. 88년도

인가 89년도에 나가서 장려상인가 받고 장규호 선배님이 연기상을 받았어요. 80년대에는 장규호 선배가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장규호 선배는 연극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셨죠. 그런데 그때 전문적으로 연극을 배운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속초의 자랑인 김귀선이 서울예전을 졸업하고 속초에 오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작품을 하는데 연출을 맡게 됐죠. 그러면서 속초의 연극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남호섭 대표 같은 이들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뒷부분은 남호섭 대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최재도 - 최초의 연극 전공자 김귀선이 속초에 오게 되면서 속초 연극의 수준이 확연하게 높아 집니다. 장규호 등 선배 세대가 김귀선을 지원 해주면서 속초 연극이 크게 성장했죠. 90년대 들어오면 시립극단 설립에 대한 요구가 나옵니다. 제가 속초시 문화계장으로 근무할 때 시립극단 조례를 마련했어요.

속초 연극의 성취와 시립극단 설립 조례

김일태 - 조례가 나온 게 1991년입니다.

최재도 - 장규호 선배가 저한테 시립극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죠.

김일태 - 그때 파람불이 전국대회 가서 대통령 상을 받아와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남상진 - 진주에서 있었던 전국연극제였죠.

김일태 - 전국에서 크게 이슈화됐죠. 강원도



1985년에 청주에서 속초로 왔습니다 ... 그때부터 제가 연극 음악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초에 오자마자 연극에 참여하게 된 것이 어느덧 30년 ... 대중음악을 연극에 사용한 사람은 아마 제가 대한민국 최초일 거예요

속초에 연극 전공자도 없고 동네사람들이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느냐 하면서 놀랐죠. 그때 신문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시에서 조례도 제정될 수 있었죠. 근데 시립극단 얘기가 나온 지 몇 년째예요?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남상진 - 저는 시립극단이 당시에 바로 만들어 질 줄 알았어요.

최재도 - (속초에서 시립극단 조례가 제정된) 그 직후 전북 이리에서 잠시 시립극단을 운영하다가 말았어요. 도립극단이 있는 곳도 강원도를 제외하고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시군구 단위에서 극단을 운영하는 경우는 희귀하고 도 단위에서도 극단 운영은 드문 사례죠.

음악인, 미술가의 참여

남상진 - 제가 1985년에 청주에서 속초로 왔습니다. 청년문화연구회에 있던 정연태라는 분이 장규호 선배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장규호 선배를 만났는데 음악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듣고 그때부터 제가 연극 음악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초에 오자마자 연극에 참여하게 된 것이 어느덧 30년이란 시간이 지났네요.

초기에 제가 연극 음악을 하게 됐을 때 당시 연극인들은 연극 음악으로 서양 클래식이나 국악을 많이 사용했죠. 그런데 전 의문을 품었죠. 왜 연극에서 서양 클래식만 고집할까, 제 눈에는 이게 이상해 보였어요. 대중음악을 연극에

사용한 사람은 아마 제가 대한민국 최초일 거예요. 저는 팝과 가요를 사용했죠.

김일태 - 옛날에는 대중가요를 쓴다는 생각을 못 하고 음악을 쓸 일이 있으면 일일이 찾아야 했는데 음악을 모르는 이들이 이런 작업을 하기는 무척 힘들었어요.

김강석 - 요즘 유튜브로 음악을 찾는 것과는 비교가 됩니다.

남상진 - 예전에는 연극 음악으로 테이프를 활용했는데 공연이 한 번 끝나면 테이프가 30개나 됐어요. 테이프 하나에 모든 곡을 담으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하는 거죠.

김일태 - 그보다 더 전에는 일반 테이프가 아니라 릴테이프를 썼어요.

최재도 - 속초 연극의 음악과 미술은 수준이 상당히 높았어요. 공연을 올릴 때면 무대음악은 속초시립합창단 지휘를 맡았던 김명원 씨가 작곡을 직접 했었고 무대디자인은 박영근 작가가 맡았어요. 속초 연극이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런 전문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단순히 연기만 잘해서 발전한 게 아니죠.

남상진 - 박영근 작가는 지금도 자주 만나는데 박영근 작가는 자신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말을 합니다.

사회자 - 그럼 분야별로 한번 짚어볼까요? 무대음악은 80년대 중반부터 남상진 지부장님께서 맡으셨고 그럼 미술은 어떤 분들을 들 수 있

을까요?

최재도 - 무대미술은 방금 말했던 박영근 작가죠. 박영근의 작가의 아이디어는 정말 대단하죠. 바다에서 오징어를 잡는 장면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학예회처럼 종이를 오려서 만들 수도 없고. 장규호 선배하고 저하고 고심을 하는데 박영근 작가가 자전 거 튜브를, 바퀴 말고 타이어 튜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했는데 그래도 장규호 선배가 고물상 가서 타이어 튜브를 구해왔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 박영근 작가가 그거 가지고 오징어를 만들었어요. 튜브니까 돌돌 말리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걸 잘라서 오징어 색깔을 입혀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 공연할 때 툭툭 튀더라고요. 그걸 본 관객들이 “저건 진짜 오징어다.”라고 하더군요.

열정과 헌신 속에 커온 속초 연극

김일태 - 속초 연극이 1990년대에 전국연극제에서 대상을 받은 이후 연극 활성화 붐이 일어났죠. 그래서 연극 하는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후에 속초지부로 대회 출전이 불가능해지고 극단 단위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동극단인 굴렁쇠를 일반극단으로 바꾸는데 그 중심인물이 김귀선이었고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니까 한두 작품 참여했다가도 떠나는 이들이 많았죠. 굴렁쇠에 대해선 남호섭 대표가 잘 알고 있어요. 굴렁쇠는 2000년까지 장려상, 연기상 등 많은 상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도 들쭉날쭉하는 이들이 많았고 고정적인 사람은 적었어요. 연극이 돈이 되지 않으니 많은 이들이 붙어 있기가 힘든 거죠.

최재도 - 생계가 되지 않으니 전업으로 하진 못했지만 아마추어에서 프로의 시기로 간 것이 1990년대죠. 김귀선이 오고 전문음악인, 전문 미술인이 대거 공연에 참여하게 됐던 시기죠. 그런데 대부분의 연극인들이 연극을 직업화하진 못했어요.

김일태 - 대부분의 연극인들은 수입을 생각하지 않고 연극이 좋아서 했습니다.

남상진 - 열정이 없으면 못했죠. 단 하나 희망을 걸었던 것은 시립극단이었죠.

김일태 - 그런데 그 희망이 10년을 넘어가니 희망이 아니라 고문이 됐어요. 2002년에 속초 연극에 큰 변화의 조짐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연극협회 회원들과 이전에 협회에서 나간 이들이 오름이란 극단을 만들었습니다. 남상진 지부장도 저와 함께 오름을 만들었어요. 독립극단 예술부장 황헌중, 강릉에서 교사로 있는 유택민 등이 참여했죠. 오름을 만들고 목표가 굉장히 많았어요. 30명 정도의 단원으로 출발했는데, 우리는 협회 같은 곳에 가입하지 않고 오직 연극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름이 이후 협회와 통합하면서 사라졌죠.

사회자 - 협회는 극단과는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일태 - 오름은 연극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았죠.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연극인들이 협회 소속 연극인보다 더 많았어요. 그런데 협회와 오

름이 자연스럽게 합쳐지면서 2003년에 강원도 대표로 전국연극제에 나가서 금상을 받아요.

사회자 - 그럼 극단은 오름으로 나가신 걸까요?

김일태 - 굴렁쇠·오름 합동공연이었죠.

남상진 - 그게 <택시드리벌>이란 작품이었어요. 속초연극협회가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청소년연극제입니다. (김강석 부지부장, 남호섭 대표를 가리키며) 이 분들이 다 청소년연극제가 배출한 연극인들이죠. 그런데 이 힘이 계속 가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현실이죠. 연극협회는 보조금에 의존하는 단체이다 보니 보조금 때문에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김일태 - (김강석 부지부장, 남호섭 대표를 가리키며) 이 친구들이 있는데 걱정할 일이 없죠. 남호섭 대표는 어릴 적부터 연극을 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가면 속초 연극의 인물이 될 겁니다. (남호섭 대표에게) 2003년 그때가 몇 살이었죠?

남호섭 - 그때가 10대였죠.

김일태 - 남 대표는 2003년에 <택시드리벌>을 함께 했고 2004년 전국연극제에서 <날 보러 와요>를 하고 연기상을 받죠. 그때 속초 연극이 전국연극제에서 금상을 연달아 받았어요. <날 보러 와요>는 대통령상을 쥐도 될 만큼 잘했죠. 2006년 전국연극제에선 최재도 작가의 <붉은 훈장>으로 금상과 희곡상을 받았죠. 2000년대에 넘어오면 청소년연극제 출신들이 대거 대학



김강석 파람볼 공연팀장



남호섭 서울씨어터 대표

김강석 - 2000년대가 황금기이긴 했어도 여전히 연극인을 위한 환경은 좋지 못했어요

남호섭 - 시립극단이 생겨서 더 좋은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다면 속초를 떠난 연극인들과 현장에 거리를 두고 있는 연극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에서 연극을 전공하고 속초에 돌아오거나 전국 각지로 나가서 활동을 펼치게 됐죠. 2000년대는 속초 연극의 황금기였죠.

성취와 대비되는 속초 연극의 현실

김강석 - 2000년대가 황금기이긴 했어도 여전히 연극인을 위한 환경은 좋지 못했어요. 속초 연극을 60년대부터 봤을 때 속초에서 연극을 전업으로 하기가 힘들었죠. 저는 요즘 낮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이 돼야 연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실례지만 어떤 걸 가르치시죠?

김강석 - 연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럼 연극을 전업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요?

김강석 - 저는 연기를 전업으로 하길 원하는데 그렇게만 하기엔 어렵죠. 이런 상황이니 제 뒤로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 10년 뒤 속초 연극은 어둡습니다.

사회자 - 부지부장님 말씀대로 속초 연극이 거뒀던 성과에 비해 현실은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선 이론이 없을 듯합니다. 서울씨어터 남호섭 대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호섭 - 저는 연극이 어려운 상황을 두고 연극인들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극이 사회 안에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가 하는 반성이 필요합니다. 시립극단이 생겨서 더 좋은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다면 속초를 떠난 연극인들과 현장에 거리를 두고 있는



연극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이 갖춰지는 것을 논하기 전에 속초 연극인들 스스로 속초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속초 연극인들이 속초를 위해서 한 것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초 연극은 수많은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분에 넘치게 많은 상을 받았고 이것이 연극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시민들은 이를 모른다는 겁니다. 연극제가 바로 연극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자 - 연극제에서 거둔 성과보다 연극인들이 사회를 위해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남호섭 - 수상 실적은 연극인 스스로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립극단 설치를 위한 조례가 199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적지 않은 연극인들이 속초시를 원망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우리 연극인들이 연극제에서 성과를 낸 것 이외에 속초를 위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시대는 변해 가는데 우리 연극인들은 고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가 공중파 방송을 능가하는 시대에 현장예술로서 연극이 지켜야 할 가치에 충실한가 하는 의문은 늘 저를 고민하게 합니다. 시에서 지원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저도 극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속초시의 지원을 고려하지 않아도 연극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것과 연극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같습니다. 속초시는 관광객을 위한 콘텐츠 마련, 시민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예술 활동을 원하고 이는 연극인들도 해나가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를 탓하기 바쁩니다. 공무원들 때문에 안 돼, 예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 돼, 양보가 없어요. 주로 본인들의 애환만 얘기했습니다.

물론 속초시에 대해서도 지적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속초시에서는 ‘싸고 좋은 작품’을

만들길 원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취향보다 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 공직자의 요구에 맞아야 한다는 압박을 저희는 늘 받아왔습니다. 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한 명의 공무원이 한 부서에 오래 있을 수가 없는 점도 큰 애로사항입니다. 새로운 분이 오시면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김일태 - 저는 남 대표의 말에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속초 연극인들이 공연을 준비해도 관객들이 많이 오지 않는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외부 공연팀의 공연에는 많은 관객이 몰립니다. 외부 공연단을 초청하는 비용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팀의 공연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속초시가 속초 연극인들이 공연할 때 지원해주는 제작비는 매우 적습니다. 속초시에서 “그럼 너희가 먼저 나서서 기획서를 내고 추진을 해본 적이 있냐”고 묻는다면 저도 머뭇거리게 됩니다. 연극인들이 연극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자그마한 극장에서 장기공연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관의 지원과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김강석 - 속초시와 연극인들이 모두 좋을 수 있는 방법은 상설공연을 만드는 겁니다. 연극인들에게 속초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연극제의 성과가 바로 연극인들이 우리 속초를 위해 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과가 있기에 시립극단 창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립극단이 생긴다면 속초만의 특색이 담긴 이야기, 가령 청호동 실향민 이야기를 속초만의 콘텐츠로 만들 수 있겠죠. 시의 지원보

다는 개인이 먼저 해보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는 속초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직접 제가 개인적으로 나서서 해봤습니다. 극장을 운영해 본 결과 저의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회자 - 속초에서 연극은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김강석 -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감당이 안 되더군요. 저는 속초에서 ‘두드림극장’을 운영해본 적이 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1억의 빚이 생겼어요. 연극 제작을 위해 대출도 받았죠. 이런 경험을 통해 속초에서 연극은 개인적으로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적어도 속초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강원문화재단 등의 지원이 아니고서는 연극 제작이 어렵더군요.

김일태 - 제작비 지원이 절실한 것은 맞습니다. 속초시 문화체육과에서 연극 제작을 위한 예산이 없고 관광과에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속초시립풍물단이 있지만 시립극단에 대한 논의는 시립풍물단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혹자는 시립예술단을 만들어 무용, 연극 등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시립극단을 만들자고 하면 연극계에 특혜를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은 거 같습니다. 작품 만드는 것도 한 팀에 지원하게 되면 다른 팀들이 불만을 드러냅니다. 남호섭 대표가 얘기했듯이 속초 연극인들이 수상을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서울의 공연팀들이 공연할 때 사람들이 표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관심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무언가 잘못된 거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가 받을 환호를 빼앗긴 것 같죠.

남상진 - 속초의 문화 수준과 의식 수준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극만 보게 되면 예전에 멈춘 듯합니다. 연극만 있으면 안 되고 연극이 이뤄지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토대가 있어야 무언가 할 수 있지 토대가 없다면 무언가를 하기는 힘들죠. 토대가 없는데 속초 연극인들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란다면 무리한 얘기겠죠.

사회자 - 연극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우선 소극장이 필요하겠고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남상진 - 꼭 연극만을 위한 건 아니고요. 김일태 선생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연극 분야에만 지원한다면 타 분야에서 문제 삼을 수 있어서 고민이 필요한 문제인데, 제가 지부장으로서 바람이라면 시립극단이 시급합니다. 시립극단이 생기면 소극장은 따라올 수 있겠죠.

연극인들이 고민할 점들

남호섭 - 소극장이 없다면 공연이 어렵긴 하죠. 근데 저는 시민들을 저희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초에 소극장이 만들어지길 원한다면 소극장은 더 빨리 만들어질 수 있겠죠. 저는 버스킹처럼 개인이 거리에서 할 수 있는 공연도 하고 있어요.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시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사회자 - 그 얘기는 연극을 위한 인프라를 요구하기 전에 연극인들이 먼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일 때 시민들이 연극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런 관심이 속초시를 움직이게 해서 연극인들의 현안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씀이네요.

남호섭 -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외부와의 교류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극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야깃거리도 서울과 지방이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진 이 시점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왜 속초의 연극을 찾아야 하는지 설득력을 갖춰야 하는데 저희 연극인들도 설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무언가 나은 게 있어야 하거든요. 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류가 필요합니다.

사회자 - 속초 내부의 다양한 분야와 활발한 교류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타 지역 연극계와 교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남호섭 - 내부의 활발한 교류는 너무도 당연한 거죠.

남상진 - 외부와의 교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재도 - 저는 남호섭 대표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서울에서 온 공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속초의 연극은 그렇지 않은데 이는 그들의 질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공짜로 봅니다. 흥미진진한데 무료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드라마는 공짜인데도 사람들이 안 봅니다. 왜?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것에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들이기 아까운 거죠. 공연을 보려면 지정된 시간에 가서 기다리다가 기침소리도 못 내고 불편한 자세로 앉아서 봐야 합니다. TV드라마는 누워서 볼 수 있는데, 내가 내 돈을 내고 내 시간을 들여서 공연을 보러 간다고 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상품은 물건을 사기 전에

잘 따져 보고 사지만 연극은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공연을 보고 난 다음 돈을 지불하는 감동후불제도 있지만 연극은 어쨌든 일단 봐야 알 수 있죠. 재미가 없다면 돈과 시간을 낭비한 셈이죠.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안 오게 되죠. 어설픈 연극을 무대에 올리면 그것은 관객을 쫓아내는 겁니다. 남호섭 대표 말대로 우리 연극인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감동을 주든가 정서적으로 기여를 하든가 정보를 주든가 뭔가를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예술인들에게 지원금을 주면 그다음부터는 정산보고만 간섭할 뿐이지 다른 간섭을 못해요. 공연의 질은 간섭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다른 기관의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은 평가관을 보내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지원의 근거로 삼습니다. 문예진흥원에서는 관객이 표를 사면 표값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천만 원을 준다면 그



이다은 속초시 문화체육과 주무관과 최재도 작가

냥 주는 것이 아니라 관객 천 명을 동원해야 받을 수 있죠. 그럼 극단에서는 적극 홍보를 해서 관객을 유치합니다.

연극인들이 시 지원을 받으려면 시민한테 기여를 해야 해요. 공연을 위한 공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공연을 한 번만 하고 마는 거죠. 반면 서울에서는 극을 올리면 몇 달씩 하곤 해요. 영화나 드라마는 한 번 찍으면 더 이상 연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연극은 이와는 달리 매번 연기를 계속 해야 하죠. 더블캐스팅을 해서 상설공연을 하는 거죠. 우리도 상설공연장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학여행단이 오면 낮에는 관광을 하고 밤에는 공연을 보여주는 사업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극인들이 시의 지원을 받되 연극인들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기여했나 생각해야죠. 그리고 공연을 하나 만들면 최소한 1주일씩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게 높은 수준의 공연을 해야 합니다. 아까 남호

섭 대표가 얘기했듯이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극인들이 나서서 시도해 보는 거죠.

남상진 - 원래 버스킹은 기획공연이 아닙니다. 가난한 음악인들이 즉석에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기획하고 미리 예산을 세워 하는 것은 버스킹이 아니죠. 올해 특히 속초에서 야외 기획 공연이 많았는데 이 역시 토대를 만들기 위한 기획이었고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공연장이 필요한 공연예술 단체들을 위해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호섭 대표의 말은 그것을 위한 토대가 있다면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하기는 힘듭니다. 시민들한테 기여를 안 했다? 왜 기여를 안 해요. 연극이 속초의 위상을 얼마나 많이 높였는데요. 그게 왜 기여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단지 요즘 상황들, 눈에 보이는 관객 수만으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속초시가 속초 연극의 투자자가 돼야

김강석 - 100석, 150석 정도의 서울 대학로 소극장 뮤지컬 제작비는 4억 원 정도입니다. 근데 성공을 해도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소극장 뮤지컬 중에 대표적인 작품으로 <김종욱 찾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작품이 단기간에 제작비를 충당하고 수익을 내기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장기공연을 진행하고 매진이 이어졌는데도 말이죠. 그다음 연도에 다시 상연을 할 때 비로소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TV드라마도 재미없다고 외면 받는 시대에 연극은 재미있어야죠.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들은 “연극은 메시지를 줘야 해, 연극은 진부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 같네요. 그리고 “연

극을 왜 돈 내고 봐야 해.”라는 인식도 있는 거 같고요. 저는 상업적인 작품을 많이 하다가 속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는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대가 있어야 합니다. <라이어>라는 작품은 1년에 수십억 원을 벌어드립니다. 1년 내내 매일 공연하고 전국을 돌며 그런 수익을 올리는 거죠. 연극을 만들 때 초기 자금이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할 수는 없어요. 개인이 어렵기 때문에 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배우들의 노력도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겁니다. 5,000만 원 들었는데 관객으로 7명이 와서 앉아 있었다면 제가 시장이라도 돈이 아까울 겁니다. 세트비만으로 5,000만 원 들었을지언정 배우들의 출연료로 다 나갔나 생각할 수도 있겠죠. 관객이 많이 들어오고 재미난 연극을 하려면 제작비가 중요하죠.

사회자 - 그럼 <김종욱 찾기> 같은 작품은 어떻게 제작비를 마련한 거죠?

김강석 - CJ라는 대기업이 투자했습니다.

남상진 - 세계 유수의 스포츠 명문구단을 예로 들어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구단들은 성인 구단만 있지 않고 유소년 구단을 운영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유소년들을 훌륭한 선수로 육성시키듯이 속초시가 속초 시민들을 위해서 예술단체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석 - <김종욱 찾기>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들의 졸업작품이었습니다. 저희에게 투자자는 속초시청이 될 수 있겠죠. <김종욱 찾기

가 10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창출했지만 처음에 CJ한테 팔 때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CJ가 계속 공연을 유지하면서 100억짜리 상품이 된 건데 만약 한예종 출신들이 그 작품을 계속 맡았다면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긴 힘들었을 겁니다.

사회자 - 그런데 속초는 그런 투자를 하나갈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김강석 - 그런 의미에서 속초시를 얘기한 겁니다.

사회자 - 속초시가 대도시의 투자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일태 - 저는 예전부터 생각했던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중국 청도에 갔는데 여행사에서 공연을 봐야 한다고 해서 중국말도 모르는데 뮤지컬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청도가 개항이 될 때부터의 역사를 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보여주더군요. 이런 작품을 만든다면 연극인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을 만드는 것에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좀 더 쉽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강석 - 중국 어딘가에는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낮에는 농사를 짓다가 밤에는 공연을 하는 거죠.

남상진 - 그런데 그건 상설극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 되는 토대가

깔려 있어야 하는 거죠.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극장 운영

사회자 - (김강석 부지부장을 향해) 죄송한데 아까 극장을 운영한 일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이 공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강석 - 하나부터 열까지 개인이 혼자서 해야 합니다. 극단 대표나 기획사가 안고 가는 도박 중의 도박이죠. 처음 여기서 극장을 지을 때 소방 법규도 몰랐어요. 그래서 속초시청에 갔더니 속초시 문화체육과 직원 분들 중에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없더군요.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극장 등록증을 받아야 하는데 서로 모르니 시청 직원 분들도 공부하고 저도 공부한 끝에 등록증을 0001번으로 받긴 받았어요.

그래서 극장을 운영하게 됐는데 저는 배우만 하다 보니 기획력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홍보전단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절망한 적이 있습니다. 전단을 받은 분들이 전단을 보고서는 “이거 보면 밥 쥐?”, “이걸 돈을 내고 보라고?”라며 저에게 묻더군요. 제가 시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극장은 갯마당도 대관을 하고 다른 연극 단체도 대관을 해서 꾸역꾸역 운영을 하기는 했는데 3년째 됐을 때 운영이 어려웠어요. 극장을 운영하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매달 200만 원이 나가요. 월세, 전기료, 관리비 등등이 드는 거죠. 극장 조명이다 보니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도 전기료가 수십만 원씩 나와요. 제가 낮에 학

교 수업을 나가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극장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4년째 접어드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극장 운영을 하지 않으면 나 혼자 먹고 살 수 있겠다는. 아니나 다를까 극장을 그만두니 생활이 더 나아졌어요.

대극장 공연을 보면 극장이 넓은 게 단점일 수 있습니다. 소극장 공연은 배우들의 숨소리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생동감이 있습니다. 저는 관객들에게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저의 시도가 시기상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느낌이 있는데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관광객 등에게 좋은 작품을 보여주려면 거기에 어울리는 배우가 있어야 하고 무대장치도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야 속초시와 속초 연극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을 겁니다.

김일태 - 그래도 김강석 부지부장이 소극장을 운영한 덕분에 적지 않은 시민들이 소극장의 매력을 알게 됐을 겁니다. 대극장은 멀리서 봐야 하니 느낌이 덜하죠. 그런데 소극장은 바로 앞에서 보니까 대극장과는 다르죠. 김강석 부지부장이 기여를 많이 했죠. 그런데 본인은 빛을 많이 졌어요.

남상진 - 제가 30년 동안 연극계에 있었는데 왜 관객들이 극장을 안 찾고 멀어졌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인프라 문제를 접어들 경우 먼저 드는 생각은 우리가 잘못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연 시 성의가 부족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관객들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선을 다했는지 성찰을 해야 합니다. 예전엔 그러지 않았습디다. 예전엔 문화회관에서 연극을

하면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회자 - 그때가 언제죠?

남상진 - 1980년대죠.

김강석 - 최재도 선생님께서 TV드라마를 두고 하신 말씀이 마음 속 깊이 와닿습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 학교에서 연극을 보러가라고 수업을 일찍 끝내주면 출석 확인을 위해 공연장에 가서 도장만 받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연극이 그리 재밌게 느껴지지 않았습디다. 그때가 90년대 초반입니다. 연극을 할 때 작품 선정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람들이 연극을 재미있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극인들이 사람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속초 연극이 나아갈 길

사회자 - 현재 예정됐던 시간이 다된 관계로 이제 대답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얘기를 더 나누면 좋겠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자리를 다시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럼 참여자들이 정리 발언을 한 마디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호섭 - 저는 속초 각 극단별 고유한 강점을 살린다면 속초의 연극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청봉은 직장인들이 연극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퍼포먼스가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울씨어터는 실험정신이 강한 연극을 추구하는 특색이 있고 청소년과의 활발한 교류도 소울씨어터가 가진 장점이지요. 파람볼은 대한민국연극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

습니다. 따라서 각 극단이 특색에 맞게 시민들에게 다가간다면 속초 연극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속초 연극은 과거보다 나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속초 연극에 밝은 미래가 올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연극인들이 들으시면 아픈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속초 연극에 애정을 가지고 한 것이라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강석 - 현재 파람불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저희 파람불은 내년에 코미디를 콘셉트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관객들이 연극에 쉽게 다가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 영화 한 편 보자”라고 말하듯이 “야, 연극 한 편 보자.”라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미디로 관객들에게 편하게 다가가서 속초에서도 줄서서 연극을 보는 광경이 펼쳐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 혹시 내년에 단발성 공연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공연이 이뤄지는 걸까요?

김강석 - 내년에 장기공연은 힘들고 공연 횟수를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주말에 걸쳐 2,3일 정도, 아니면 첫째 주, 셋째 주 이런 식으로 격주에 한 번씩 한 달 정도 할 수 있게끔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김일태 - 저는 지부장님께서 줄곧 얘기하셨던 토대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연극의 토대는 연극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올해 시장님께

서 소극장 개설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극장 개설은 기존 건물을 활용한다면 비용이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소극장이 어서 생겨서 한 달 이상 가는 장기공연도 이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열흘에서 보름 정도 하면 작품이 좋을 경우 입소문을 듣고 오는 관객들이 많아질 겁니다. 김강석 부지부장이 만들었던 소극장은 서울의 소극장에 견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시설을 갖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은 개인이 만들기엔 부담이어서 단체나 기관이 만들기엔 큰돈이 아닙니다. 대극장은 200명이 와도 사람이 많이 온 거 같지 않지만 소극장은 80명만 와도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극장에서 열흘 정도 공연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겁니다. 보통 공연문화를 즐기는 사람은 인구의 2% 정도입니다. 속초 인구 8만에서 2%는 1,600명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속초에는 1%, 800명도 되지 않아 보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연극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선 토대가 필요합니다.

최재도 - 인프라라는 게 공연장이죠. 소극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리고 인적자원도 중요합니다. 속초는 인적 인프라가 다른 지역보다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청소년연극제가 속초에서 시발이 돼 그 덕분에 속초에 좋은 연극인들이 나올 수 있었죠. 소공연장만 확보된다면 속초의 재능 있는 많은 연극인들이 자생력을 갖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재미라고 하는 것은 코미디적인 재미가 아니라 연극적 감동, 연극에서만 볼 수 있는 감흥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면 당연히 관객은 늘어날 수 있겠죠. 속초

사자놀음의 연기 부분에 연극인들이 참여한다든가, 속초에서만 볼 수 있는 실향민 연극 등 레퍼토리 공연도 찾고 새로운 시도도 하고 타 장르와 연계하고, 이런 복합적인 시도를 하면 속초 연극계에 길이 열릴 거라 생각합니다.

이다은 - 저는 실무자일 뿐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속초시가 연극인들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는 제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또래 중에 문화생활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에게 제가 속초에서 진행되는 공연 표를 준다고 해도 그리 반기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은 주로 서울로 가는 실정입니다. 올해 <고래> 공연을 할 때에도 친구들에게 표를 주려고 했더니 별 반응이 없다가 <고래>가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공연을 할 거라고 하니 그제야 관심을 드러내더라고요. 저도 문화체육과에 오기 전에는 속초 연극이 이렇게 대단한지 몰랐습니다. 수상 실적이 많은데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아쉽습니다. 오늘 대답을 하면서 연극에 있어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상진 - 저희가 강원연극제가 끝난 이후에 공연을 하려고 해도 공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속초문화예술회관이 있지만 미리 예약을 해야만 해서 쉽지 않습니다. 보조금으로만 보면 다른 단체에 비해 속초연극협회가 받는 지원은 적은 편이 아닙니다.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주는 식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개척해나갈 방식이 필요합니다. 토대가 갖춰지기까지 속초시의 지원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회자 -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



이다은 속초시 문화체육과 주무관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번의 대답으로 크게 바뀌지 않겠지만 계속 이런 목소리들이 쌓일 때 변화의 기운이 형성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속초 연극인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초문화**

옛집

이은자 (한국소설가협회 회원, 갈매 동인, 영동수필 동인)

나는 어디 가서 속초가 고향이라 말한다. 태어나고 여덟 살까지 자란 곳은 함경남도 홍원이지만 6·25 동란 중에 남으로 가솔을 테리고 피난 온 부모님이 떠돌다 닳을 내린 속초가 제2의 고향이 되었다. 지금 양친은 속초 청대산 기슭 양지바른 언덕에 북향으로 합장묘에 누워계신다.

북에서 어부였던 사람들은 속초서도 어부로 살 수 있었다. 책상물림 우리 아버지는 가솔들 챙겨 동문들이 손짓하는 서울에 이사할 결심 하여 집도 팔고 짐을 다 주렸다. 그때 어찌 알았는지 모를 일이 생겼다. 지프차 한 대 우리 집에 왔다. 물치에서 15사단이 창설되는데 문관이 돼 달라는 청을 받았다.

‘서울 가서 성공하면 뭐하나, 북진하는 군을 지원해서 속히 고향땅을 밟는 게 맞는 일이지.’

아버지는 망설이지 않고 승낙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급회전으로 이미 남의 소유가 돼 버린 집에 방 한 칸 세 들어 살게 되었다. 우리가 속초 사람이 되는 단초였다. 당시엔 명태와 오징어, 콩치 잡이가 성시였지만 뱃사람이 못 되는 아버지로선 피난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신분을 보장받아 식솔을 건사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었으리라.

나는 속초초등학교 3학년을 시작해 속초고등학교를 졸업, 서울로 진학하면서 속초를 떠나 살다 45년 만에 고향이라, 낙향이라며 돌아왔다. 새 파란 청춘

으로 떠났던 고향, 60여세 초로에 돌아왔다.

친정집이 있고 옛 동무들이 있어서 고향은 언제나 따뜻했다. 일 년이면 한두 번씩은 왔다 가곤했다. 어느 해인가 한 해에 일곱 번씩이나 다녀간 적도 있었다. 그럴 적엔 그다지 몰랐었는데 정작 짐을 싸가지고 아주 이사하고 본 속초가 변해도 너무 변해 있었다.

참으로 낯설기 까지 했다. 흐드러지게 휘돌던 소야천은 직선으로 좁은 수로에 갇혀 개울이 돼 있었다. 부월리 마을 어귀에 있던 나지막한 동산은 통째 사라졌다. 청초호 물가, 새들이 즐지어 내려앉던 얇은 물가는 시멘트나 견치석으로 벽을 쌓아, 찰싹대는 속삭임이 없이 깊고 푸르게 넘실거렸다.

논산리, 온정리 마을은 귀퉁이만 남았다. 죄다 부영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었다. 나도 부영아파트 6블록 작은 칸에 짐을 풀었다. 13층 아파트의 고층에 자리한 내 집, 베란다 앞엔 솔이 울타리 돼 있어 맘에 들었다. 암 수술 후 회복중인 나에게 안성맞춤이었다. 하루 두세 번 30분 정도 걷기엔 적당한 위치였다. 아파트 단지로 내주고 남은 자투리땅에 옛날부터 붙박이로 살아온 토박이들 몇 집이 있어서 아파트에 사는 것이 답답하지만은 않았다. 토박이들 집은 양철지붕, 초가지붕이 아니었다, 붉은 벽돌로, 2층 양옥을 새로 짓고 사는 것이다. 부영단지 바람에 그네들은 큰돈을 손에 쥐게 됐다. 농토라 해봐야 겨우 연명하고 자식들 중에 한두 명만 상급학교 진학을 감당하던 이들이 좋은 세월 만나서 살 만하게 됐구나 싶어서 나는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했다.

서울 살이 하면서 나는 내내 속초가 궁금하고 걱정되었다. 그 흔하던 명태, 오징어, 콩치는 다 누가 움켜 갔기에 바다가 메말라 돈도 메말라 간다는데, 어업에 매달려 살던 나의 친구들, 어르신들의 사는 형편이 늘 그랬듯이, 일기예보에 유난히 귀 기울이게 되었다. 동해바다에 풍랑주위보가 뜨면 속초 어부들이 안녕하기를 빌며 지냈다.

2003년 4월, 내가 속초 살이를 시작하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옛 동무들이 나를 불러낼 때 지목하는 장소를 알겠기에 택시를 탔다. 기사 눈치가 이상했다. 어느 새 목적지에 닿고 있었다. 이런 거리에 웬 택시? 또 어떤 날엔 가깝다 여겨 걸어갈라치면 길은 옛날 그 길이 아니라 가도 가도 멀기만 했다. 아차, 속초는 지형, 지세까지 모두 옛날의 그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속초를, 내 고향을, 새로 배우고 익혀나갔다.

나는 아침, 저녁 하루 두 세 번씩 산책을 나갔다. 100미터, 300미터……. 이렇게 시간과 거리를 조금씩 늘려나갔다. 어느덧 청대산 기슭까지 갈 수 있었

다. 마을 한복판에 개울이 있다. 청초호에 들어가는 지류 중 아마도 제일 좋은 수질이지 싶었다. 개울 저편에 외딴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낯설지 않는 그 집에 관심 집중, 웬일인지 자꾸 마음이 그 집에 끌렸다. 혹여 중학 시절 내 동무 김OO의 집이란 생각에 꽂혔다.

외딴 집이었다. 개울을 훌쩍 뛰어 들어갔었다. ㄱ자 집이었다. 집 뒤엔 산이 있었다. 산에는 대나무와 소나무가 울창했다. 산 쪽으로 꺾어진 뒤편, 골방이 내 동무 김OO 방이었다.

몇몇 날을 살펴봤다. 보면 볼수록 그 집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생겼다. 한 가지 미심쩍은 것은 ‘온 동네가 다 새로 잘 지은, 붉은 벽돌 양옥인데 왜 그 집만 저토록 폐가로 있는가?’ 하는 대목이었다. 내 동무 김OO의 집이라면, 그 애 아버지는 마을에서 내로라하는 집채를 유지, 농사도 웬만하지 않았던가? 그런 분이 동네가 다 변하는 동안 당신 집만 저토록 폐가로 두고 가셨단 말인가?

나는 밭일을 거들며 지내고 있던 노파에게 그 집을 물어보게 되었다. 그 집 딸애 중에 곱고 영특해서 중학교에 다녔던 김OO가 있었다는 것과 그 집이 저렇게 남아 있는 내력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내 동무 김OO 집이 틀림없다고 확실한 답을 얻고, 더욱 눈여겨 살폈다. ㄱ자로 골격은 견고하게 옛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문짝이 너털너털, 문풍지가 바람결 따라 펄러덕, 서까래가 아무렇게 내려 지르고, 뜰 안엔 풀이 듬성듬성 마치 TV 화면에서 납량특집을 볼 때 연출되던 귀신 나올 것 같은 흥가 그 대로의 모양이다. 한 발짝 훌쩍 뛰어넘던 개울이 깊은 수로에 갇혀 세차게 흐른다는 것, 손수레 하나 드나들 만한 시멘트 다리가 놓여있는 게 달라진 것이다.

집 가까이 가보면 좋으련만 그럴 수 없었다. 다리 근처에 인기척이 느껴지면 개 짖는 소리에 놀란다. 한두 마리가 아니다. 한 마리가 짖어도 움칠한데 수십 마리, 모두 식용으로 덩치가 큰 개들이 한꺼번에 짖는 소리는 그야말로 울부짖음, 발악이다. 사람이 하루 두 번 먹이를 주러 왔다 가거나, 창살을 두른 차가 와서 성난 불안에 악이 받힌 개 몇 마리를 신고 간다. 한 번씩 소동이 일면 앞·뒷산에 메아리로 마을 안이 온통 아비규환, 온 동네가 그 집을, 그 개들을 저주하고 혀를 찬다. 남들이 존경하던 김OO 아버지의 집이 어쩌다 저주하는 장소로 변해있단 말인가. 아버지 세대는 모두 저 세상 가고 없다 한들 그 집 자식들은 왜 그 따듯했던 보금자리를 저렇게 질시의 장소 되게 놔두고 있는 건지.

우리가 중학생 시절, 동무 김OO네 집은 참 근사했다. 농사도 많이 지었다. 그 당시엔 봄, 가을마다 농번기 휴교란 제도가 있었다. 농어촌인 속초엔 철따라 고양이 손까지 보탠다는 말이 있을 만치 일손이 딸렸다. 모든 생산수단이 수작업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 부대가 화천지역으로 이동해 가는 까닭에 부대를 따라 화천 파포리로 이사했다. 그때만 해도 화천엔 중학교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나만 홀로 속초에 남겨졌다. 그 당시 교통 사정으로 농번기 일주간에 파포리 집까지 다녀오기란 빠듯했다. 나는 그 동안을 김OO 집에 가 있게 되어서 참 고마웠다. 내가 돕는 일손이 고양이 손만큼은 한다면 동무네 부모님이 반겨주셨다. 봄엔 감자를 캐고 씨알 따라 분리해 담아서 공간에 들이는 일, 논에 모내기 할 때 동무를 도와 못밥을 짓고 나르고, 못줄을 잡는 일을 거들었다. 강낭콩을 까고 새끼 꼬기도 그 시절 동무 집에서 배웠다.

밤이면 뒷산에서 들리는 소리, 댕잇이 솔잎과 부비며 일으키는 소리가 파도소리 같기도 하고, 때론 으스스 무섭기도 했다. 날이 새기도 전에 온갖 새 소리에 잠이 깬다. 나는 논산리를 떠올리면 참 따뜻했고 아련했었다. 고향에 돌아와 살 집을 논산마을 부영 6 블록으로 정한 것도 그런 아련함이 끌렸던 것 같다. 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벼락부자가 돼 있다. 부영단지가 그네들 논밭을 값지게 쳐주었고 평생 애써도 만져보지 못했던 큰돈을 당장에 받아 안게 만들었다.

노파가 내게 알려주는 논산마을, 특히 내 동무 김OO네 집 이야기는 참으로 쓸쓸한 말이었다. 그 집 대주는 큰아들만 대학까지 공부시켰다. 딸 중에도 내 동무 김OO만 겨우 중학 물을 먹었고 나머지 자식들은 그저 그럭저럭 출가시켰다. 부영단지에 들어간 논밭으로 받은 큰돈 이 문제였다. 당시 우리네 아버지들은 누구라 없이 집안을 떠받칠 장손, 즉 맏아들에게 그 돈 거의를 들여 도시로 올려 보냈다. 그 일에 반기를 든 여타 자식들이 떼로 몰려왔다. 아버지의 처사에 대놓고 비난했다. 그동안 차별받은 한을 털어냈고, 세월이 변했으니 모두에게 균등하게, 아니 큰오빠는 대학공부 시켰으니 자기들이 더 많이 가져야 한다며 옥신각신, 결국 부모 자식 간, 형제지간에 이각났다. 그 일로 서로 간 밭길을 끊었다.

지금 아버지 집 근처 대부분의 땅을 부치는 사람은 막내아들이다. 내가 보기에 그는 누구보다 성실한 농꾼이다. 한뼘 자투리땅도 놀리지 않고 씨를 넣는다. 봄 되면 동네서 제일 먼저 쟁기를 든다. 그런 막내가 아버지 생존해 있

을 때에 한 짓은 참으로 슬픈 일이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옛말이 그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었다. 형제들이 발길 끊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집엔 고집으로 늙어간, 병든 아버지만 홀로 살았다. 결국 아버지가 부치던 땅을 막내가 맡게 됐고, 막내는 공부 못한 한을 땅에 풀었다. 어느 해 늦가을, 막내는 농사지은 것 중에 쌀 한 말을 아버지에게 가져다주는데, 집안 쌀독에 부어드리지 않았다. 괘씸한 아버지에게 그렇게까지 친절하기 싫었다. 다리 초입에다 털썩 내던지다시피 쌀 한 말 자루를 던져놓고 돌아섰다. 아버지는 불편한 몸을 질질 끌며 쌀 한 말을 한숨에 들어 올릴 힘이 없었다. 자루 아귀를 열고 양푼으로 덜어내서 봉지에 담고, 그렇게 해 저물도록 옮겨갔다고, 노파는 팔십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사람이라 눈앞에 선하다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돈. 돈이 사람들을 망가뜨린 한 예에 불과하다. 논산리, 온정리에 뭉치돈 때문에 이각나서 남처럼 살고 있는 가정이 내 동무 김OO네 만이 아니란 사실을 점점 더 알게 됐다.

나는 내 동무 김OO가 흑여 속초에 오지나 않을까, 만날 수도 있으리라 기대했다. ‘마을 뒤에 있는 부모님 산소 성묘는 오리라, 막내 남동생 아이들, 즉 조카들 잔치엔 오겠지.’ 내 기대는 아직 진행형이다. 15년이란 세월, 짧지만은 않건만, 버려진 옛 동지는 스산한 채 그대로 있고 동무의 소식은 접할 수 없다.



이은자
한국소설가협회 회원
갈매 동인
영동수필 동인

속초의 젊은 예술인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임효건 공연국장

**“일상 속에 살아 숨쉬는
놀이를 꿈꿉니다.”**

이광호 (설악신문 기자,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갯마당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악연희단이다. 갯마당은 1992년에 창립한 이후 수많은 국악인들이 거쳐 갔다. 속초시립박물관에 상주하며 상설 공연을 갖는 속초시립풍물단도 갯마당을 모태로 한다. 갯마당은 공연 외에 직장인과 학생 등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지역에서 국악을 배우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역에서 풍물 연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갯마당은 박치영 대표 등 선배 세대의 노고에 큰 영향을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어느덧 50대가 된

박치영 대표는 30년 세월에 걸쳐 풍물 연희의 활성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의 헌신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30년에 가까운 갯마당의 역사에서 선배 세대 못지않게 후배 세대의 역할 또한 이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갯마당을 더 꼼꼼히 파악하려면 후배 세대의 역할도 짚어봐야 한다. 갯마당 후배 세대 중 두드러진 이가 임효건 연출국장이다. 그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 3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 어느덧 20년의 세월을 갯마당과 함께해 왔다. 잠깐의 방황도 있었지만 그는 이내 돌아와 갯마당을 지켰다.

가위바위보에 저서 듣게 된 사물놀이부

임 국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임 국장이 풍물 연희와 인연을 맺게 된 과정이 흥미롭다. 20여 년 전 중학생 임효건은 특활 시간에 사물놀이부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독서부를 희망했으나 독서부의 인기는 생각 외로 컸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로 학생 각자가 갈 곳을 정하기로 했는데 운 없는 임효건 학생은 가위바위보에 졌고 독서부는 그렇게 물 건너가 버렸다. 그리고 그는 계속 가위바위보에 지기만 했고 그렇게 결국 인기 없는 사물놀이부로 배정됐다.

사물놀이부에 들어간 임효건 학생은 당시 사물놀이가 네 가지 악기로 하는 줄도 몰랐다. 사물놀이부 첫날, 악기를 하나 고르라고 해서 그는 멋모르고 장구를 선택했다. 그런데 그때의 선택은 이후 20년 넘게 한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무언가가 돼버렸다.

본인이 원해서 들어가지는 않았어도 그는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던 성격이라 사물놀이부에서 선생님이 시키는 것들을 잘 따랐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된 임효건 학생은 다

시 특활 부서를 정할 때 사물놀이부가 아닌 다른 곳을 원했다. 하지만 이때에도 바람이 이뤄지지 못했다. 사물놀이부 담당 교사가 1학년 때 사물놀이부였던 학생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다시 사물놀이부에 들게 했다.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무던한 학생은 자신이 다른 곳을 찾는 수고를 덜어주는 교사가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자신을 원하는 이가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론 기뻐다.

중학교 2학년 겨울 그는 인생에서 전기를 맞았다. 집이 갯마당 사무실 근처로 이사를 갔고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국악연희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 갯마당을 찾았다. 이때 그는 자신의 담당으로 박치영 사부(현 갯마당 대표)를 만나게 됐다. 갯마당에서는 스승을 ‘사부’라고 부르는데 이는 현재에도 지켜지는 갯마당의 전통이다.

스무 살 전후의 방황

갯마당에서 여섯 명의 사부를 만난 중학생 임효건은 어느새 국악인의 길을 걸으리라 마음을 먹게 됐다. 그리고 갯마당에서 선후배들과 어울리며 감수성 어린 청소년끼리 고민을 나누며 국악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이어갔다. 그런데 임 국장은 고등학교 3학년이 돼 진로를 고민하면서 슬럼프에 빠졌다. 언제까지나 갯마당의 친구들과 함께하고픈 마음이 컸던 임 국장은 누구나 각자 자신만의 진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일종의 진로고민을 심하게 겪었다. 그러나 임 국장은 갯마당 식구들의 관심과 배려로 이내 위기를 넘기고 강원대 무용과로 진학했다.

무용과는 풍물 연희의 특성상 무용의 요소가 필요하기에 사부들의 권유로 선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다. 한국 무용의 방식은 풍물 연희에서 몸을 쓰는 방식과는 차이

가 있었다. 풍물 연희를 더 잘하기 위해 선택한 무용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듯 여겨지자 임 국장은 과감하게 대학 중퇴를 선택했다. 그러나 이때 무용과를 포기한 일을 임 국장은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 그때 무용과를 다니면서 배웠던 것이 이후 풍물 연희자로서의 길에 쓸모가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이후 임 국장은 세 개의 대학을 더 거쳤다. 강원대 중퇴 후 임 국장은 자신이 본업으로 삼으려는 분야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중앙대 타악연희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한 학기만 다니고 학교를 떠났다. 임 국장이 학사 과정을 마치게 된 것은 군대를 다녀온 후의 일이다. 그는 제대하고 나서 갯마당 생활과 학업을 병행했다. 우선 온라인대학을 거쳤고 한중대학교 한국음악과에 편입해 동해를 오가며 어렵게 공부한 끝에 비로소 졸업장을 받았다.

군대 가기 전 갯마당 생활은 궁핍했다. 월급은 30만 원이었고 풍물 연희 교육을 통해 적은 수입을 보충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임 국장은 갯마당을 잠시 떠난 적이 있었다.

갯마당과 풍물 연희가 싫은 것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변화를 원하는 시기였다. 그는 한 회사에 취직해 입대 전까지 일했다. 하지만 여전히 갯마당 사람들과 어울렸고 주말이면 그즈음 창당한 속초시립풍물단 비상임 단원으로 출근해 풍물 공연에 나섰다.

갯마당으로 돌아오다

임 국장은 입대 후 사단 군악대에서 복무했고 휴가 때면 갯마당을 찾았다. 당시 갯마당은 선배 세대가 대부분 속초시립풍물단으로 떠나고 없었고 단원들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간 상태라 사무국장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임 국장은 갯마당의 이런 상황을 보고서 제대를 하면 갯마당으로 복귀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는 제대 후 갯마당으로 돌아와 30대 중반을 넘긴 지금까지 갯마당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다.

2008년 제대 후 갯마당으로 돌아온 임 국장은 2010년에 사무국장을 맡게 됐다. 전임 사무국장이 결혼을 하면서 관두자 임 국장은 자연스럽게 사무국장 자리를 물려받은 것이다. 그런데



당시 임 국장은 사무국장 역할을 하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임 국장은 풍물 연회에 중심을 두고 활동을 하던 터라 사업 정산 등 사업 운영이 벅찼다. 그리고 임 국장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민속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데다가 나이도 아직 20대라 사람들에게 은근히 무시를 당하기도 해 힘든 날의 연속이었다. 사무국장 생활은 1년 반 동안 했는데 돌아켜 보면 임 국장은 자신의 인생에서 그때가 가장 바쁜 시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때 사무국장을 한 경험은 지금 임 국장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사무국장을 하면서 과거 문서들을 뒤지며 사부들의 꿈을 알게 됐고 사무 처리에 대한 지식도 쌓았다.

임 국장은 이후 사무국장을 후배에게 넘기고 공연팀장을 맡았다. 임 국장이 군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갯마당이 공연보다는 교육을 위주로 돌아가고 있었다. 구성원들이 교육을 하다 보면 서로의 일정이 맞지 않아 공연을 잡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변화가 생긴 것은 갯마당이 ‘런갯마당’ 체제로 변화되면서이다. 2012년 갯마당의 특별사업단인 ‘런갯마당’이 2014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하나의 실험이었던 ‘런갯마당’

사회적기업 런갯마당이 출범하자 갯마당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기업 구조로 가면서 부서별 전문성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공연팀은 부차적인 작업들을 사무국에 맡기고 창작과 공연에 중점을 두게 됐다.

악기 구성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기존엔 전통적인 풍물 연회를 고수하는 분위기였다면 그때부터는 아쟁, 해금, 건반악기도 활용하는 공연이 자리를 잡아 지금 갯마당의 공연 형태를 갖

추게 됐다.

런갯마당이 된 이후에는 공연 홍보에도 보다 적극적이었다. 런갯마당의 최종현 대표는 런갯마당을 우리 지역, 강원도만이 아니라 전국에 알리기 위해 각 지역 문화사업 담당자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갔다.

런갯마당은 파격적인 조직이었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회사들은 상명하복으로 관료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보통이지만 런갯마당에서는 대표부터 말단까지 평등한 분위기가 있었다. 대표와 신입직원의 급여도 같았다.

이런 변화를 바탕으로 런갯마당은 외형적으로도 커졌다. 한때 대표를 포함한 상근자가 14명까지 이른 적도 있다.

그러나 런갯마당에는 긍정적이거나 혁신적인 면만 있진 않았다. 런갯마당이 생기기 전에는 공동체 의식이 강했는데 런갯마당은 이런 면이 약화됐다. 새롭게 런갯마당의 직원이 된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갯마당의 ‘식구’가 아니라 ‘직원’으로만 여기는 듯이 행동했다. 전문성 강화는 좋았지만 업무분장에 따라 자신이 맡은 일이 아니면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도 생겼다. 이에 따라 한가한 이도 있었고 바쁜 사람도 있어 업무량 분배가 공평해 보이지 않았다. 중학생 때부터 갯마당의 일원이었던 임효건 국장은 이러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누구보다도 공동체적인 분위기를 지향하던 임 국장은 구성원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가지지 못한 것에 상심이 컸다.

런갯마당은 2018년 말 폐업했다. 망한 기업들이 그렇듯 허약한 재무구조가 원인이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을 동안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런갯마당의 재정적 형편은 악화됐다.

문화 커뮤니티 ‘갯마당’

이제 갯마당은 런갯마당이 생기기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갯마당에 상근하는 사람은 박치영 대표와 임효건 국장 두 명이다. 임효건 국장은 공연이 있는 날이 아니면 매일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갯마당을 지킨다. 어떤 날은 서류 작업에 매달리다가 새벽에 들어갈 때도 있다. 그는 매일 풍물 교육을 진행하면서 강원문화재단 등 공적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특히 장시간의 서류 작성 때문에 임 국장은 연습 시간을 갖기 힘들 정도라고 한다. 이런 일이 계속 되면서 임 국장은 차라리 정시에 퇴근이 가능한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퇴근 후 악기 연습에 몰두하는 것이 자신의 전문성 향상에 더 좋은 것이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

현재 갯마당의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지만 임 국장은 지금의 갯마당에 충분히 만족한다고 한다. 임 국장은 갯마당이 문화 커뮤니티의 역할을 하길 바라는데 임 국장이 보기엔 갯마당이 현재 이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갯마당에서는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다양한 이들이 국악을 배우고 있다. 갯마당의 직장인 풍물패 ‘흥사랑’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자발적으로 활발하게 모임을 가진다. 악기를 배운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응 일색이다. 어떤 이는 우울증이 치료됐다고도 한다. 임 국장은 이런 이들을 볼 때면 자신의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

임 국장은 20대 시절부터 여러 작품을 연출해 오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축제>이다. 임 국장은 피난민을 비롯해 여러 지역 출신이 많은 속초의 특색에 착안해 이 작품을 만들었다. 그는 속초가 융합과 화합의 도시

가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작품에서 남과 북, 그리고 여러 지역 출신들이 어우러지는 축제를 꿈꾸고 있다. <축제>는 풍물놀이와 기악 연주, 상모놀음 외에 사자춤, 그리고 탈놀이의 연극적 요소도 담겨 있다. 남한의 대표 민요 아리랑, 북한의 대표 민요 돈돌라리가 울려퍼지고 사자놀음의 역동적인 무대가 뒤를 잇는다. <축제>에서 압권은 공연의 마지막 부분 풍물놀이의 장이다.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보는 풍물놀이는 또 다른 느낌을 자아낸다. 강한 조명을 반사하는 꿩과리와 징, 이와 어우러지는 북과 장구는 주술적이다. 무대 위에서 울리는 강한 리듬은 풍물과 국악을 잘 모르는 사람도 가슴이 뛰게 할 만하다.

“창작도 연습도 공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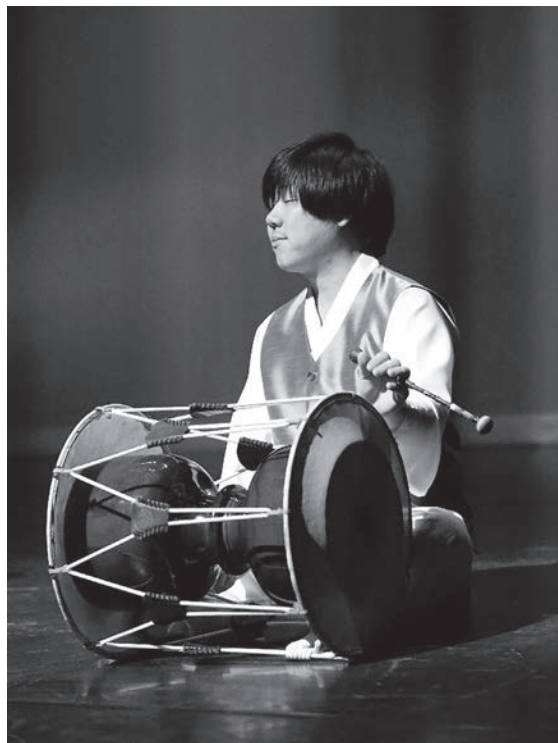
요즘 시대에 음악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 오디오, 라디오, TV뿐만 아니라 컴퓨터, 휴대폰으로도 음악을 쉽게 즐길 수 있다. 그런데 대중성 있게 소비되는 음악은 한정적이다. 우리의 전통음악이나 서양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널리 향유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은 국악인들에게 고민을 안겨 준다. 즐기는 사람이 많이 없기에 국악인들의 활동 무대도 한정적이다. 이는 다시 국악의 대중화를 가로막는 악순환을 만든다.

임 국장은 자신의 분야를 잘 몰라주는 사람들이 야속할 때도 있다고 한다. 대중성이 공연의 완성도와는 별개라고 느꼈을 때에 그는 자신이 지향하던 음악에 회의를 가지기도 했다. 임 국장은 과거에 언젠가 완성도는 부족하지만 시류에 편승한 요소를 넣은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는 그 공연을 하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공연

을 본 이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는 말을 들려줬다. 이에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런데 이 경험은 새로운 것을 향하는 계기가 됐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바에 대해 방향을 바꿔서 생각해 보기로 했다.

이후 임 국장은 좀 더 자유로운 음악을 추구하게 됐다. 그에게 대중성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관객 동원이라는 성과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을 하려고 한다. 임 국장은 연습, 창작, 공연이 모두 자유롭기를 바란다. 이러한 생각에서 임 국장은 올해 ‘아제스’라는 공연팀을 만들었다. ‘아제스’는 한 공연에 출연하기로 했던 이들이 갑자기 출연을 취소하면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주최 측에서 연락이 와서 급하게 팀을 꾸려 공연을 하게 된 데에서 비롯됐다. 아직까지 많은 공연을 하지 못했지만 임 국장은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있다. ‘아제스’에는 현재 서울씨어터 남호섭 대표, 드럼 연주자 최원일, 클라리넷 연주자 최원두 이렇게 네 사람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 외연을 계속 확장해 갈 예정이다. 특히 대금, 태평소 같은 국악 관악기 연주자를 찾고 있는 중이다. 현재의 구성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제스’는 국악 연주자만이 아니라 국악과 서양음악이 한자리에 모인 팀이다. 그리고 연구인이 있어서 아제스의 성격을 음악 공연팀이라고만 한정할 수도 없다. 아제스의 인적 구성은 임 국장의 국악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결과이다.

임효건 국장은 국악의 시대별 원형을 찾고,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임 국장이 보기에 사람들이 원형이라고 부르는 것도 변형과 발전 과정을 거쳐 정착된 것이기에 원형만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임 국장은 새로운 것을 활발히 받아들여 전통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아제스와 더불어 임 국장은 조만간 새로운 형식의 타악 연주동아리를 만들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 동아리 역시 국악을 고수하지 않으며 더 파격적이다. 종이박스처럼 버려진 물건을 악기로 활용할 생각이다. 그리고 동아리이기에 음악인이 아니라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 동아리는 공연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일상에서 타악 연주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물론 그렇다고 공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동아리의 목적이 사람들과 함께 타악을 즐기는 것에 있다는 점이다.

“창작도 연습도 공연도, 이제는 정말이지 성과에 구애받지 않고 즐기면서 하고 싶네요. 상품이 아닌 놀이로서 음악을 해나간다고 할까요.”

임효건 국장의 이 말에는 지금도 젊은, 20년 경력자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속초문화**

2019년 속초문화원 임원명단

구분	성명	경력	비고
원장	김계남	속초문화원장	
부원장	한명옥	전통타악연구원 대표	
이사	김은미	검찰청 법사랑위원회 위원	
이사	김주철	교차로 신문사 대표	
이사	김태형	속초 프로스펙스 대표	
이사	문은희	속초고성양양 여성경제인연합회장 신화식품 대표	
이사	박민효	속초민예총 회장	
이사	백영철	전)속초축제위원회 이사장	
이사	신홍식	전)해양경찰서장	
이사	유수경	강원대 경영대학원 설백회 회장	
이사	유종완	설악봉사회 회장	
이사	이정용	생활한복연구가	
이사	장용근	속초축제위원회 이사	
이사	정봉재	(사)한국예총 속초지회장	
이사	정성수	아트플랫폼갯배 운영, 아사모 회장	
이사	주경범	(주)삼정냉동 대표	
이사	지태수	갯마당 대표	
이사	최원복	사단법인 스포츠협회 이사	
이사	최춘미	생활한복 연구가	
이사	탁명원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	
이사	탁홍순	전)영랑동장	
이사	한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행위원	
감사	허우린	전)속초시사회복지협회장	
감사	이상호	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속초문화원 회원 모집

속초문화원은 지역사회의 발전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 기관으로서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속초문화원 회원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뜻을 같이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원혜택

1. 향토사안내서, 속초문화지 등 속초문화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책자들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 관내 문화예술체험 행사를 발 빠르게 알려드리며 우선적으로 초대합니다.
3.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DVD, 도서, 음반, 악기)의 대여가 가능합니다.
4. 문화유적답사 및 문화학교 수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원 자격으로 문화원 운영방향과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회원회비 : 연 5만원

문의 : TEL 632-1231 / FAX 632-1241 / www.sokcho-culture.com



 **속초문화원**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55(영랑동)
Tel. 033 632 1231, 639 2439 Fax. 033 632 1241
www.sokcho-culture.com

비매품/무료

